

전발연 2005-R-06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 방안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2005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나 상 균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노 상 윤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연구자문 김 관 식 •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장

박 강 표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과장

안 중 석 •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역경제가 내외우환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음
- 현재 중소기업은 부도업체의 급증, 생산거점 해외이전의 가속화 등 산업기반의 붕괴 우려
-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육성정책을 조감해 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 및 육성실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장기 육성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개괄적 경영환경, 산·학·연 협력실태, 자금지원 실태,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등의 지원제도 및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 중앙정부의 기업 지원제도, 전라북도의 자체적인 기업지원제도를 분석
- 12개 분야 117개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해 개별 중소기업들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를 조사해 봄으로써 제도의 적정성과 유효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체들의 지원제도와 정책 개선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 등에 대해 조사
- 중소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추출은 기존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하여 분야별 육성 과제 도출

3. 연구결과 요약

1) 중소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현황은 소기업 106,303(97.8%)개 업체, 중기업 2,232(2.1%)개 업체, 대기업 86(0.1%)개 업체로 전체 기업 중 소기업이 97.8%를 차지하고 있음
- 소기업 252,075(72.2%)명, 중기업 71,004(20.3%)명, 대기업 26,031(7.5%)명으로 대부분 소기업에 종사는 종사자가 전체 비중의 72.2%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실태는 조사 업체 중 금융기관 87.9%, 사채시장 3.2%, 적립금 및 주식발행 등 자기자본 4.0%, 회사채 발행 1.1%, 임직원 차입 3.8%로 나타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문제는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3.1%, 해당인력 부재 39.0%, 중소기업 근무 기피 의식 20.9%, 임금 조건 불일치 16.9%, 작업환경 요구 차이 8.8%, 지역 내 해당 인력 부재 11.3%로 나타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인력 부재와 중소기업 근무 기피 의식으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에 직면
- 중소기업의 산·학·연 기술협력 취약 사유는 상호 신뢰 구축 미흡이 30.4%, 인센티브 부족 10.4%, 협력촉진 위한 법적 장치 취약 21.6%, 협력파트너 역량 부족 24.6%, 기타 13.0%로 나타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상호 신뢰구축과 협력파트너의 역량 부족으로 산·학·연 기술협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

2) 지원제도 및 정책 평가

- 현재 진행 중인 12개 분야 117개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해 개별 중소기업들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조사
- 경영·정보화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정보화 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애로사항 정기 조사,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발은 지원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경영안정지원제도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지원, 외국인 산업 연수 제도 지원,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공산품 시험·분석·연구 지원제도는 시험검사 지원, 기자재 소비효율 측정 시험 지원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기술혁신 지원제도는 해외규격 획득지원, 중소기업 기술지도 대학 지원사업 지원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는 농공단지 분양, 지방산업단지 분양 지원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는 신기술 지역 펀드 운용, 실험실 벤처 창업 지원 등 모든 지원 사업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수출지원제도는 수출기업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국제 박람회 참가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인력지원제도는 공공근로사업만 높은 효율성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 전략산업 육성제도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 중소기업 사기 진작제도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는 경영안정자금 확대가 효율성이 높고, 대부분의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 판로지원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통 도매 물류센터 건립 등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3)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과제
 - 중소기업의 관련법 정비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나 직접적인 보호·육성보다는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간접적인 지원을 우선시 하고, 중소기업관련법을 조항 및 내용면에서 단순화 시켜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법 개정
 -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정책 개선, 중소기업 관련법의 정비, 지원제도 정비와 차별화된 지원, 진입 및 퇴출을 억제하는 제도 개선,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유인구조 재설계

○ 행정지원체계 개선과제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로 개별 지원기관에 의한 일방적 서비스 제공과 공급자 측면의 지원 프로그램 위주에 수요자 측면의 지원 서비스로 개선
- 리얼 서비스 체제 강화, 산·학·관 협력체제 강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중소기업 금융활동 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 신용보증 공급 확대 필요

4) 중소기업 육성 방안

- 중소기업 육성의 기본방향은 혁신적인 지원체계 운용, 지원체계 정비, 지원 인프라 확대, 시책 간 연계 및 성과 위주의 지원, 지원 주체 간 역할 분담체제로 구성
- 경영혁신 및 정보화 촉진은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사업 운영, 전라북도 중소기업 CEO경영혁신클럽운영, 중소기업 정보지원 센터 운영,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전라북도 중소기업 산업 정보망 DB 구축, 산업단지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 인력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청년 채용 패키지 사업, 중소기업 인력 Academy 사업
- 자금지원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유사·중복성 해소 및 연계성 프로그램, 자금 지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보증기관의 역할 분담 및 신용보증기관의 기능 확충
- 판로 및 유통기반 확충은 우수 중소기업의 홍보 및 판로확대, 국내·외 해외마케팅 지원 포털 사이트 네트워크 구축, 해외 마케팅 지원인력 집중 육성
- 생산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는 기술혁신 선도 중소기업 선정 및 집중 육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 지식재산센터 운영
-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역량 확충은 벤처기업 도착화 지원 강화, 벤처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 기술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은 생산구조 사업과 연계한 구조개선사업
- 지식기반 중소기업 육성은 중소기업의 지식기반서비스 수요창출 및 보급 확대, 전문지식기반 기업의 기초적 지원 강화, 디자인 및 브랜드 사업
- 창업활성화는 POST-BI 업체의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창업네트워크 구축

II. 정책제언

1)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종래의 직접적인 지원방식(경영안정자금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컨설팅,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체계 강화)중심으로 전환

2) 인력 확보 정책 수립

-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인력수급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통계 정비 등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
- 인력수급 실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정비 체계 정비

3) 판로 및 수출

-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마케팅 계획수립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며, 마케팅 전문가를 위한 산·학·연·관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수출 선도기업의 집중 육성,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수출업계의 마케팅 능력 배양, 수출관련 홍보 강화, 지역소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보험지원의 확대 및 활성화 유도

4) 기술혁신 선도기업의 집중 육성

- 중소기업들은 중앙부처와 전라북도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비즈니스 지원, 교육·훈련 기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 지속적인 기술·경영컨설팅 활동 강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추진, 상품화 촉진 지원 자금 확대
- 시행주체인 정부와 수혜자인 기업 상호간에 순환적 자극을 주는 ‘인센티브형’ 기술혁신 프로그램 개발

5) 창업위주의 지원

- 창업지원센터를 분야별로 전문화하고, 보호육성 차원의 의무적 지원이 아닌 지원기관의 수익 창출과 직결 될 수 있게 제도화
-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지원 서류 대폭 간소화

6) 자금조달 패러다임 변화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정부의 출연방식도 현재의 자금대여 방식에서 보조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금리의 인하 및 대출기간의 확대 필요

7) 중소기업지원 기관의 강화

- 중소기업인 협회, 중소기업 기술교류협의회, 산·학·연·관 협의회 구성, 중소기업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 신용보증재단 지원의 확대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기능의 전문화 및 내실화 유도

8) 중소기업 관련 민간 전문가 경영지도 활성화

- 퇴역 경영자와 현역 경영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와 연수를 효과적으로 실시
- 자금조달, 정부조달 참가, 세무신고 등 신청서·계약서 작성, 관계기관 소개 등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 2 장 중소기업 현황 및 경영실태	7
제 1 절 중소기업의 정의와 육성의 필요성	9
1. 중소기업의 정의	9
2.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	13
제 2 절 중소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15
1. 중소기업의 현황	15
2.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23
3. 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실태	49
제 3 절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 평가	58
1.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	58
2. 12개 부문별 지원제도 및 정책 평가	63
3. 지원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향과 지원전략	94
제 3 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개선	105
제 1 절 국내·외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례	107
1. 국내사례	107
2. 외국사례	111
제 2 절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스템 개선	114
1. 지원체계와 주요 조직별 지원 실태	114
2.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스템 개선	124
제 4 장 중소기업 육성 방안	137
제 1 절 중소기업육성의 기본방향	139
1. 혁신적인 지원체계 운용	139
2. 지원체계의 시장원리 적용	140
3. 지원 인프라와 연계시스템 구축	140
4. 시책 간 연계 및 성과위주의 지원	141

5. 지원주체 간 역할 분담 체계	142
제 2 절 중소기업의 분야별 육성 방안	142
1. 경영혁신 및 정보화 촉진	142
2. 인력지원정책	146
3. 자금지원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149
4. 판로 및 유통 기반 확충	152
5. 생산 기술혁신역량 강화	155
6.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역량 확충	158
7. 기술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160
8. 지식기반 중소기업 육성	162
9. 창업 활성화	164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7
제 1 절 결론	169
제 2 절 정책적 제언	171
■ 참고문헌	173
■ 부 록	177

표 목 차

<표Ⅱ-1> 중소기업 통계분류 기준(산업별 종사자수)	10
<표Ⅱ-2>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에 따른 기준	11
<표Ⅱ-3> 중소기업 업체수	16
<표Ⅱ-4> 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17
<표Ⅱ-5> 업종별 중소 제조업체 현황	18
<표Ⅱ-6> 지역별·산업별 종사자수	19
<표Ⅱ-7> 규모별 중소기업 종사자수	20
<표Ⅱ-8> 종사자수별 중소 제조업체 현황	21
<표Ⅱ-9> 중화학·경공업 부문별 현황	22
<표Ⅱ-10> 여성 경영인 중소기업체 현황	23
<표Ⅱ-11> 벤처기업 현황	23
<표Ⅱ-12> 입지유형별 분포	24
<표Ⅱ-13> 업종별 분포	25
<표Ⅱ-14> 기업형태별 분포	26
<표Ⅱ-15> 상장여부	26
<표Ⅱ-16> 자금조달재원(기업형태별)	27
<표Ⅱ-17> 금융기관 자금활용시 어려움(기업형태별)	27
<표Ⅱ-18> 정책자금 지원 효율화 방안(기업형태별)	28
<표Ⅱ-19> 입지유형별 인력확보	28
<표Ⅱ-20> 입지유형별 여성인력 만족도 분석	29
<표Ⅱ-21> 업종별 기술개발 및 획득의 애로강도	30
<표Ⅱ-22> 업종별 노사문제	31
<표Ⅱ-23> 업종별 자금조달 애로강도	32
<표Ⅱ-24> 업종별 판로개척(마케팅)의 애로강도	33
<표Ⅱ-25> 업종별 현지 생산인력 확보 애로강도	34
<표Ⅱ-26> 입지유형별 창업 또는 이전 동기	35
<표Ⅱ-27> 인력규모별 창업 또는 이전동기	35
<표Ⅱ-28> 주요 고객업체 및 판매시장과의 접근성	36
<표Ⅱ-29> 원자재 및 부품공급 업체와의 근접성	36
<표Ⅱ-30> 산학연 협조체제	37

<표Ⅱ-31> 창업 또는 기술이전 교육기관	37
<표Ⅱ-32> 경영·금융·마케팅 지원서비스	38
<표Ⅱ-33>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지역문화	38
<표Ⅱ-34> 고객업체 및 판매시장과의 접근성	39
<표Ⅱ-35> 원자재 및 부품공급 업체와의 근접성	39
<표Ⅱ-36> 창업 또는 기술이전 교육기관	39
<표Ⅱ-37> 경영, 금융, 마케팅 지원서비스	40
<표Ⅱ-38>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지역문화	40
<표Ⅱ-39> 연구기관·대학 등과 원활한 협조체제	40
<표Ⅱ-40> 공장(사업체) 이전규제	41
<표Ⅱ-41> 공장건축 부분규제	42
<표Ⅱ-42> 공장입지 부분규제	42
<표Ⅱ-43> 노동부분 규제	43
<표Ⅱ-44> 창업부분규제	43
<표Ⅱ-45> 환경부분규제	44
<표Ⅱ-46> 중소 제조업체 생산 현황	45
<표Ⅱ-47> 중소 제조업체 실패(출하액 기준)	46
<표Ⅱ-48> 중소제조업체 부가가치 실패	47
<표Ⅱ-49> 중소 제조업체의 어음부도율 실패	48
<표Ⅱ-50> 중소제조업체의 부도업체 수 실패	48
<표Ⅱ-51>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실패	49
<표Ⅱ-52> 주요협력분야별 관계유무(입지유형별)	50
<표Ⅱ-53> 주요협력분야별 관계유무(인력규모별)	51
<표Ⅱ-54> 경영참여 정도	51
<표Ⅱ-55> 기술개발협력 정도(입지유형별)	52
<표Ⅱ-56> 기술이전 정도(입지유형별)	52
<표Ⅱ-57> 사업이양 정도(입지유형별)	53
<표Ⅱ-58> 설비대여(입지유형별)	53
<표Ⅱ-59> 원자재 수급 정도(입지유형별)	54
<표Ⅱ-60> 인력과견 및 교류 정도(입지유형별)	54
<표Ⅱ-61> 자본참여 정도(입지유형별)	55
<표Ⅱ-62> 제품설계 제공 또는 공동개발 정도(입지유형별)	55
<표Ⅱ-63> 판매(수출)마케팅 협력 정도(입지유형별)	56
<표Ⅱ-64> 대기업과의 협력편익(입지유형별)	56

<표Ⅱ-65> 업종별 취약사유	57
<표Ⅱ-66> 타시도 대비 전북의 지원제도 및 정책 평가	58
<표Ⅱ-67> 지원제도와 정책 활용 미흡 사유	59
<표Ⅱ-68> 금융 및 보증지원 시 우대 확대 요구도	60
<표Ⅱ-69>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요구도	60
<표Ⅱ-70> 산·학·연의 협조체제 지원 요구도	60
<표Ⅱ-71>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요구도	61
<표Ⅱ-72> 지원내용 강화 활용도 제고 요구도	61
<표Ⅱ-73> 지원대상 범위 확대 요구도	62
<표Ⅱ-74> 지원요건 완화 요구도	62
<표Ⅱ-75> 지원제도 홍보 및 교육강화 요구도	62
<표Ⅱ-76>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대 요구도	63
<표Ⅱ-77> 경영안정지원 만족도	63
<표Ⅱ-78> 경영·정보화 지원 만족도	64
<표Ⅱ-79>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 만족도	64
<표Ⅱ-80> 기술혁신지원 만족도	65
<표Ⅱ-81>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 만족도	65
<표Ⅱ-82>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 만족도	66
<표Ⅱ-83> 수출지원 만족도	67
<표Ⅱ-84> 인력지원 만족도	67
<표Ⅱ-85> 전략산업육성 만족도	67
<표Ⅱ-86> 중소기업 사기진작 만족도	68
<표Ⅱ-87> 중소기업 자금지원 만족도	68
<표Ⅱ-88> 중소기업 판로지원 만족도	69
<표Ⅱ-89> 경영·정보화지원제도 인지도	69
<표Ⅱ-90> 경영·정보화지원제도 활용도	70
<표Ⅱ-91> 경영·정보화지원제도 만족도	71
<표Ⅱ-92> 경영안정지원제도 인지도	71
<표Ⅱ-93> 경영안정지원제도 활용도	72
<표Ⅱ-94> 경영안정지원제도 만족도	73
<표Ⅱ-95>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제도 인지도	73
<표Ⅱ-96>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제도 활용도	74
<표Ⅱ-97>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제도 만족도	75
<표Ⅱ-98> 기술혁신지원제도 인지도	76

<표Ⅱ-99> 기술혁신지원제도 활용도	77
<표Ⅱ-100> 기술혁신지원제도 만족도	78
<표Ⅱ-101>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 인지도	79
<표Ⅱ-102>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 활용도	79
<표Ⅱ-103>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 만족도	80
<표Ⅱ-104>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 인지도	80
<표Ⅱ-105>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 활용도	81
<표Ⅱ-106>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 만족도	82
<표Ⅱ-107> 수출지원제도 인지도	83
<표Ⅱ-108> 수출지원제도 활용도	84
<표Ⅱ-109> 수출지원제도 만족도	85
<표Ⅱ-110> 인력지원제도 인지도	85
<표Ⅱ-111> 인력지원제도 활용도	86
<표Ⅱ-112> 인력지원제도 만족도	86
<표Ⅱ-113> 전략산업육성제도 인지도	87
<표Ⅱ-114> 전략산업육성제도 활용도	88
<표Ⅱ-115> 전략산업육성제도 만족도	88
<표Ⅱ-116>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 인지도	89
<표Ⅱ-117>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 활용도	90
<표Ⅱ-118>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 만족도	90
<표Ⅱ-119> 자금지원제도 인지도	91
<표Ⅱ-120> 자금지원제도 활용도	92
<표Ⅱ-121> 자금지원제도 만족도	92
<표Ⅱ-122> 판로지원제도 인지도	93
<표Ⅱ-123> 판로지원제도 활용도	94
<표Ⅱ-124> 판로지원제도 만족도	94
<표Ⅱ-125> 경영·정보화 지원제도의 SEI	97
<표Ⅱ-126> 경영안정지원제도의 SEI	98
<표Ⅱ-127>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제도의 SEI	98
<표Ⅱ-12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SEI	99
<표Ⅱ-129>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의 SEI	100
<표Ⅱ-130>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의 SEI	100
<표Ⅱ-131> 수출지원제도의 SEI	101
<표Ⅱ-132> 인력지원제도의 SEI	102

<표Ⅱ-133> 전략산업육성제도의 SEI	102
<표Ⅱ-134>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의 SEI	103
<표Ⅱ-135>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의 SEI	103
<표Ⅱ-136> 판로지원제도의 SEI	104
<표Ⅲ-1>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절차 단계별 개선내용	107
<표Ⅲ-2> ERP 특별기금에 의한 주요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113
<표Ⅲ-3>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 규모	119
<표Ⅲ-4>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120
<표Ⅲ-5> 지원대상별 중소기업 지원 규모	120
<표Ⅲ-6> 2005년 중소기업 육성계획	121
<표Ⅲ-7> 중소기업청 전북지부 중소기업 지원 실태	123
<표Ⅲ-8>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 센터 지원 실태	124
<표Ⅲ-9> 리얼 서비스 지원구조	128
<표Ⅲ-10> 도산방지 특별 상담실 주요기능	135

그림 목 차

<그림Ⅱ-1> 중소기업관계법 체계도	12
<그림Ⅲ-1> 기업서비스 관련 지원 구조	116
<그림Ⅲ-2>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117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중소기업은 최선의 정보와 기술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손쉽게 구득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기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적고 공급시장 또한 제한적 이어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이른바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 지원 즉 기술지원 컨설팅, 마케팅, 인력훈련, 정보제공 등과 같은 지원이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산자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충하는 것은 기업의 핵심역량 구축과 보완적 자산의 외부활용을 증대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동시에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산을 지역 내에 축적하고 확충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자원 동원 서비스, 둘째, 정보지원 서비스, 셋째, 컨설팅 서비스, 넷째, 협력중개 지원 서비스, 다섯째, 네트워킹 지원 서비스 이다. 넷째와 다섯째는 각 경제 주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겨냥하여 기업 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 한다. 자원 동원 서비스는 자금, 입지, 인력 및 훈련 등의 서비스가 포함 된다. 정보지원서비스는 각종 DB의 열람, 정보의 공지 등을 포함 한다. 컨설팅 서비스는 경영과 마케팅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을 포함시켜 그 범위가 넓다.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지원의 유형으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조세지원, 인력 및 기술, 판로지원, 인프라 조성지원, 창업지원 등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그 동안 추진된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지원체계는 중앙부처 또는 개별지원기관이 지역본부를 통해 기업으로 연결되는 분산형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중앙부처의 지원과 개별지원기관의 지원으로 인해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기능은 과도하게 중복되고,

어떤 특정 기능은 지원되지 않은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개별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부재로 인해 탐색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이 주로 오프라인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원기관은 기업 정보 파악이 어려워서 어느 기업이 적절한 지원 대상인지 알기가 힘들고, 기업은 적합한 기관으로부터 신속한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개별지원기관에 의한 일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자금, 판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나, 개별지원기관이 지원 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기업이 지원을 받는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기업혁신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간 교류 및 이업종 교류가 중요하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째, 중소기업 지원체제가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구비되어 있고, 기술개발 및 혁신창출을 위한 지원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지원기관의 경우 대부분 대학 연구센터, 연구소 등 혁신자원의 공간적인 직접에 관심을 두고 있어 기능적인 연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에 대한 지원은 연구개발장비의 활용 및 확충에 치중하고 있어 기업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미흡하다.

여섯째, 지역혁신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인력, 기타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구축이 필수적이나, 관련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경영의 현황 및 애로요인 분석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중장기 육성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관점에서 거시 및 산업자료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애로요인 및 정책적인 지원수요, 이용도,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의 성공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행정지원방안, 금융지원 방안으로 구분하여 문제점

및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셋째,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의 육성방향을 기본방향과 분야별 육성방향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중소기업 육성이 기업성장과 지역발전으로 연결되는 이론적·실증적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둘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수요와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적인 공급체계 및 공급방식에 대해 검토, 셋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개괄적 경영환경, 산·학·연 협력실태, 자금지원 실태,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등의 지원제도 및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 중앙정부의 기업 지원제도, 전라북도의 자체적인 기업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방법은 전북 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노동, 경영 애로사항, 창업 및 이전환경, 입지도, 산업규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중소기업과 연계된 산학연의 협력실태와 그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고 협력 상의 취약 부분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파악해 보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12개 분야 117개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해 개별 중소기업들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를 조사해 봄으로써 제도의 적정성과 유효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체들의 지원제도와 정책 개선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 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분야별 육성 방안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중소기업 현황 및 경영실태

- 제 1 절 중소기업의 정의와 육성의 필요성
- 제 2 절 중소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 제 3 절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 평가

제 2 장 중소기업 현황 및 경영실태

제 1 절 중소기업의 정의와 육성의 필요성

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은 중소기업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은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시책대상에만 포함). 다만 비영리 법인·단체 등은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의 적용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다. 비영리 법인·단체는 중소기업지원 시책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립근거법령, 세법, 법인의 정관 등 관계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사업자나 법인·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제외한다.(예 :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보육시설 등)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 명의로 하는 수익사업체는 비영리법인과 별개의 사업체가 아니므로 중소기업범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표 II-1> 중소기업 통계분류 기준 (산업별 종사자수)

구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농업 및 임업	1~4인	1~9인	10~49인	50인 이상
			10~199인	200인 이상
어업	1~4인	1~9인	10~199인	200인 이상
			10~199인	200인 이상
광업	1~9인	1~49인	50~299인	300인 이상
			50~299인	300인 이상
제조업	1~9인	1~49인	50~299인	300인 이상
			50~299인	300인 이상
가스업	1~4인	1~9인	10~199인	200인 이상
			10~199인	200인 이상
건설업	1~9인	1~49인	50~299인	300인 이상
			50~299인	300인 이상
도매 및 소매업	1~4인	1~9인	10~49인	50인 이상
			10~99인	100인 이상
			10~199인	200인 이상
			10~299인	300인 이상
			10~99인	100인 이상
			10~99인	100인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1~4인	1~9인	10~49인	50인 이상
			10~299인	300인 이상
			10~199인	200인 이상
			10~199인	200인 이상
운수업	1~9인	1~49인	50~299인	300인 이상
			50~199인	200인 이상
통신업	1~4인	1~9인	10~199인	200인 이상
			10~199인	200인 이상
금융업	1~4인	1~9인	10~49인	50인 이상
			10~49인	50인 이상
부동산 및 임대업	1~4인	1~9인	10~49인	50인 이상
			10~99인	100인 이상
사업서비스업	1~4인	1~9인	10~299인	300인 이상
			10~49인	50인 이상
			10~99인	100인 이상
			10~99인	100인 이상
교육서비스업	1~4인	1~9인	10~49인	50인 이상
			10~49인	50인 이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4인	1~9인	10~49인	50인 이상
			10~199인	200인 이상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1~4인	1~9인	10~49인	50인 이상
			10~199인	200인 이상
			10~99인	100인 이상
			10~99인	100인 이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4인	1~9인	10~99인	100인 이상
			10~49인	50인 이상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2000.1.7)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2002.5.20)상의 기업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이며, 본 연구의 중소기업은 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음.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대기업계열사 변경은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개정안에서는 '05년 3월 31일까지 과도기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05년 4월1일부터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

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을 고시하도록 한다.

<표 II -2>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에 따른 기준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부호	범 위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211 55111 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목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참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B E 5171 55113 63 64 7432 8511 871 87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통신 판매업 방문 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51 5281 52893 712 74 75 873 881 88992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6. 기타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주:1) 해당업종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다만, 종전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외의 회사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2005년3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중소기업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림 II-1> 중소기업관계법 체계도



첫째, 152개 예외기준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대폭 단순화,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종전 예외기준을 모두 폐지, 동일 산업에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둘째, 산업구조변화에 부응하도록 지식서비스업의 범위 확대는 전자상거래업(20인→100인), 연구개발업(20인→50인), 서비스업 최저 기준(20인→30인)으로 한다.

셋째, 농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기준을 신설한다. 2002년 5월 이후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 최저범위로 확대 (30인→50인)한다. 호텔업(200인→300인),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100인→200인), 도매 및 상품 증개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50인→100인)으로 한다. 기타 서비스 관련 일부 업종(30인→50인)으로 한다. 다만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은 100인→50인으로 범위 축소한다.

2.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

1) 구조적 취약요인의 체계적 보완

수익성 중시 경영을 통해 과당 경쟁성과 저 수익성을 탈피해야 한다. 이는 효율적·과학적 경영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며, 시장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력구조 고도화를 통해 양질의 소수정예 노동력을 부가가치의 핵심 원천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재직자의 숙련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인력의 유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는 제한적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저해하는 현실적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극복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내수와 하도급 판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온라인 판로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라북도 경제환경의 변화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모태로 하는 질적 경제구조를 요

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시스템도 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란 전문성과 유연성, 기민성 및 창의성을 지닌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생산·고용 등의 면에서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산업구조를 뜻한다.

지식기반경제 및 정보화 사회에서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쟁우위를 가진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기존영역에서 다각화된 대기업보다는 획기적 혁신을 특징으로 하는 모험적 성격을 지닌 전문중소기업들이 다품종소량생산 시대에 있어 경쟁우위를 지닌다. 또한 기업조직 측면에서 보면 소형화와 관련한 다운사이징으로 중소기업 조직이 보다 경쟁력을 갖는다. 한편 정보통신의 발달과 이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규모 상 불가능했던 새로운 시장의 접근, 국제적 범위의 정보수집 및 홍보효과 등이 중소기업의 전통적인 영역 한계를 파괴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대에는 과거와는 달리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역할 및 활동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은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의 고양, 고용기회의 창출, 그리고 지식과 도전정신을 중시하는 사회의식 고취 등을 통해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부여함은 물론 중산층 육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의 입장에서는 저 기술, 저 생산성, 저 부가가치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그 동안의 나약한 지역산업구조를 탈피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주요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3) 기업환경변화에 대비한 중소기업 육성

지식기반경제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지역산업 구조의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제반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지역경제의 특성에 적합하면서도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인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육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

련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합지원체제의 강화, 둘째, 리얼 서비스 지원체제의 강화, 셋째, 산·학·관 협력 지원체제의 강화, 넷째,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은 기존의 지원체제에 있어 문제점으로 야기된 부문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이다. 특히 지원체제에 있어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기관 간의 관계 및 기능과 관련한 지원체제 개선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지원체제 유형을 전라북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전체의 혁신역량 및 혁신시스템 구축도 강화 될 것이다.

제 2 절 중소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1. 중소기업의 현황

1) 사업체수

전국의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소기업 2,913,850(97.1%)개, 중기업 85,447(2.8%)개, 대기업 4,808(0.2%)개로 전체 3,004,105개 업체로 나타났고, 전라북도는 소기업 106,303(97.9%)개, 중기업 2,232(2.1%)개, 대기업 86(0.1%)개 업체로 나타나 대부분 소기업이 9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종사자는 소기업 7,695,568(63.9%)명, 중기업 2,779,062(23.1%)명, 대기업 1,566,757(13.0%)명으로 나타나 대부분 소기업이 6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는 소기업 252,075(72.2%)명, 중기업 71,004(20.3%)명, 대기업 26,031(7.5%)명으로 대부분 소기업에 종사는 종사자가 전체 비중의 7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중소기업 사업체수를 전국기준으로 보면, 전체 2,999,297개 업체 중 도매업 및 소매업체가 888,871(29.6%)개 업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647,024(21.6%)개 업체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종이 서비스 업체 위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중소기업 업체수

(단위 : 개, %)

산업분류		전체 (A+B+C)	중소기업				대기업 (C)
			소기업(A)		중기업 (B)	소계 (A+B)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 체수	전 국	3,004,105 (100)	2,670,990 (88.9)	2,913,850 (97.0)	85,447 (2.8)	2,999,297 (99.8)	4,808 (0.2)
	전 북	108,621 (100)	99,108 (91.2)	106,303 (97.9)	2,232 (2.1)	108,535 (99.9)	86 (0.1)
종사 자수	전 국	12,041,387 (100)	5,232,697 (43.5)	7,695,568 (63.9)	2,779,062 (23.1)	10,474,630 (87.0)	1,566,757 (13.0)
	전 북	349,110 (100)	182,733 (52.3)	252,075 (72.2)	71,004 (20.3)	323,079 (92.5)	26,031 (7.5)

자료 : 통계청, 광공·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2003.

전라북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08,535개 업체 중 도매 및 소매 35,445(32.7%)개 업체, 숙박 및 음식점 23,400(21.6%)개 업체로 대부분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규모별 중소기업의 기업체수를 전라북도 기준으로 보면, 어업 및 광업에서는 소기업이 중기업 및 대기업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업종은 농업 및 임업이 60개 업체 중 22(36.7%)개 업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 및 보험업이 전체 214개 업체 중 중소기업이 29(16.2%)개 업체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전라북도 중소기업은 농업 및 임업, 금융 및 보험업, 소수의 제조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기업 형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 중소 제조업체 실태를 보면, 전국 110,691개 업체, 전라북도는 2,186개 업체로 전국 대비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로 나타났다. 전국의 업종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기계장비 14.2%, 조립금속제품이 13.0%로 타 업종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담배, 코크스, 석유정제 및 핵연료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4> 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단위 : 개, %)

산업분류	전 체 (A+B+C)	중 소 기 업				대기업(C)
		소기업(A)		중기업(B)	소 계(A+B)	
		소상공인	소기업			
전 산 업	108,621(100)	99,108(91.2)	106,303(97.9)	2,232(2.1)	108,535(99.9)	86(0.1)
농업·임업	60(100)	20(33.3)	37(61.7)	22(36.7)	59(98.3)	1(1.7)
어 업	1(100)	1(100)	1(100)	-(-)	1(100)	-(-)
광 업	87(100)	51(58.6)	87(100)	-(-)	87(100)	-(-)
제 조 업	9,235(100)	7,907(85.6)	8,989(97.3)	225(2.4)	9,214(99.8)	21(0.2)
전기·가스·수도사업	8(100)	1(12.5)	3(37.5)	5(62.5)	8(100)	-(-)
건 설 업	3,043(100)	2,437(80.1)	3,008(98.8)	35(1.2)	3,043(100)	-(-)
도매·소매업	35,462(100)	33,094(93.3)	34,758(98.0)	687(1.9)	35,445(100)	17(0.0)
숙박·음식점업	23,406(100)	21,509(91.9)	23,116(98.8)	284(1.2)	23,400(100)	6(0.0)
운 수 업	10,938(100)	10,670(97.5)	10,855(99.2)	81(0.7)	10,936(100)	2(0.0)
통 신 업	242(100)	158(65.3)	221(91.3)	21(8.7)	242(100)	-(-)
금융·보험업	241(100)	166(68.9)	193(80.1)	39(16.2)	232(96.3)	9(3.7)
부동산·임대업	2,114(100)	1,917(90.7)	2,041(96.5)	71(3.4)	2,112(99.9)	2(0.1)
사업서비스업	2,090(100)	1,600(76.6)	1,927(92.2)	151(7.2)	2,078(99.4)	12(0.6)
교육 서비스업	3,898(100)	3,206(82.2)	3,705(95.0)	187(4.8)	3,892(99.8)	6(0.2)
보건·사회복지 사업	2,051(100)	1,349(65.8)	1,867(91.0)	182(8.9)	2,049(99.9)	2(0.1)
오락·문화·관련 서비스업	4,429(100)	4,272(96.5)	4,392(99.2)	35(0.8)	4,427(100)	2(0.0)
수리·개인 서비스업	11,316(100)	10,750(95.0)	11,103(98.1)	207(1.8)	11,310(99.9)	6(0.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 조사보고서, 2003.

전라북도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음식료품 16.6%, 비금속광물제품 12.5%, 섬유제품이 타 업종에 비교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죽, 가방 및 신발,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는 타 업종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대비 전북의 비중은 담배 11.1%, 비금속광물 제품과 목재 및 나무제품이 6.3%로 전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5> 업종별 중소기업 현황

(단위:명, %)

구 분	사업체수				
	전국	비중	전북	비중	전북/전국
제조업	110,691	100	2,186	100	2.0
음식료품	7,281	6.9	362	16.6	5.0
담배	9	0.0	1	0.0	11.1
섬유제품	9,329	8.9	118	5.4	1.3
봉제의복 · 모피제품	8,774	8.3	209	9.6	2.4
가죽 · 가방 · 신발	2,165	2.1	4	0.2	0.2
목재 · 나무제품	2,048	1.9	128	5.9	6.3
펄프 · 종이 · 종이제품	2,905	2.8	81	3.7	2.8
출판 · 인쇄 · 기록매체	5,790	5.5	59	2.7	1.0
코코스 · 석유정제품 · 핵연료	107	0.1	2	0.1	1.9
화학물 · 화학제품	3,662	3.5	116	5.3	3.2
고무 · 플라스틱제품	8,364	8.0	129	5.9	1.5
비금속광물제품	4,007	3.8	273	12.5	6.8
제1차 금속산업	2,592	2.5	29	1.3	1.1
조립금속제품	13,648	13.0	163	7.5	1.2
기타기계 · 장비	14,946	14.2	138	6.3	0.9
컴퓨터 · 사무용기기	711	0.7	4	0.2	0.6
기타전기기계 · 전기 변환장치	5,917	5.6	62	2.8	1.0
전자부품 · 영상 · 음향 · 통신장비	4,707	4.5	28	1.3	0.6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 시계	2,700	2.6	20	0.9	0.7
자동차 · 트레일러	3,530	3.4	125	5.7	3.5
기타운송장비	1,098	1.0	7	0.3	0.6
가구 · 기타제품	5,982	0.4	112	5.1	1.9
재생용 가공 원료	419	0.4	16	0.7	3.8

자료: 통계청, 광업 · 제조업통계 조사보고서, 2003.

2) 종사자수

산업별 중소기업 종사자수를 전국기준으로 보면 전체 10,474,630명 중 제조업체 2,685,616(25.6%)명, 도소매업 및 소매업체 2,350,099(22.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683,905(16.1%)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서비스 업체 위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기준으로 보면, 전체 323,079명 중 도매 및 소매업 81,498(25.2%)명, 제조업 65,413(20.2%)명, 숙박 및 음식점업 58,044(18.0%)명으로 대부분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할 때 전국은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라북도는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

도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6> 지역별 · 산업별 종사자수

(단위 :명, %)

산업분류	전국		전북	
	전체기업	중소기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전산업	10,474,630(100)	2,999,297(100)	323,079(100)	108,535(100)
농업·임업	5,414(0.1)	570(0.0)	540(0.2)	59(0.1)
어업	3,954(0.0)	140(0.0)	2(0.0)	1(0.0)
광업	16,611(0.2)	1,879(0.1)	895(0.3)	87(0.1)
제조업	2,685,616(25.6)	325,046(10.8)	65,413(20.2)	9,214(8.5)
전기·가스·수도사업	7,464(0.1)	322(0.0)	317(0.1)	8(0.0)
건설업	647,174(6.2)	82,083(2.7)	21,666(6.7)	3,043(2.8)
도매·소매업	2,350,099(22.4)	888,871(29.6)	81,498(25.2)	35,445(32.7)
숙박·음식점업	1,683,905(16.1)	647,024(21.6)	58,044(18.0)	23,400(21.6)
운수업	729,938(7.0)	323,445(10.8)	24,222(7.5)	10,936(10.1)
통신업	41,692(0.4)	5,401(0.2)	1,191(0.4)	242(0.2)
금융·보험업	50,151(0.5)	8,965(0.3)	1,266(0.4)	232(0.2)
부동산·임대업	247,857(2.4)	98,752(3.3)	4,796(1.5)	2,112(1.9)
사업서비스업	553,814(5.3)	80,459(2.7)	9,059(2.8)	2,078(1.9)
교육서비스업	358,748(3.4)	96,592(3.2)	12,608(3.9)	3,892(3.6)
보건·사회복지사업	272,779(2.6)	56,257(1.9)	11,224(3.5)	2,049(1.9)
오락·문화·관련서비스업	270,608(2.6)	119,267(4.0)	9,169(2.8)	4,427(4.1)
수리·개인서비스업	548,806(5.2)	264,224(8.8)	21,169(6.6)	11,310(10.4)

주: ()안은 각 지역별 전산업에 대한 각 산업별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2003.

산업 규모 별 중소기업의 종사자수를 전라북도 기준으로 보면, 어업, 광업의 소기업이 중기업 및 대기업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업종은 전기, 가스, 수도사업이 317명중 298(94.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 및 어업이 전체 591명중 중소기업이 395(66.8%)명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전라북도의 전기, 가스, 수도사업, 농업 및 임업에 종사자는 타 업종과 비교하여 소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7> 규모별 중소기업 종사자수

(단위 : 명, %)

산업분류	전 체 (A+B+C)	중 소 기 업				대기업(C)
		소기업(A)		중기업(B)	소 계(A+B)	
		소상공인	소기업			
전산업	349,110(100)	182,733(52.3)	252,075(72.2)	71,004(20.3)	323,079(92.5)	26,031(7.5)
농업·임업	591(100)	44(7.4)	145(24.5)	395(66.8)	540(91.4)	51(8.6)
어업	2(100)	2(100)	2(100)	-(-)	2(100)	-(-)
광업	895(100)	197(22.0)	895(100)	-(-)	895(100)	-(-)
제조업	81,942(100)	19,305(23.6)	41,887(51.1)	23,526(28.7)	65,413(79.8)	16,529(20.2)
전기·가스·수도사업	317(100)	4(1.3)	19(6.0)	298(94.0)	317(100)	-(-)
건설업	21,666(100)	8,700(40.2)	18,804(86.8)	2,862(13.2)	21,666(100)	-(-)
도매·소매업	83,617(100)	57,955(69.3)	68,121(81.5)	13,377(16.0)	81,498(97.5)	2,119(2.5)
숙박·음식점업	58,982(100)	43,746(74.2)	53,368(90.5)	4,676(7.9)	58,044(98.4)	938(1.6)
운수업	25,118(100)	12,613(50.2)	16,147(64.3)	8,075(32.1)	24,222(96.4)	896(3.6)
통신업	1,191(100)	404(33.9)	809(67.9)	382(32.1)	1,191(100)	-(-)
금융·보험업	2,375(100)	305(12.8)	476(20.0)	790(33.3)	1,266(53.3)	1,109(46.7)
부동산·임대업	5,208(100)	3,007(57.7)	3,793(72.8)	1,003(19.3)	4,796(92.1)	412(7.9)
사업서비스업	11,429(100)	3,292(28.8)	5,312(46.5)	3,747(32.8)	9,059(79.3)	2,370(20.7)
교육서비스업	12,952(100)	5,895(45.5)	8,987(69.4)	3,621(28.0)	12,608(97.3)	344(2.7)
보건·사회복지 사업	11,496(100)	4,025(35.0)	7,170(62.4)	4,054(35.3)	11,224(97.6)	272(2.4)
오락·문화·관련서비스업	9,417(100)	7,640(81.1)	8,348(88.6)	821(8.7)	9,169(97.4)	248(2.6)
수리·개인 서비스업	21,912(100)	15,599(71.2)	17,792(81.2)	3,377(15.4)	21,169(96.6)	743(3.4)

자료: 전라북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2003.

업종별 중소기업 종사자 실태를 보면, 전국 2,090,216명, 전라북도 51,538명으로 전국 대비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소기업 업종별 종사자 분포도를 살펴보면, 섬유제품 8.1%, 기타 기계 및 장비 12.5%로 타 업종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담배,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재생용 가공원료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라북도의 업종별 종사자 분포도를 보면, 음식료품 17.3%, 비금속광물제품 1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9.9%로 타 업종에 비교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0.2%, 기타 운송장비 0.2%로 비교적 타 업종과 비교하여 낮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대비 전북의 비중은 섬유제품 19.7%, 비금속광물제품 6.9%로 전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8> 종사자수별 중소기업 현황

(단위:명, %)

구분	종사자수				
	전국	비중	전북	비중	전북/전국
제조업	2,090,216	100	51,538	100	2.5
음식료품	151,487	7.2	8,927	17.3	5.9
담배	1,492	0.1	294	0.6	19.7
섬유제품	169,475	8.1	3,624	7.0	2.1
봉제의복·모피제품	121,125	5.8	4,514	8.8	3.7
가죽·가방·신발	35,680	1.7	87	0.2	0.2
목재·나무제품	23,914	1.1	1,690	3.3	7.1
펄프·종이·종이제품	54,060	2.6	2,034	3.9	3.8
출판·인쇄·기록매체	79,824	3.8	1,020	2.0	1.3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2,414	0.1	27	0.1	1.1
화합물·화학제품	103,445	4.9	4,104	8.0	4.0
고무·플라스틱제품	159,432	7.6	2,494	4.8	1.6
비금속광물제품	75,687	3.6	5,253	10.2	6.9
제1차 금속산업	67,628	3.2	929	1.8	1.4
조립금속제품	199,498	9.5	2,663	5.2	1.3
기타기계·장비	261,746	12.5	2,858	5.5	1.1
컴퓨터·사무용기기	21,610	1.0	113	0.2	0.5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 장치	125,755	6.0	1,268	2.5	1.0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153,247	7.3	1,861	3.6	1.2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45,701	2.2	400	0.8	0.9
자동차·트레일러	114,726	5.5	5,123	9.9	4.5
기타운송장비	38,404	1.8	125	0.2	0.3
가구·기타제품	78,707	3.8	1,963	3.8	2.5
재생용가공원료	5,159	0.2	167	0.3	13.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2003.

3) 중화학·경공업

전국 규모의 중화학·경공업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111,363개 업체 중 중화학 61,342(55.2%)개 업체 중 중소기업 60,949(54.7%)개 업체로 나타났다. 경공업 49,931개 업체 중 중소기업 49,742(44.7%)개 업체로 나타나 중화학 공업이 경공업 보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2,090,216명 중 중화학 부분의 중소기업 1,269,080명, 경공업 부분의 중소기업 821,136명으로 나타나 중화학이 경공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2,186개 업체 중 중화학공업 1,080(1.0%)개 업체, 경공업 1,127(1.0%)개 업체로 나타나 중화학공업이 경공업 보다 약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68,507명중 중화학공업 40,296(1.5%)명, 경공업 28,213(1.0%)명으로 나타나 중화학 부분이 경공업부분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9> 중화학·경공업 부문별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

구 분		중화학공업		경공업		합계	
		전체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국	61,432 (55.2)	60,949 (54.7)	49,931 (44.8)	49,742 (44.7)	111,363 (100)	110,691 (99.4)
	전북	1,080 (1.0)	1,064 (1.0)	1,127 (1.0)	1,122 (1.0)	2,207 (2.0)	2,186 (2.0)
종사자수	전국	1,786,934 (65.8)	1,269,080 (46.7)	929,818 (34.2)	821,136 (30.2)	2,716,752 (100)	2,090,216 (76.9)
	전북	40,294 (1.5)	26,925 (1.0)	28,213 (1.0)	24,613 (0.9)	68,507 (2.5)	51,538 (1.9)
생산액	전국	534,869,436 (79.6)	230,011,832 (34.2)	137,191,055 (20.4)	110,219,489 (16.4)	672,060,491 (100)	340,231,321 (50.6)
	전북	12,231,784 (1.8)	5,805,049 (0.9)	4,664,785 (0.7)	4,065,665 (0.6)	16,896,569 (2.5)	9,870,714 (1.5)
출하액	전국	531,037,172 (79.6)	228,511,634 (34.2)	136,262,145 (20.4)	109,497,442 (16.4)	667,299,317 (100)	338,009,076 (50.7)
	전북	12,213,506 (1.8)	5,801,973 (0.9)	4,617,267 (0.7)	4,039,173 (0.6)	16,830,773 (2.5)	9,841,146 (1.5)
부가가치	전국	196,113,063 (77.1)	88,667,734 (34.9)	58,295,897 (22.9)	45,588,557 (17.9)	254,408,960 (100)	134,256,291 (52.8)
	전북	5,414,736 (2.1)	2,348,634 (0.9)	1,731,145 (0.7)	1,535,607 (0.6)	7,145,881 (2.8)	3,884,241 (1.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 조사보고서, 2003.

4) 여성 경영인 중소기업체

여성 경영인 중소기업체 수의 전국 실태를 보면, 전체 1,118,076개 업체로 소기업 1,104,902(98.8%)개, 중기업 12,767(1.1%)개로 대부분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42,939개 업체 중소기업 42,579(99.2%)개 업체, 중기업 353(0.8%)개 업체로 분석되어 대부분 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자 기준의 전국 실태를 보면, 총 2,580,319명으로 소기업 2,266,725(87.8%)명, 중기업 353(0.8%)명으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종사자도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10> 여성 경영인 중소기업체 현황

(단위 : 개, %)

산업분류	전체 (A+B+C)	중소기업					대기업 (C)
		소기업(A)		중기업 (B)	소계 (A+B)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 체수	전 국	1,118,076 (100)	1,050,192 (93.9)	1,104,902 (98.8)	12,767 (1.1)	1,117,669 (100)	407 (0.0)
	전 북	42,939 (100)	40,779 (95.0)	42,579 (99.2)	353 (0.8)	42,932 (100)	7 (0.0)
종사 자수	전 국	2,580,319 (100)	1,867,472 (72.4)	2,266,725 (87.8)	261,488 (10.1)	2,528,213 (98.0)	52,106 (2.0)
	전 북	89,810 (100)	69,492 (77.4)	82,512 (91.9)	6,370 (7.1)	88,882 (99.0)	928 (1.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2003.

5) 벤처기업 현황

벤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8,474개의 벤처기업 중에서 전북은 97개의 벤처기업으로 약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투자나 연구개발 분야 보다는 신기술 관련 벤처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특허와 산업 관련 신 기술벤처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벤처 기업 현황

(단위 : 개, %)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신기술기업							합계
			특허	고도	산업	이전	출연	예비	소계	
전북	7 (0.6)	7 (0.5)	31 (1.9)	18 (0.7)	33 (2.4)	0 (0.0)	1 (0.5)	0 (0.0)	83 (1.4)	97 (1.1)
전국	1,092	1,421	1,597	2,731	1,399	18	182	34	5,961	8,474

자료: 중소기업청, 2003.

2.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1) 경영환경 조사의 목적과 개요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전북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이 그들의 기업경영활동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 지원제도 및 지원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

로 전라북도 중소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북 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노동, 경영 애로사항, 창업 및 이전환경, 입지도, 산업규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중소기업과 연계된 산학연의 협력실태를 그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고 협력 상의 취약 부분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파악해 보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12개 분야 117개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해 개별 중소기업들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를 조사해 봄으로써 제도의 적정성과 유효성을 검진해 보고 중소기업체들의 지원제도와 정책 개선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 등에 대한 공감대를 파악해 보았다.

본 조사는 2005년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전북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전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조사 방법은 조사원들이 개별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기업관계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입지유형별 응답업체 분포

설문조사에 응한 전북중소기업들의 입지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개별입지에 위치한 업체가 81개 45.5%를 차지했고, 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한 업체는 46개 25.8%를 차지했으며, 농공단지 31개 업체 19.1%, 국가산업단지에 입지한 업체는 17개 9.6%를 차지했다.

<표 II-12> 입지유형별 분포

(단위 : 개, %)

입지유형		응답업체수	비율	유효 비율	누적비율
유 효	개별입지	81	45.3	45.5	45.5
	농공단지	34	19.0	19.1	64.6
	국가산업단지	17	9.5	9.6	74.2
	지방산업단지	46	25.7	25.8	100
	소 계	178	99.4	100	
무응답		1	0.6		
합 계		179	100		

(2) 업종별 응답업체 분포

응답 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조립금속·기계·수송용 장비업체 23개(13.0%), 섬유·의복·모피업체 10개(5.6%), 목재·종이·가구업체 8개(4.5%), 전기·전자업체 8개(4.5%), 건설업체 7개(4.0%), 도소매업체 6개(3.4%), 기타 제조업 71개(40.1%) 등의 업체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고 기타 분야 업체들의 분포는 <표 II-13>과 같다.

<표 II-13> 업종별 분포

(단위 : 개, %)

	업종	응답업체수	비율	유효 비율	누적비율
유효	농림어업	1	0.6	0.6	0.6
	전기·가스·수도업	1	0.6	0.6	1.1
	건설업	7	3.9	4.0	5.1
	도소매업	6	3.4	3.4	8.5
	운수 및 보관업	2	1.1	1.1	9.6
	통신 및 방송업	3	1.7	1.7	11.3
	교육 및 보건	1	0.6	0.6	11.9
	기타 서비스업	6	3.4	3.4	15.3
	음식료업	4	2.2	2.3	17.5
	섬유·의복·모피	10	5.6	5.6	23.2
	목재·종이·가구	8	4.5	4.5	27.7
	인쇄·출판	1	0.6	0.6	28.2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14	7.8	7.9	36.2
	비금속광물제품	8	4.5	4.5	40.7
	제1차금속	3	1.7	1.7	42.4
	조립금속·기계·수송용장비	23	12.8	13.0	55.4
	전기·전자	8	4.5	4.5	59.9
	기타 제조업	71	39.7	40.1	100
	소계	177	98.9	100	
	무응답		2	1.1	
합 계		179	100		

(3) 응답업체의 기업형태와 상장여부

기업형태별로는 130개 응답업체(72.6%)가 법인기업이었고, 49개 응답업체(27.4%)는 개인 기업이다. 또한 응답 업체의 대부분인 167개 업체(94.4%)가 비상장 업체이고, 10개 업체(5.6%)만이 상장업체였다.

<표 II-14> 기업형태별 분포

(단위 : 개, %)

기업형태	응답업체수	비율	유효 비율	누적비율
법인기업	130	72.6	72.6	72.6
개인기업	49	27.4	27.4	100
합 계	179	100	100	

<표 II-15> 상장여부

(단위 : 개, %)

상장		응답업체수	비율	유효 비율	누적비율
유효	상장	10	5.6	5.6	5.6
	비상장	167	93.3	94.4	100
	합계	177	98.9	100	
무응답		2	1.1		
합 계		179	100		

2) 중소기업의 자금실태

전북소재 중소기업들의 자금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내용들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형태별 자금실태

우선 기업형태별 자금조달 재원을 조사해본 결과, 법인기업이 경우 123개 업체(96.9%)가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고 있고, 19개 업체(15%)가 임직원의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9개 업체(7.1%)가 적립금·주식발행 등 자기자본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기업의 경우, 43개 업체(91.5%)가 역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법인기업과는 달리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자금조달 재원은 사채시장으로 6개 업체(12.8%)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재원으로는 적립금·주식발행 등 자기자본의 활용과 임직원의 차입으로 동일하게 5개 업체(10.6%)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6> 자금조달재원(기업형태별)

(단위 : 개, %)

기업형태	금융기관	사채시장	적립금·주식발행 등 자기자본	회사채 발행	임직원 차입	합계
법인기업	123(96.9)	3(2.4)	9(7.1)	2(1.6)	19(15)	127(100)
개인기업	43(91.5)	6(12.8)	5(10.6)	0(0.0)	5(10.6)	47(100)
합 계	166(95.4)	9(5.2)	14(8.0)	2(1.1)	24(13.8)	174(100)

(2) 금융기관 자금활용 어려움

기업형태별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 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법인기업의 경우 73개 업체(60.8%)가 담보위주의 관행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고, 44개 업체(36.7%)가 높은 대출 심사기준을 어려움으로 응답했으며, 39개 업체(32.5%)가 복잡한 대출절차를 문제로 응답하였다.

개인기업의 경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은 27개 업체(58.7%)가 담보위주 관행으로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큰 어려움은 22개 업체(47.8%)가 복잡한 대출절차였고, 세 번째로 큰 어려움은 11개 업체(23.9%)가 재무구조 취약으로 응답하였다.

<표 II-17> 금융기관 자금활용시 어려움(기업형태별)

(단위 : 개, %)

기업형태	재무구조 취약	높은 대출 심사기준	담보위주 관행	복잡한 대출절차	대출금 만기 연장 회피	기타	합계
법인기업	20(16.7)	44(36.7)	73(60.8)	39(32.5)	7(5.8)	8(6.7)	120(100)
개인기업	11(23.9)	12(26.1)	27(58.7)	22(47.8)	1(2.2)	2(4.3)	46(100)
합 계	31(18.7)	56(33.7)	100(60.2)	61(36.7)	8(4.8)	10(6.0)	166(100)

(3) 정책자금 지원 효율화 방안

이러한 전복의 실태에 대응하여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방안들에 대한 조사결과, 법인기업체들 중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 55개 업체(43.3%)가 응답한 전라북도 출연의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54개 업체(42.5%)가 응답한 담보·보증에 대한 요구 축소였으며, 세 번째로는 49개 업체(38.6%)가 응답한 정부출연의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확대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기업의 경우, 27개 업체(55.1%)가 응답한 담보·보증에 대한 요구축소가 가장 절실한 지원 효율화 방안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23개 업체(46.9%)가 응답한 정부출연의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확대였으며, 세 번째로는 21개 업체(42.9%)가 응답한 전라북도 출연의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표 II-18> 정책자금 지원 효율화 방안(기업형태별)

(단위 : 개, %)

기업형태	정부출연 규모확대	전북출연 규모확대	이용절차 간소화	심사기준 완화	담보·보증 요구축소	기타	합계
법인기업	49(38.6)	55(43.3)	41(32.3)	22(17.3)	54(42.5)	5(3.9)	127(100)
개인기업	23(46.9)	21(42.9)	15(30.6)	11(22.4)	27(55.1)	1(2.0)	49(100)
합 계	72(40.9)	76(43.2)	56(31.8)	33(18.8)	81(46.0)	6(3.4)	176(100)

3) 입지유형별 노동시장 실태

(1) 인력확보 어려움

업체들의 입지유형별 인력확보의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결과, 개별입지의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은 29개 업체가 답한 국내에 해당 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26개 업체는 중소기업에 근무기피의식이라 답했으며, 14개 업체는 임금조건이 일치하지 못해 어렵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정은 농공단지도 겪고 있음을 <표 II-19>를 통해 알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8개 업체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어려움으로 답했고, 7개 업체는 국내에 찾는 인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동일 비중인 17개 업체가 앞에서 지적된 두 어려움을 인력확보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표 II-19> 입지유형별 인력확보

(단위 : 개, %)

입지유형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국내에 해당 인력 부재	중소기업 근무기피의식	임금조건외 불일치	작업환경 요구차이	전북지역 내 해당 인력부재	계
개별입지	4(5.7)	29(41.4)	26(37.1)	14(20)	6(8.6)	7(10.0)	70(100)
농공단지	1(3.3)	16(53.3)	8(26.7)	6(20)	2(6.7)	3(10.0)	30(100)
국가산업단지	0(0.0)	7(41.2)	8(47.1)	0(0.0)	1(5.9)	2(11.8)	17(100)
지방산업단지	0(0.0)	17(39.5)	17(39.5)	7(16.3)	5(11.6)	6(14.0)	43(100)
합 계	5(3.1)	69(43.1)	59(36.9)	27(16.9)	14(8.8)	18(11.3)	160(100)

(2) 여성인력 활용 어려움

개별입지의 경우 32개 업체는 여성인력의 활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으나, 18개 업체가 여성인력의 잔업기피 등에 따른 조업한계를 어려움으로 답했고, 17개 업체는 여성 및 육아 관련 복지시설 등 근로환경에 대한 추가요구가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농공단지의 경우 역시 11개 업체는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으나 10개 업체는 근로환경에 대한 추가요구를 어려움으로 지적했다고, 7개 업체는 낮은 노동생산성을 문제로 지적했다으며, 5개 업체가 잔업기피 등에 따른 조업한계를 어려움으로 답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도 6개 업체는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한 반면, 5개 업체는 근로환경(여성 및 육아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추가요구를 어려움으로 답했고, 3개 업체는 잔업기피 등에 따른 조업한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19개 업체는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반면, 15개 업체는 근로환경에 대한 추가요구를 어려움으로 답했다.

<표 II-20> 입지유형별 여성인력 만족도 분석

(단위 : 개, %)

입지유형	잔업기피 등에 따른 조업 한계	낮은 노동생산성	근로환경(여성 및 육아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추가요구	어려움 없음	계
개별입지	18(24.7)	9(12.3)	17(23.3)	32(43.8)	73(100)
농공단지	5(15.2)	7(21.1)	10(30.3)	11(33.3)	33(100)
국가산업단지	3(18.8)	2(12.5)	5(31.3)	6(37.5)	16(100)
지방산업단지	7(15.6)	7(15.6)	15(33.3)	19(42.2)	45(100)
합 계	33(19.8)	25(15.0)	47(28.1)	68(40.7)	167(100)

4) 업종별 경영 애로사항

(1) 기술개발 및 획득

기술개발 및 기술획득에 있어서 전북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의 정도를 파악해 보기 위한 조사결과, 전체적인 평가는 69개 업체가 힘들다고 답했고, 75개 업체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14개 업체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업종별 자세한 애로 강도는 <표 II-21>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II-21> 업종별 기술개발 및 획득의 애로강도

(단위 : 개, %)

업종분류	기술개발 및 획득					전체
	아주 힘들	힘들	보통임	좋음	아주 좋음	
농림어업	1(100)	0(0.0)	0(0.0)	0(0.0)	0(0.0)	1(100)
전기·가스·수도업	0(0.0)	0(0.0)	1(100)	0(0.0)	0(0.0)	1(100)
건설업	0(0.0)	1(20)	4(80)	0(0.0)	0(0.0)	5(100)
도소매업	2(33.3)	1(16.7)	3(50.0)	0(0.0)	0(0.0)	6(100)
운수·보관업	0(0.0)	0(0.0)	1(100)	0(0.0)	0(0.0)	1(100)
통신·방송업	0(0.0)	0(0.0)	1(33.3)	2(66.7)	0(0.0)	3(100)
기타·서비스업	0(0.0)	2(33.3)	3(50.0)	1(16.7)	0(0.0)	6(100)
음식료업	2(50.0)	1(25)	1(25)	0(0.0)	0(0.0)	4(100)
섬유·의복·모피	1(11.1)	4(44.4)	3(33.3)	1(11.1)	0(0.0)	9(100)
목재·종이·가구	1(16.7)	3(50)	2(33.3)	0(0.0)	0(0.0)	6(100)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3(25.0)	1(8.3)	7(58.3)	1(8.3)	0(0.0)	12(100)
비금속·광물제품	1(12.5)	2(25.0)	3(37.5)	1(12.5)	1(12.5)	8(100)
제1차금속	2(66.7)	1(33.3)	0(0.0)	0(0.0)	0(0.0)	3(100)
조립금속기계·수송장비	1(4.3)	6(26.1)	13(56.3)	3(13.0)	0(0.0)	23(100)
전기·전자	1(12.5)	3(37.5)	4(50)	0(0.0)	0(0.0)	8(100)
기타·제조업	8(12.9)	21(33.9)	29(46.8)	3(4.8)	1(1.6)	62(100)
전 체	23(14.6)	46(29.1)	75(47.5)	12(7.6)	2(1.3)	158(100)

(2) 노사문제

전북 중소기업들의 업종별 노사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84개 업체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59개 업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18개 업체만이 부정적인 답을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사문제에 상대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분야로는 섬유·의복·모피업체와 목재·종이·가구업체, 제1차 금속업체들로 조사되었다.

<표 II-22> 업종별 노사문제

(단위 : 개, %)

업종분류	노사문제					전체
	아주 힘들	힘들	보통임	좋음	아주 좋음	
농림어업	0(0.0)	1(100)	0(0.0)	0(0.0)	0(0.0)	1(100)
전기·가스·수도업	0(0.0)	0(0.0)	0(0.0)	1(100)	0(0.0)	1(100)
건설업	0(0.0)	0(0.0)	4(80.0)	1(20.0)	0(0.0)	5(100)
도소매업	0(0.0)	0(0.0)	4(66.7)	1(16.7)	1(16.7)	6(100)
운수·보관업	0(0.0)	0(0.0)	1(100)	0(0.0)	0(0.0)	1(100)
통신·방송업	0(0.0)	0(0.0)	0(0.0)	3(100)	0(0.0)	3(100)
기타 서비스업	0(0.0)	1(16.7)	4(66.7)	1(16.7)	0(0.0)	6(100)
음식료업	0(0.0)	1(25.0)	2(50.0)	1(25.0)	0(0.0)	4(100)
섬유·의복·모피	0(0.0)	2(22.2)	5(55.6)	2(22.2)	0(0.0)	9(100)
목재·종이·가구	0(0.0)	3(37.5)	3(37.5)	2(25.0)	0(0.0)	8(100)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0(0.0)	0(0.0)	5(38.5)	6(46.2)	2(15.4)	13(100)
비금속광물제품	0(0.0)	1(12.5)	3(37.5)	4(50.0)	0(0.0)	8(100)
제 1 차 금속	0(0.0)	2(66.7)	1(33.3)	0(0.0)	0(0.0)	3(100)
조립금속·기계·용장비	0(0.0)	0(0.0)	12(57.1)	8(38.1)	1(4.8)	21(100)
전기·전자	0(0.0)	0(0.0)	3(37.5)	5(62.5)	0(0.0)	8(100)
기타 제조업	2(3.1)	5(7.8)	37(57.8)	18(28.1)	2(3.1)	64(100)
전 체	2(1.2)	16(9.9)	84(52.2)	53(32.9)	6(3.7)	161(100)

(3) 자금조달

전북 소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 분야의 애로강도를 파악해 보기 위한 조사결과, 86개 업체가 힘들다는 응답을 하였고, 62개 업체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19개 업체만이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주요 업종들을 살펴보면, 특히 도소매업과 섬유·의복·모피업체, 목재·종이·가구업체,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제품업체, 제1차 금속, 기타 제조업체들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3> 업종별 자금조달 애로강도

(단위 : 개, %)

업종분류	자금조달					전체
	아주 힘들	힘들	보통임	좋음	아주 좋음	
농림어업	1(100)	0(0.0)	0(0.0)	0(0.0)	0(0.0)	1(100)
전기·가스·수도업	0(0.0)	0(0.0)	0(0.0)	1(100)	0(0.0)	1(100)
건설업	1(20.0)	1(20.0)	2(40.0)	1(100)	0(0.0)	5(100)
도소매업	1(16.7)	3(50.0)	2(33.3)	0(0.0)	0(0.0)	6(100)
운수·보관업	0(0.0)	0(0.0)	1(100)	0(0.0)	0(0.0)	1(100)
통신·방송업	0(0.0)	1(33.3)	1(33.3)	1(33.3)	0(0.0)	3(100)
기타 서비스업	1(20.0)	1(20.0)	3(60.0)	0(0.0)	0(0.0)	5(100)
음식료업	1(25.0)	1(25.0)	1(25.0)	0(0.0)	1(25.0)	4(100)
섬유·의복·모피	0(0.0)	4(44.4)	3(33.3)	2(22.2)	0(0.0)	9(100)
목재·종이·가구	0(0.0)	4(50.0)	2(25.0)	1(12.5)	1(12.5)	8(100)
인쇄·출판	0(0.0)	1(100)	0(0.0)	0(0.0)	0(0.0)	1(100)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1(7.1)	6(42.9)	5(35.7)	2(14.3)	0(0.0)	14(100)
비금속광물제품	0(0.0)	5(62.5)	1(12.5)	2(25.0)	0(0.0)	8(100)
제1차 금속	0(0.0)	3(100)	0(0.0)	0(0.0)	0(0.0)	3(100)
조립금속·기계·수송용장비	4(17.4)	6(26.1)	10(43.5)	3(13.0)	0(0.0)	23(100)
전기·전자	2(25.0)	2(25.0)	4(50.0)	0(0.0)	0(0.0)	8(100)
기타 제조업	7(10.4)	29(43.3)	27(40.3)	4(6.0)	0(0.0)	67(100)
전체	19(11.4)	67(40.1)	62(37.1)	17(0.2)	2(1.2)	167(100)

(4) 업종별 판로개척(마케팅)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마케팅)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69개 업체가 힘들다는 응답을 하였고, 73개 업체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23개 업체는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주요 업종들을 살펴보면, 건설업,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업체, 비금속광물제품업체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4> 업종별 판로개척(마케팅)의 애로강도

(단위 : 개, %)

업종분류	판로개척				전체
	아주 힘들	힘들	보통임	좋음	
농림어업	0(0.0)	0(0.0)	0(0.0)	1(100)	1(100)
전기·가스·수도업	0(0.0)	0(0.0)	0(0.0)	1(100)	1(100)
건설업	1(16.7)	3(50.0)	2(13.3)	0(0.0)	6(100)
도소매업	1(16.7)	1(16.7)	2(33.3)	2(33.3)	6(100)
운수·보관업	0(0.0)	1(50.0)	1(50.0)	0(0.0)	2(100)
통신·방송업	0(0.0)	1(33.3)	2(66.7)	0(0.0)	3(100)
기타 서비스업	1(20.0)	1(20.0)	2(40.)	1(20.0)	5(100)
음식료업	0(0.0)	1(25.0)	3(75.0)	0(0.0)	4(100)
섬유·의복·모피	0(0.0)	1(11.1)	6(66.7)	2(22.2)	9(100)
목재·종이·가구	2(25.0)	3(37.5)	1(12.5)	2(25.0)	8(100)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1(7.7)	6(46.2)	3(23.1)	3(23.1)	13(100)
비금속광물제품	1(12.5)	5(62.5)	1(12.5)	1(12.5)	8(100)
제1차 금속	0(0.0)	1(33.3)	2(66.7)	0(0.0)	3(100)
조립금속·기계·수송용장비	2(8.7)	8(34.8)	12(52.2)	1(4.3)	23(100)
전기·전자	0(0.0)	3(37.5)	3(37.5)	2(25.0)	8(100)
기타 제조업	6(9.2)	19(29.2)	33(50.8)	7(10.8)	65(100)
전 체	15(9.1)	54(32.7)	73(44.2)	23(13.9)	165(100)

(5) 현지 생산인력 확보

중소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71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을 했고, 70개 업체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21개 업체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주요 업종들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면, 운수·보관업체, 통신·방송업체, 섬유·의복·모피업체,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업체, 조립금속·기계·수송용장비업체 등이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5> 업종별 현지 생산인력 확보 애로강도

(단위 : 개, %)

업종분류	현지생산인력확보					전체
	아주 힘들	힘들	보통임	좋음	아주 좋음	
농림어업	0(0.0)	0(0.0)	1(100)	0(0.0)	0(0.0)	1(100)
전기·가스·수도업	0(0.0)	0(0.0)	0(0.0)	1(100)	0(0.0)	1(100)
건설업	0(0.0)	0(0.0)	4(80.0)	1(20.0)	0(0.0)	5(100)
도소매업	0(0.0)	3(50.0)	2(33.3)	1(16.7)	0(0.0)	6(100)
운수·보관업	0(0.0)	2(100)	0(0.0)	0(0.0)	0(0.0)	2(100)
통신·방송업	0(0.0)	2(66.7)	1(33.3)	0(0.0)	0(0.0)	3(100)
기타 서비스업	0(0.0)	1(25.0)	2(50.0)	1(25.0)	0(0.0)	4(100)
음식료업	0(0.0)	1(25.0)	2(50.0)	1(25.0)	0(0.0)	4(100)
섬유·의복·모피	1(10.0)	8(80.0)	0(0.0)	1(10.0)	0(0.0)	10(100)
목재·종이·가구	0(0.0)	3(37.5)	3(37.5)	1(12.5)	1(12.5)	8(100)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1(7.7)	6(46.2)	5(38.5)	1(7.7)	0(0.0)	13(100)
비금속광물제품	0(0.0)	2(28.6)	1(14.3)	4(57.1)	0(0.0)	7(100)
제1차 금속	0(0.0)	1(33.3)	2(66.7)	0(0.0)	0(0.0)	3(100)
조립금속·기계·수송용장비	2(8.7)	12(52.2)	8(34.8)	1(4.3)	0(0.0)	23(100)
전기·전자	0(0.0)	2(25.0)	6(75.0)	0(0.0)	0(0.0)	8(100)
기타 제조업	3(4.7)	21(32.8)	33(51.6)	7(10.9)	0(0.0)	64(100)
전 체	7(4.3)	64(39.5)	70(43.2)	20(12.3)	1(0.6)	162(100)

5) 중소기업의 창업과 이전환경

(1) 입지유형별 환경

현재 이 지역에서 창업을 했거나 이전해 와 활동 중인 중소기업체들을 창업 또는 이전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119개 업체가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29개 업체는 관련기업들이 집적해서 입지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8개 업체는 공단의 인프라 구성에 의해 창업 또는 이전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입지유형별 특징적 동기를 살펴보면, 모든 입지에서 지역연고가 가장 큰 동기로 작용했고,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공단 인프라의 구성이 다른 입지에 비해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6> 입지유형별 창업 또는 이전 동기

(단위 : 개, %)

입지유형	지역 연고	관련기업 집적입지	교통과 물류 중심지	효율적 기업지원제도	안정적 노사관계	수도권 규제	공단인프라 조성	합계
개별입지	62(87.3)	5(7.0)	3(4.2)	0(0.0)	0(0.0)	0(0.0)	2(2.8)	72(100)
농공단지	24(77.4)	5(16.1)	1(3.2)	0(0.0)	1(3.2)	0(0.0)	1(3.2)	32(100)
국가산업단지	10(58.8)	5(29.4)	0(0.0)	1(5.9)	1(5.9)	1(5.9)	1(5.9)	19(100)
지방산업단지	23(52.3)	14(31.8)	3(6.8)	1(2.3)	0(0.0)	2(4.5)	4(9.1)	48(100)
합계	119(73.0)	29(17.8)	7(4.3)	2(1.2)	2(1.2)	3(1.8)	8(4.9)	163(100)

(2) 인력규모별 환경

노동인력 규모별로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이전 동기의 특징은 49인 이하의 상대적 소규모 기업의 경우 109개 업체가 지역연고가 주요 동기라고 대답했고, 24개 업체가 관련기업의 집적에 따라 창업 또는 이전했다고 대답한 반면, 50인 이상 상대적 대규모 기업들은 11개 업체가 지역연고에 의해 창업 또는 이전했고, 5개 업체가 관련기업의 집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II-27> 인력규모별 창업 또는 이전 동기

(단위 : 개, %)

인력규모	지역연고	관련기업의 집적입지	교통과 물류 중심지	효율적 기업지원제도	안정적 노사관계	수도권 규제	공단인프라 조성	합계
49인이하	109(76.8)	24(16.9)	4(2.8)	2(1.4)	1(0.7)	2(1.4)	6(4.2)	142(100)
50인이상	11(50.0)	5(22.7)	3(13.6)	0(0.0)	1(4.5)	1(4.5)	2(9.1)	22(100)
합계	120(73.2)	29(17.7)	7(4.3)	2(1.2)	2(1.2)	3(1.8)	8(4.9)	164(100)

6) 입지유형별 중소기업 입지도

(1) 주요 고객업체 및 판매시장과의 접근성

전북이 중소기업들이 주요 고객업체 및 판매시장에 접근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적합(보통):부적합의 비율이 66.6%:33.3%로 긍정적인 응답이 보다 많았다. 이 중 38개 업체가 접근성이 좋다고 답했고, 74개 업체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56개 업체는 접근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입지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한 반면,

개별입지와 농공단지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II-28> 주요 고객업체 및 판매시장과의 접근성

(단위 : 개, %)

입지유형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아주 적합	합계
개별입지	6(8.0)	19(25.3)	40(53.5)	9(12.0)	1(1.3)	75(100)
농공단지	4(12.1)	10(30.3)	12(36.4)	7(21.2)	0(0.0)	33(100)
국가산업단지	0(0.0)	4(23.5)	5(29.4)	7(41.2)	1(5.9)	17(100)
지방산업단지	1(2.3)	12(27.9)	17(39.5)	12(27.9)	1(2.3)	43(100)
합 계	11(6.5)	45(26.8)	74(44.0)	35(20.8)	3(1.8)	168(100)

(2) 원자재 및 부품공급 업체와의 근접성

전북이 중소기업들과 원자재 및 부품공급 업체와 접근하기에 적합한 입지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적합(보통):부적합의 비율이 63.3%:36.7%로 전북의 원자재 및 부품공급업체와의 근접성이 좋음을 알 수 있다. 입지유형별로는 개별입지와 농공단지가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표II-29>와 같다.

<표 II-29> 원자재 및 부품공급 업체와의 근접성

(단위 : 개, %)

입지유형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아주 적합	전체
개별입지	5(6.7)	20(26.7)	32(42.7)	15(20.0)	3(4.0)	75(100)
농공단지	2(6.1)	9(27.3)	15(45.5)	7(21.1)	0(0)	33(100)
국가산업단지	2(11.8)	6(35.3)	5(29.4)	4(23.5)	0(0)	17(100)
지방산업단지	4(9.1)	14(31.8)	20(45.5)	5(11.4)	1(2.3)	44(100)
전 체	13(7.7)	49(29.0)	72(42.6)	31(18.3)	4(2.4)	169(100)

(3) 연구기관, 대학 등과 원활한 협조체제

전북이 중소기업들과 지역내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입지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적합(보통):부적합의 비율이 59.0%:40.9%로 산학연의 원활한 협조체제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입지유형별로는 개별입지가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지방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30> 산학연 협조체제

(단위 : 개, %)

입지유형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아주 적합	합계
개별입지	8(12.1)	15(22.7)	37(56.1)	6(9.1)	0(0.0)	66(100)
농공단지	3(9.1)	10(30.3)	18(54.4)	2(6.1)	0(0.0)	33(100)
국가산업단지	0(0.0)	7(46.7)	4(26.7)	3(20.0)	1(6.7)	15(100)
지방산업단지	4(10.0)	16(40.0)	14(35.0)	6(15.0)	0(0.0)	40(100)
전 체	15(9.7)	48(31.2)	73(47.4)	17(11.0)	1(0.6)	154(100)

(4) 창업 또는 기술이전 교육기관

전북지역이 창업 또는 기술이전 교육기관과 원활한 교류를 하기에 적합한 입지인지를 묻는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적합(보통):부적합의 비율은 60.6%:39.4%로 전북은 중소기업 창업 또는 기술이전 교육기관과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입지임을 알 수 있다. 입지유형별로는 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개별입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표 II-31> 창업 또는 기술이전 교육기관

(단위 : 개, %)

입지유형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합계
개별입지	5(7.7)	24(36.9)	31(47.7)	5(7.7)	65(100)
농공단지	3(9.1)	9(27.3)	16(48.5)	5(15.2)	33(100)
국가산업단지	1(6.3)	5(31.3)	8(50.0)	2(12.5)	16(100)
지방산업단지	2(4.9)	12(29.3)	23(56.1)	4(9.8)	41(100)
전 체	11(7.1)	50(32.3)	78(50.3)	16(10.3)	155(100)

(5) 경영, 금융, 마케팅 등의 지원서비스

전북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영·금융·마케팅 등의 지원서비스를 수요하기에 적합한 입지인지를 묻는 질문에 적합(보통):부적합의 비율이 59.4%:40.6%로 전북의 입지가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입지유형별로는 농공단지가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국가산업단지와 개별입지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II-32> 경영·금융·마케팅 지원서비스

(단위 : 개, %)

입지유형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합계
개별입지	5(7.4)	25(36.8)	35(51.5)	3(4.4)	68(100)
농공단지	3(9.1)	8(24.2)	18(54.5)	4(21.1)	33(100)
국가산업단지	3(17.6)	6(35.3)	4(23.5)	4(23.5)	17(100)
지방산업단지	1(2.4)	14(33.3)	25(59.5)	2(4.8)	42(100)
전 체	12(7.5)	53(33.1)	82(51.3)	13(8.1)	160(100)

(6)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지역문화

전북이 중소기업의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지역문화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입지에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적합(보통):부적합의 비율이 66.2%:33.8%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입지유형별로는 농공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국가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II-33>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지역문화

(단위 : 개, %)

입지유형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아주 적합	합계
개별입지	4(6.0)	19(28.4)	40(59.7)	4(6.0)	0(0.0)	67(100)
농공단지	3(9.1)	7(21.2)	18(54.5)	5(15.2)	0(0.0)	33(100)
국가산업단지	1(6.3)	6(37.5)	7(43.8)	1(6.3)	1(6.3)	16(100)
지방산업단지	2(4.9)	11(26.8)	24(58.5)	4(9.8)	0(0.0)	41(100)
전 체	10(6.4)	43(27.4)	89(56.7)	14(8.9)	1(0.6)	157(100)

7) 인력규모별 중소기업 입지도

중소기업의 인력규모를 49인 이하 소기업과 50인 이상의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분야에 대한 입지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1) 주요 고객업체 및 판매시장과의 접근성

기업들이 주요 고객업체 및 판매시장과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중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보다 접근성이 좋음을 알 수 있다.

<표 II-34> 고객업체 및 판매시장과의 접근성

(단위 : 개, %)

인력규모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아주 적합	전체
49인 이하	9(6.2)	41(28.1)	64(43.8)	30(20.5)	2(1.4)	146(100)
50인 이상	2(8.7)	5(21.7)	10(43.5)	5(21.7)	1(4.3)	23(100)
전 체	11(6.5)	46(27.2)	74(43.8)	35(20.7)	3(1.8)	169(100)

(2) 원자재 및 부품공급 업체와의 근접성

원자재 및 부품공급 업체와의 근접성에 있어서도 중기업이 소기업 보다 입지적으로 우월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주 적합하다는 평가에 있어서는 중기업은 한 개의 업체도 응답하지 않은 데에 반해 소기업은 4개 업체가 응답한 점은 특이한 결과이다.

<표 II-35> 원자재 및 부품공급 업체와의 근접성

(단위 : 개, %)

인력규모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아주 적합	전체
49인 이하	11(7.5)	45(30.6)	60(40.8)	27(18.4)	4(2.7)	147(100)
50인 이상	2(8.7)	5(21.7)	12(52.2)	4(17.4)	0(0.0)	23(100)
전 체	13(7.6)	50(29.4)	72(42.4)	31(18.2)	4(2.4)	170(100)

(3) 창업 또는 기술이전 교육기관

창업 또는 기술이전 교육기관과의 원활한 교류에 있어서도 중기업이 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6> 창업 또는 기술이전 교육기관

(단위 : 개, %)

인력규모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전체
49인 이하	10(7.5)	46(34.3)	66(49.3)	12(9.0)	134(100)
50인 이상	1(4.5)	4(18.2)	13(59.1)	4(18.2)	22(100)
전 체	11(7.1)	50(32.1)	79(50.6)	16(10.3)	156(100)

(4) 경영, 금융, 마케팅 등의 지원서비스

경영·금융·마케팅 등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입지의 차이는 중기업이 소기업과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I-37> 경영, 금융, 마케팅 지원서비스

(단위 : 개, %)

인력규모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전체
49인 이하	12(8.6)	48(34.5)	71(51.1)	8(5.8)	139(100)
50인 이상	0(0.0)	5(22.7)	12(54.5)	5(22.7)	22(100)
전 체	12(7.5)	53(32.9)	83(51.6)	13(8.1)	161(100)

(5)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지역문화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지역문화에 대한 입지적 차이에 있어서도 중기업이 소기업에 비해 보다 적합한 입지라고 평가되었다.

<표 II-38>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지역문화

(단위 : 개, %)

인력규모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아주 적합	전체
49인 이하	9(6.6)	38(27.9)	78(57.4)	10(7.4)	1(0.7)	136(100)
50인 이상	1(4.5)	5(22.7)	12(54.5)	4(18.2)	0(0.0)	22(100)
전 체	10(6.3)	43(27.2)	90(57.0)	14(8.9)	1(0.6)	158(100)

(6) 연구기관, 대학 등과 원활한 협조체제

산학연의 원활한 협조체제에 있어 중기업과 소기업의 입지적 차이는 역시 중기업이 소기업에 비해 우월한 입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9> 연구기관·대학 등과 원활한 협조체제

(단위 : 개, %)

인력규모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아주 적합	전체
49인 이하	13(9.8)	42(31.6)	63(47.4)	15(11.3)	0(0.0)	133(100)
50인 이상	2(9.1)	6(27.3)	11(50.0)	2(9.1)	1(4.5)	22(100)
전 체	15(9.7)	48(31.0)	74(47.7)	17(11.0)	1(0.6)	155(100)

8) 산업규제

전북소재 중소기업들이 경영 및 생산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다음 분야에 대한 규제 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한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장(사업체)이전 규제

공장이나 사업체를 이전함에 있어서 느끼는 규제의 강도를 조사한 결과, 개별입지 의 업체들의 규제강도에 대한 약함(보통):강함의 응답비율은 85%:15%로 공장이나 사 업체 이전부문에 약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입지 유형에서도 도출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느끼는 입지유형은 국가산업단지로 조사되었다.

<표 II-40> 공장(사업체) 이전규제

(단위 : 개, %)

입지유형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전체
개별입지	1(1.5)	9(13.4)	47(70.1)	6(9.0)	4(6.0)	67(100)
농공단지	2(6.5)	4(12.9)	24(77.4)	1(3.2)	0(0.0)	31(100)
국가산업단지	0(0.0)	3(20.0)	10(66.7)	2(13.3)	0(0.0)	15(100)
지방산업단지	1(2.5)	7(17.5)	29(72.5)	3(7.5)	0(0.0)	40(100)
전 체	4(2.6)	23(15.0)	110(71.9)	12(7.8)	4(2.6)	153(100)

(2) 공장건축 부분규제

공장건축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입지의 경우 규제의 강도가 약함(보통):강함의 비율 이 69%:31%로 규제의 강도를 별로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 른 입지유형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를 심하게 느끼는 입지유형은 개별입지와 국가산업단지 내의 업체들임을 알 수 있다.

<표 II-41> 공장건축 부분규제

(단위 : 개, %)

입지유형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전체
개별입지	0(0.0)	11(15.5)	38(53.5)	17(23.9)	5(7.0)	71(100)
농공단지	1(3.1)	4(12.5)	21(65.6)	5(15.6)	1(3.1)	32(100)
국가산업단지	0(0.0)	0(0.0)	11(73.3)	4(26.7)	0(0.0)	15(100)
지방산업단지	1(2.4)	5(11.9)	35(83.3)	1(2.4)	0(0.0)	42(100)
전 체	2(1.3)	20(12.5)	105(65.6)	27(16.9)	6(3.8)	160(100)

(3) 공장입지 부분규제

중소기업체들이 공장입지 부분에서 느끼는 규제의 강도를 조사한 결과 약함(보통):강함의 비율은 개별입지 내에 업체들의 경우 80.6%:18.4%로 규제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입지유형들에서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장입지부분에 강한 규제를 느끼고 있는 입지유형은 개별입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 공장입지 부분규제

(단위 : 개, %)

입지유형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전체
개별입지	1(1.5)	12(17.9)	41(61.2)	10(14.9)	3(4.5)	67(100)
농공단지	1(3.1)	4(12.5)	24(75.0)	2(6.3)	1(3.1)	32(100)
국가산업단지	0(0.0)	2(13.3)	12(80.0)	1(6.7)	0(0.0)	15(100)
지방산업단지	1(2.4)	7(17.1)	29(70.7)	4(9.8)	0(0.0)	41(100)
전 체	3(1.9)	25(16.1)	106(68.4)	17(11.0)	4(2.6)	155(100)

(4) 노동부분 규제

중소기업체들이 노동부분에서 느끼는 규제의 정도를 알아보는 조사에서 약함(보통):강함의 비율은 85.5%:14.5%로 역시 규제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도는 입지유형 간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상대적으로 큰 강도를 느끼는 입지유형은 개별입지, 지방산업단지 내에 업체들임을 알 수 있다.

<표 II-43> 노동부분 규제

(단위 : 개, %)

입지유형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전체
개별입지	0(0.0)	14(20.3)	45(65.2)	10(14.5)	0(0.0)	69(100)
농공단지	1(3.1)	5(15.6)	24(75.0)	1(3.1)	1(3.1)	32(100)
국가산업단지	0(0.0)	3(20.0)	10(66.7)	1(6.7)	1(6.7)	15(100)
지방산업단지	1(2.3)	11(25.6)	26(60.5)	5(11.6)	0(0.0)	43(100)
전 체	2(1.3)	33(20.8)	105(66.0)	17(10.7)	2(1.3)	159(100)

(5) 창업부분규제

전북소재 중소기업들이 창업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규제의 강도를 조사한 결과, 개별입지내의 업체들 경우 약함(보통):강함의 비율은 88.9%:11.1%로 규제를 별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입지유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입지는 국가산업단지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I-44> 창업부분규제

(단위 : 개, %)

입지유형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전체
개별입지	1(1.4)	17(23.6)	46(63.9)	8(11.1)	72(100)
농공단지	1(3.2)	6(19.4)	24(77.4)	0(0.0)	31(100)
국가산업단지	0(0.0)	4(26.7)	9(60.0)	2(13.3)	15(100)
지방산업단지	1(2.4)	13(31.7)	23(56.1)	4(9.8)	41(100)
전 체	3(1.9)	40(25.2)	102(64.2)	14(8.8)	159(100)

(6) 환경부분규제

환경부분에서 중소기업체들이 느끼는 규제의 강도를 조사한 결과, 개별입지 내 업체들의 경우 약함(보통):강함의 비율이 71.8%:28.2%로 역시 규제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입지유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I-45> 환경부분규제

(단위 : 개, %)

입지유형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전체
개별입지	1(1.4)	9(12.7)	41(57.7)	16(22.5)	4(5.6)	71(100)
농공단지	1(3.1)	6(18.8)	18(56.3)	7(21.9)	0(0.0)	32(100)
국가산업단지	1(6.7)	3(20.0)	10(66.7)	0(0.0)	1(6.7)	15(100)
지방산업단지	0(0.0)	5(11.4)	30(68.2)	6(13.6)	3(6.8)	44(100)
전 체	3(1.9)	23(14.2)	99(61.1)	29(17.9)	8(4.9)	166(100)

9) 중소기업 경영실태

(1) 생산 실태

전국 기준의 업종별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실태를 보면, 전체 3,402,314백만원 중 화합물 및 화학제품 395,585백만원(11.6%), 기계 및 장비 374,035백만원(11.0%)으로 타 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재생용 가공 원료 10,186백만원(0.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4,945백만원(0.4%), 담배 15,836백만원(0.5%)으로 타산업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 기준의 업종별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실태를 보면, 전체 98,707백만원 중 화합물 및 음식료 제품 23,613백만원(23.9%), 화합물 및 화학제품 21,132백만원(21.4%)으로 타 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33백만원(0.1%), 가죽, 가방 및 신발 91백만원(0.1%)으로 타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대비 전북의 비중은 나무 및 목재업이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담배가 8.0%로 다음 순위로 나타나 비교적 타 산업에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46> 중소 제조업체 생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생산액				
	전국	비중	전북	비중	전북/전국
제조업	3,402,314	100	98,707	100	2.9
음식료품	321,215	9.4	23,613	23.9	7.4
담배	15,863	0.5	1,263	1.3	8.0
섬유제품	206,107	6.1	4,367	4.4	2.1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97,571	2.9	1,261	1.3	1.3
가죽·가방·신발	43,936	1.3	91	0.1	0.2
목재·나무제품	30,950	0.9	3,638	3.7	11.8
펄프·종이·종이제품	104,401	3.1	4,072	4.1	3.9
출판·인쇄·기록매체	82,671	2.4	541	0.5	0.7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14,945	0.4	33	0.1	0.2
화합물·화학제품	395,585	11.6	21,132	21.4	5.3
고무·플라스틱제품	214,874	6.3	3,411	3.5	1.6
비금속광물제품	176,273	5.2	10,093	10.2	5.7
제1차 금속 산업	229,789	6.8	3,390	3.4	1.5
조립금속제품	238,261	7.0	2,872	2.9	1.2
기타기계·장비	374,035	11.0	3,266	3.3	0.9
컴퓨터·사무용기기	42,773	1.3	208	0.2	0.5
기타전기기계·전기 변환 장치	190,166	5.6	2,122	2.2	1.1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229,031	6.7	2,220	2.2	1.0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51,048	1.5	213	0.2	0.4
자동차·트레일러	206,284	6.1	8,086	8.2	3.9
기타운송장비	37,337	1.1	224	0.2	0.6
가구·기타제품	89,006	2.6	2,472	2.5	2.8
재생용 가공 원료	10,186	0.3	120	0.1	1.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각 년도에서 재편·가공

(2) 출하액 현황

전국 기준의 업종별 중소 제조업체의 출하 액 실태를 보면, 전체 3,380,093 백만원 중 화합물 및 화학제품 394,079백만원(11.7%), 기계 및 장비 370,470백만원(11.0%)로 타 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재생용 가공 원료 111백만원(0.1%),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4,945백만원(0.4%), 담배 15,836백만원(0.5%)으로 타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 기준의 업종별 중소 제조업체의 출하액 실태를 보면, 전체 98,411백만원 중 음식료품 23,442백만원(23.8%), 화합물 및 화학제품 21,1241

백만원(21.5%)으로 타 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32백만원(0.1%), 가죽, 가방 및 신발 91백만원(0.1%), 재생용 가공원료 117백만원(0.1%)으로 타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대비 전북의 비중은 나무 및 목재업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담배 및 음식료품이 각각 7.9%, 7.3%로 비교적 타 산업에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47> 출하액 기준 중소 제조업체 실태(출하액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출하액				
	전국	비중	전북	비중	전북/전국
제조업	3,380,093	100	98,411	100	2.9
음식료품	319,650	9.5	23,442	23.8	7.3
담배	15,745	0.5	1,245	1.3	7.9
섬유제품	204,622	6.1	4,329	4.4	2.1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96,564	2.9	1,251	1.3	1.3
가죽·가방·신발	43,592	1.3	91	0.1	0.2
목재·나무제품	30,840	0.9	3,623	3.7	11.7
펄프·종이·종이제품	103,886	3.1	4,058	4.1	3.9
출판·인쇄·기록매체	82,377	2.4	541	0.5	0.7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14,934	0.4	32	0.0	0.2
화합물·화학제품	394,079	11.7	21,124	21.5	5.4
고무·플라스틱제품	213,338	6.3	3,389	3.4	1.6
비금속광물제품	175,275	5.2	10,204	10.4	5.8
제1차 금속 산업	228,401	6.8	3,398	3.5	1.5
조립금속제품	236,732	7.0	2,863	2.9	1.2
기타기계·장비	370,470	11.0	3,237	3.3	0.9
컴퓨터·사무용기기	42,430	1.3	208	0.2	0.5
기타 전기·기계·전기 변환 장치	188,932	5.6	2,133	2.2	1.1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226,952	6.7	2,159	2.2	1.0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50,455	1.5	184	0.2	0.4
자동차·트레일러	205,201	6.1	8,071	8.2	3.9
기타운송장비	37,205	1.1	232	0.2	0.6
가구·기타제품	88,245	2.6	2,482	2.5	2.8
재생용 가공 원료	10,163	0.3	117	0.1	1.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03.

(3) 부가가치 실태

전국 기준의 업종별 중소 제조업체의 부가가치 실태를 보면, 전체 1,342,562백만원 중 화합물 및 화학제품 165,512백만원(12.3%), 기계 및 장비 152,396백만원(11.4%)으로 나타나 타 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재생용 가공 원료 3,333백만원(0.1%)은 타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 기준의 업종별 중소 제조업체

의 출하액 실태를 보면, 전체 38,842백만원 중 음식료품 8,864백만원(22.8%), 화합물 및 화학제품 9,376백만원(24.1%)으로 타 업종과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9백만원(0.1%), 가죽, 가방 및 신발 43백만원(0.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35백만원(0.1%)으로 타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대비 전북의 비중은 나무 및 목재업이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비금속광물제품이 6.3%로 비교적 타 산업에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48> 중소제조업체 부가가치 실태

(단위: 백만원, %)

구분	부가가치				
	전국	비중	전북	비중	전북/전국
제조업	1,342,562	100	38,842	100	2.9
음식료품	124,222	9.3	8,864	22.8	7.1
담배	10,228	0.8	117	0.3	1.1
섬유제품	83,557	6.2	1,837	4.7	2.2
봉제의복·모피제품	45,668	3.4	748	1.9	1.6
가죽·가방·신발	15,774	1.2	43	0.1	0.3
목재·나무제품	11,487	0.9	1,293	3.3	11.3
펄프·종이·종이제품	39,202	2.9	1,392	3.6	3.6
출판·인쇄·기록매체	46,270	3.4	301	0.8	0.7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3,894	0.3	19	0.0	0.5
화합물·화학제품	165,512	12.3	9,376	24.1	5.7
고무·플라스틱제품	83,848	6.2	1,254	3.2	1.5
비금속광물제품	75,033	5.6	4,739	12.2	6.3
제1차 금속 산업	63,924	4.8	974	2.5	1.5
조립금속제품	99,550	7.4	1,206	3.1	1.2
기타기계·장비	152,396	11.4	1,337	3.4	0.9
컴퓨터·사무용기기	12,342	0.9	35	0.1	0.3
기타전기기계·전기 변환 장치	66,760	5.0	694	1.8	1.0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87,382	6.5	808	2.1	0.9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23,859	1.8	118	0.3	0.5
자동차·트레일러	75,544	5.6	2,663	6.9	3.5
기타운송장비	17,945	1.3	52	0.1	0.3
가구·기타제품	34,830	2.6	900	2.3	2.6
재생용 가공 원료	3,333	0.2	75	0.2	2.3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통계조사』 2003.

(4) 어음부도율 실태

전국의 중소제조업체의 어음 부도율은 1999년 0.33%를 기점으로 2000년 0.26%, 2001년 0.23%, 2002년 0.23%, 2003년 0.08%, 2004년 0.06%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전라북도의 실태를 보면, 1995년 0.83%, 1996년 0.67%, 1997년 0.72%, 1998년

0.81%, 1999년 0.24%로 나타났고, 2000년을 기점으로 0.24%로 급격히 감소하여 2004년 0.20%까지 하락 하였다.

<표 II -49> 중소 제조업체의 어음부도율 실태

(단위 : %)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5	0.17	0.12	0.47	0.58	0.84	0.85	0.92	-	0.85	0.93	1.03	0.75	0.83	1.01	0.79	0.67	0.93
1996	0.14	0.08	0.36	0.41	0.60	0.49	0.45	-	0.47	0.48	0.51	0.56	0.67	0.61	0.41	0.45	0.60
1997	0.40	0.36	0.66	0.47	0.73	0.64	0.59	-	0.73	0.46	0.81	0.68	0.72	0.53	0.71	0.77	0.74
1998	0.38	0.30	1.29	0.58	1.14	0.91	0.63	0.75	0.97	0.68	1.22	1.03	0.81	0.79	0.82	1.28	0.70
1999	0.33	0.34	0.28	0.18	0.43	0.18	0.13	0.15	0.18	0.27	0.21	0.27	0.24	0.23	0.22	0.18	0.18
2000	0.26	0.26	0.25	0.36	0.34	0.26	0.14	0.13	0.23	0.17	0.16	0.20	0.39	0.28	0.19	0.43	0.17
2001	0.23	0.23	0.24	0.26	0.24	0.27	0.16	0.16	0.16	0.14	0.15	0.28	0.24	0.16	0.20	0.17	0.30
2002	0.23	0.23	0.24	0.26	0.24	0.27	0.16	0.16	0.16	0.14	0.15	0.28	0.24	0.16	0.20	0.17	0.30
2003	0.08	0.06	0.22	0.25	0.16	0.17	0.09	0.10	0.17	0.10	0.09	0.10	0.16	0.18	0.13	0.18	0.17
2004	0.06	0.04	0.19	0.20	0.16	0.20	0.07	0.09	0.12	0.09	0.14	0.09	0.20	0.15	0.10	0.14	0.17

주 : '97. 12월 부터는 경남과 울산광역시를 분리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 (매월).

(5) 부도업체 수 실태

중소 제조업체 부도실태를 보면, 1995년 13,992개 업체를 기준으로 1999년도 6,718개 업체로 급격히 감소하여 2004년 말 4,445개 업체로 감소하였다. 전라북도의 실태를 보면, 1995년도 494개 업체로 나타났고, 1999년도 279개 업체를 기점으로 2004년도에는 205개 업체로 전년 대비 29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표 II -50> 중소제조업체의 부도업체 수 실태

(단위 : 개)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5	13,992	5,687	1,387	1,214	533	472	440	-	1,180	316	244	249	494	382	397	787	210
1996	11,589	4,586	1,223	988	426	358	329	-	1,054	247	212	244	430	301	296	721	174
1997	17,168	6,686	1,926	1,537	709	494	456	-	1,604	301	290	300	570	358	513	1,180	244
1998	22,828	8,108	2,554	1,878	958	710	570	445	2,231	537	485	463	831	630	694	1,415	319
1999	6,718	2,559	622	520	243	223	169	104	645	168	135	133	279	195	230	378	115
2000	6,693	2,555	595	471	289	257	179	132	634	136	124	138	254	211	221	378	119
2001	5,277	1,997	512	395	223	196	121	93	546	114	95	106	207	140	145	267	120
2002	4,244	1,623	423	284	177	174	105	66	479	80	83	92	138	136	113	194	77
2003	5,308	2,031	543	404	225	216	134	91	532	84	96	83	176	136	133	324	100
2004	4,445	1,625	461	322	178	177	111	79	439	87	79	70	205	127	138	258	89

주 : '97. 12월부터는 경남과 울산광역시를 분리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 (매월).

(6) 수출실태

전국규모의 중소기업체의 수출실태는 2003년 81,698,654천달러, 2004년 90,384,864천달러로 2003년 42.2%, 2004년 35.6%로 6.6%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중소기업체의 수출입 실태를 보면, 2003년도 1,843,406천달러, 2004년 1,442,122천달러로 2003년 64.3%, 2004년 34.1%로 2003년과 비교하여 2004년이 30.2%로 감소하였다.

<표 II -51> 중소기업체의 수출실태

(단위 : 천달러, %)

구분	중 소 기 업			총 수 출				
	2003		2004	증감률	2003	2004	증감률	
합 계	81,698,654	(42.2)	90,384,864	(35.6)	10.6	193,817,443	253,844,671	31.0
서 울	20,216,757	(72.8)	21,185,626	(70.8)	4.8	27,769,875	29,923,964	7.8
부 산	3,678,208	(75.9)	4,579,526	(71.2)	24.5	4,844,489	6,433,917	32.8
대 구	2,261,038	(81.9)	2,683,932	(85.1)	18.7	2,759,499	3,155,022	14.3
인 천	5,966,419	(72.6)	5,399,459	(50.7)	-9.5	8,221,311	10,645,014	29.5
광 주	2,309,362	(57.2)	2,629,184	(49.7)	13.8	4,034,833	5,287,582	31.0
대 전	522,017	(39.2)	681,333	(37.1)	30.5	1,330,358	1,837,757	38.1
울 산	4,100,691	(14.9)	5,460,130	(14.6)	33.2	27,484,944	37,470,080	36.3
경 기	19,338,730	(53.4)	22,361,634	(48.1)	15.6	36,227,558	46,465,694	28.3
강 원	401,026	(84.9)	501,186	(78.1)	25.0	472,396	641,502	35.8
충 북	1,801,180	(38.1)	4,441,022	(58.9)	146.6	4,731,867	7,545,723	59.5
충 남	2,595,221	(13.1)	3,036,170	(10.4)	17.0	19,806,013	29,271,550	47.8
전 북	1,843,406	(64.3)	1,442,122	(34.1)	-21.8	2,866,130	4,224,538	47.4
전 남	3,637,319	(40.9)	3,390,357	(26.9)	-6.8	8,883,563	12,608,643	41.9
경 북	6,708,517	(26.7)	6,226,556	(18.3)	-7.2	25,088,458	33,951,242	35.3
경 남	6,264,795	(32.6)	6,300,278	(25.9)	0.6	19,236,299	24,292,390	26.3
제 주	53,583	(91.5)	62,674	(89.9)	17.0	58,578	69,719	19.0
기 타	383	(30.2)	3,677	(18.1)	860.1	1,270	20,334	1501.1

주 : 1.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2. ()안은 총수출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임.

3. 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실태

1)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

전북 소재 중소기업체들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1) 입지유형별 협력관계

전북 소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어느 정도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입지유형별 관계유무를 분석한 결과, 개별입지 내에 중소기업체 중 응답한 31개 중 가장 큰 비율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21개 업체(67.7%)가 응답한 판매(수출)마케팅 협력분야이고,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20개 업체(64.5%)가 응답한 원자재 수급분야였으며, 세 번째로는 각각 17개 업체(54.8%)가 응답한 기술개발협력과 제품설계 제공 또는 공동개발 분야였다. 농공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내에 업체들의 경우 원자재 수급분야에 가장 많은 업체들이 응답했다. 이외 조사결과는 다음 <표 II-52>와 같다.

<표 II-52> 주요협력분야별 관계유무(입지유형별)

(단위 : 천달러,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업체수	열 %	응답업체수	열 %	응답업체수	열 %	응답업체수	열 %	응답업체수	열 %
경영참여	12	38.7	10	62.5	2	25.0	12	37.5	36	41.4
기술개발협력	17	54.8	11	68.8	4	50.0	18	56.3	50	57.5
기술이전	15	48.4	10	62.5	3	37.5	15	46.9	43	49.4
사업이양	13	41.9	11	68.8	2	25.0	10	31.3	36	41.4
설비대여	13	41.9	11	68.8	3	37.5	16	50.0	43	49.4
원자재수급	20	64.5	14	87.5	6	75.0	23	71.9	63	72.4
인력파견 및 교류	13	41.9	11	68.8	3	37.5	11	34.4	38	43.7
자본참여	12	38.7	10	62.5	2	25.0	7	21.9	31	35.6
제품설계 제공 또는 공동개발	17	54.8	12	75.0	4	50.0	20	62.5	53	60.9
판매(수출)마케팅 협력	21	67.7	12	75.0	4	50.0	12	37.5	49	56.3
합 계	31	100	16	100	8	100	32	100	87	100

(2) 인력규모별 협력관계

49인 이하 인력규모의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많은 업체가 응답한 협력분야는 50개 업체(69.4%)가 응답한 원자재 수급분야이고, 50인 이상 중기업의 경우 가장 많은 업체가 응답한 협력분야 역시 원자재 수급분야로 이 분야에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한 분야는 43

개 업체(59.7%)가 응답한 제품설계 제공 또는 공동개발 분야이고, 중기업이 두 번 째로 많은 응답을 한 분야는 10개 업체(66.7%)가 동일하게 응답한 설비대여와 제품설계 제공 또는 공동개발 분야였다. 이외 분석결과는 다음<표 II-53>과 같다.

<표 II-53> 주요협력분야별 관계유무(인력규모별)

(단위 : 개, %)

구 분	49인 이하		50인 이상		합계	
	응답 업체 수	열 %	응답 업체 수	열 %	응답 업체 수	열 %
경영참여	31	43.1	5	33.3	36	41.4
기술개발협력	41	56.9	9	60.0	50	57.5
기술이전	35	48.6	8	53.3	43	49.4
사업이양	32	44.4	4	26.7	36	41.4
설비대여	33	45.8	10	66.7	43	49.4
원자재수급	50	69.4	13	86.7	63	72.4
인력파견 및 교류	34	47.2	4	26.7	38	43.7
자본참여	27	37.5	4	26.7	31	35.6
제품설계 제공 또는 공동개발	43	59.7	10	66.7	53	60.9
판매(수출)마케팅 협력	41	56.9	8	53.3	49	56.3
합 계	72	100	15	100	87	100

2) 대기업과 분야별 협력도

(1) 경영참여 정도

전북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대기업과 경영참여 부분에 어느 정도 협력관계에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개별입지의 경우 약함:강함(보통)의 비율이 66.6%:33.4%로 이 분야에선 미약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국가산업단지과 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분석되어지는 반면, 농공단지 내에 업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II-54> 경영참여 정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전체
개별입지	4(33.3)	4(33.3)	4(33.3)	0(0.0)	12(100)
농공단지	2(22.2)	3(33.3)	3(33.3)	1(11.1)	9(100)
국가산업단지	0(0.0)	0(0.0)	2(100)	0(0.0)	2(100)
지방산업단지	3(27.3)	6(54.5)	2(18.2)	0(0.0)	11(100)
전 체	9(26.5)	13(38.2)	11(32.4)	1(2.9)	34(100)

(2) 기술개발협력 정도

기술개발 분야에 있어 협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는 개별입지 내에 업체들의 경우 약함:강함(보통)의 비율이 52.9%:47.1%로 기술개발 분야의 협력도가 다소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농공단지의 상황도 개별입지 내의 업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반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내에 업체들은 대기업과의 기술개발 협력의 정도가 강하다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표 II-55> 기술개발협력 정도(입지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전체
개별입지	6(35.3)	3(17.6)	7(41.2)	1(5.9)	0(0.0)	17(100)
농공단지	3(27.3)	2(18.2)	5(45.5)	1(9.1)	0(0.0)	11(100)
국가산업단지	0(0.0)	1(25.0)	1(25.0)	1(25.0)	1(25.0)	4(100)
지방산업단지	3(17.6)	0(0.0)	10(58.8)	4(23.5)	0(0.0)	17(100)
전 체	12(24.5)	6(12.2)	23(46.9)	7(14.3)	1(2.0)	49(100)

(3) 기술이전 정도

협력분야 중 기술이전에 있어서는 개별입지의 경우 약함:강함(보통)의 비율이 53.3%:46.7%로 이 지역 내 업체들의 기술이전 협력정도가 미약함을 알 수 있고, 농공단지 내 업체의 경우도 역시 약함:보통의 비율이 50%:50%로 유사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도 개별입지나 농공단지와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지방산업단지 내에 업체들만은 약함:강함(보통)의 비율이 35.7%:64.3%로 상대적으로 기술이전 분야에 있어 강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56> 기술이전 정도(입지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전체
개별입지	5(33.3)	3(20.0)	7(46.7)	0(0.0)	0(0.0)	15(100)
농공단지	3(30.0)	2(20.0)	5(50.0)	0(0.0)	0(0.0)	10(100)
국가산업단지	1(33.3)	1(33.3)	0(0.0)	0(0.0)	1(33.3)	3(100)
지방산업단지	3(21.4)	2(14.3)	8(57.1)	1(7.1)	0(0.0)	14(100)
전 체	12(28.6)	8(19.0)	20(47.6)	1(2.4)	1(2.4)	42(100)

(4) 사업이양 정도

대기업과의 협력 분야 중 사업이양의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개별입지의 경우 약함:강함(보통)의 비율이 69.2%:30.8%로 사업이양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공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내에 업체들은 개별입지와 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어진 것에 반해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그 비율이 33.3%:66.7%로 사업이양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 -57> 사업이양 정도(입지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전체
개별입지	4(30.8)	5(38.5)	4(30.8)	0(0.0)	13(100)
농공단지	4(36.4)	5(45.5)	1(9.1)	1(9.1)	11(100)
국가산업단지	1(50.0)	1(50.0)	0(0.0)	0(0.0)	2(100)
지방산업단지	2(22.2)	1(11.1)	5(55.6)	1(11.1)	9(100)
전 체	11(31.4)	12(34.3)	10(28.6)	2(5.7)	35(100)

(5) 설비대여

대기업과의 협력분야 중 설비대여 분야에 있어서 개별입지 내에 업체들은 약함:강함(보통)의 비율이 61.6%:38.5%로 협력관계가 미약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관계 정도는 농공단지의 경우도 비슷하였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내에 업체들은 설비대여 부분에 있어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II -58> 설비대여(입지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전체
개별입지	4(30.8)	4(30.8)	5(38.5)	0(0.0)	0(0.0)	13(100)
농공단지	4(36.4)	3(27.3)	3(27.3)	1(9.1)	0(0.0)	11(100)
국가산업단지	1(33.3)	0(0.0)	1(33.3)	0(0.0)	1(33.3)	3(100)
지방산업단지	2(13.3)	2(13.3)	7(46.7)	4(26.7)	0(0.0)	15(100)
전 체	11(26.2)	9(21.4)	16(38.1)	5(11.9)	1(2.4)	42(100)

(6) 원자재 수급 정도

대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원자재 수급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개별입지의 경우 약함:

강함(보통)의 비율이 75%:25%로 원자재 수급에 있어 협력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입지를 제외하고는 농공단지나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들은 대기업과 원자재 수급분야에서 협력의 정도가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59> 원자재 수급 정도(입지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전체
개별입지	4(20.0)	4(20.0)	7(35.0)	4(20.0)	1(5.0)	20(100)
농공단지	1(7.1)	4(28.6)	7(50.0)	1(7.1)	1(7.1)	14(100)
국가산업단지	1(16.7)	1(16.7)	0(0.0)	3(50.0)	1(16.7)	6(100)
지방산업단지	2(8.7)	2(8.7)	14(60.9)	4(17.4)	1(4.3)	23(100)
전 체	8(12.7)	11(17.5)	28(44.4)	12(19.0)	4(6.3)	63(100)

(7) 인력파견 및 교류 정도

대기업과 인력파견 및 교류에 있어 어느 정도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개별입지 내에 업체들은 약함:강함(보통)의 응답비율이 38.4%:61.6%로 인력 파견 및 교류가 강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농공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내에 업체들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가 조사되어 인력파견 및 교류가 약하다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표 II-60> 인력파견 및 교류 정도(입지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전체
개별입지	3(23.1)	2(15.4)	6(46.2)	2(15.4)	13(100)
농공단지	2(18.2)	8(72.7)	1(9.1)	0(0.0)	11(100)
국가산업단지	1(33.3)	1(33.3)	1(33.3)	0(0.0)	3(100)
지방산업단지	1(10.0)	6(60.0)	2(20.0)	1(10.0)	10(100)
전 체	7(18.9)	17(45.9)	10(27.0)	3(8.1)	37(100)

(8) 자본참여 정도

대기업의 자본참여 정도를 파악하고자 조사한 결과, 개별입지의 경우 약함:보통의 비율이 75%:25%로 자본참여가 미약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농공단지, 국가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내에 업체들에서 유사하게 응답을 구할 수 있었다.

<표 II -61> 자본참여 정도(입지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약함	약함	보통	전체
개별입지	4(33.3)	5(41.7)	3(25.0)	12(100)
농공단지	3(33.3)	6(66.7)	0(0.0)	9(100)
국가산업단지	0(0.0)	1(50.0)	1(50.0)	2(100)
지방산업단지	1(16.7)	5(83.3)	0(0.0)	6(100)
전 체	8(27.6)	17(58.6)	4(13.8)	29(100)

(9) 제품설계 제공 또는 공동개발 정도

대기업과의 협력 분야 중 제품설계 제공 또는 공동개발의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개별입지 내에 업체들의 경우 약함:강함(보통)의 비율이 29.4%:70.6%로 강한 협력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내에 업체들과 역시 제품설계 제공 또는 공동개발에 강한 협력관계를 대기업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농공단지 내에 업체들은 이러한 관계가 미약하였다.

<표 II -62> 제품설계 제공 또는 공동개발 정도(입지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전체
개별입지	2(11.8)	3(17.6)	8(47.1)	3(17.6)	1(5.9)	17(100)
농공단지	2(16.7)	5(41.7)	4(33.3)	1(8.3)	0(0.0)	12(100)
국가산업단지	1(25.0)	0(0.0)	1(25.0)	0(0.0)	2(50.0)	4(100)
지방산업단지	0(0.0)	4(21.1)	7(36.8)	7(36.8)	1(5.3)	19(100)
전 체	5(9.6)	12(23.1)	20(38.5)	11(21.2)	4(7.7)	52(100)

(10) 판매(수출)마케팅 협력 정도

전북 소재 중소기업체들과 대기업 사이에 판매(수출)마케팅 분야에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결과, 개별입지 내에 위치한 업체들의 약함:강함(보통)의 응답비율은 42.8%:57.2%로 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내에 업체들에서 유사하게 얻을 수 있었으나 농공단지 내에 업체들은 이 분야의 협력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 -63> 판매(수출)마케팅 협력 정도(입지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아주 강함	전체
개별입지	4(19.0)	5(23.8)	6(28.6)	4(19.0)	2(9.5)	21(100)
농공단지	2(16.7)	5(41.7)	5(41.7)	0(0.0)	0(0.0)	12(100)
국가산업단지	1(25.0)	0(0.0)	1(25.0)	2(50.0)	0(0.0)	4(100)
지방산업단지	1(9.1)	2(18.2)	5(45.5)	3(27.3)	0(0.0)	11(100)
전 체	8(16.7)	12(25.0)	17(35.4)	9(18.8)	2(4.2)	48(100)

(11) 입지유형별 협력편익

중복응답을 허용한 조사에서 개별입지의 전복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협력 속에서 얻는 가장 큰 편익을 수주안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점은 다른 입지유형 내에 업체들도 동일했다. 개별입지 내의 중소기업체들이 응답한 두 번째 편익은 판로확보 및 개척이었고, 세 번째 편익은 자금난 완화였는데 이러한 응답 순은 농공단지와 동일하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업체가 편익으로 응답한 것은 원·부자재 확보의 용이성이며, 세 번째로 많은 업체가 편익으로 응답한 것은 자금난 완화였다.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업체가 응답한 것이 동일하게 자금난 완화와 판로확보 및 개척으로 조사되었다.

<표 II -64> 대기업과의 협력편익(입지유형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업체수	열 %	응답업체수	열 %	응답업체수	열 %	응답업체수	열 %	응답업체수	열 %
기술고도화 전문화	15	30.6	5	18.5	1	10.0	6	17.6	27	22.5
수주안정	35	71.4	15	55.6	9	90.0	25	73.5	84	70.0
기술정보 및 해외정보 획득 용이	7	14.3	4	14.8	1	10.0	3	8.8	15	12.5
원부자재 확보의 용이	11	22.4	12	44.4	6	60.0	13	38.2	42	35.0
자금난 완화	24	49.0	12	44.4	5	50.0	14	41.2	55	45.8
인재파견을 통한 기술이전 효과	5	10.2	3	11.1	2	20.0	2	5.9	12	10.0
판로확보 및 개척	32	65.3	14	51.9	2	20.0	14	41.2	62	51.7
경영개선	7	14.3	5	18.5	1	10.0	7	20.6	20	16.7
기타	1	2.0	0	0.0	0	0.0	4	11.8	5	4.2
합 계	49	100	27	100	10	100	34	100	120	100

3) 중소기업의 산·학·연 기술협력 취약사유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산·학·연 기술협력의 취약점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업종의 중소기업체가 겪고 있는 산·학·연 기술협력의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전기·전자업체의 경우 상호신뢰구축의 미흡과 협력파트너의 역량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조립금속·기계·수송용 장비업체와 건설업은 앞의 두 가지 이유외에 협력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과 협력촉진을 위한 법적 장치가 취약한 점이 문제시되었다. 섬유·의복·모피업체의 경우 상호신뢰 구축의 미흡과 협력촉진을 위한 법적 장치가 취약함에 비중이 있었고, 응답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제조업체들의 경우 상호신뢰 구축 미흡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으며, 협력파트너의 역량 부족을 두 번째로 인식하고 있다.

<표 II -65> 업종별 취약사유

(단위 : 개, %)

구 분	상호신뢰 구축미흡	인센티브 부족	협력촉진을 위한 법적 장치 취약	협력파트너 역량부족	기타	합계
농림어업	0(0.0)	0(0.0)	0(0.0)	0(0.0)	1(100)	1(100)
전기·가스·수도업	0(0.0)	1(100)	0(0.0)	0(0.0)	0(0.0)	1(0)
건설업	4(57.1)	0(0.0)	1(14.3)	3(42.9)	0(0.0)	7(100)
도소매업	3(50.0)	2(33.3)	0(0.0)	2(33.3)	0(0.0)	6(100)
운수·보관업	1(50.0)	0(0.0)	0(0.0)	0(0.0)	1(50.0)	2(100)
통신·방송업	1(33.3)	1(33.3)	0(0.0)	1(33.3)	1(33.3)	3(100)
교육·보건	0(0.0)	0(0.0)	0(0.0)	0(0.0)	1(100)	1(100)
기타 서비스업	1(16.7)	2(33.3)	0(0.0)	3(50.0)	1(16.7)	6(100)
음식료업	2(66.7)	0(0.0)	0(0.0)	0(0.0)	1(33.3)	3(100)
섬유·의복·모피	4(40.0)	1(10.0)	4(40.0)	3(30.0)	0(0.0)	10(100)
목재·종이·가구	4(66.7)	2(33.3)	2(33.3)	2(33.3)	0(0.0)	6(100)
인쇄·출판	1(100)	0(0.0)	0(0.0)	0(0.0)	0(0.0)	1(100)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4(30.8)	1(7.7)	3(23.1)	7(53.8)	2(15.4)	13(100)
비금속광물제품	2(25)	1(12.5)	3(37.5)	3(37.5)	3(37.5)	8(100)
제1차 금속	1(33.3)	0(0.0)	1(33.3)	1(33.3)	1(33.3)	3(100)
조립금속·기계·수송용장비	13(61.9)	7(33.3)	6(28.6)	10(47.6)	0(0.0)	21(100)
전기·전자	3(37.5)	2(25.0)	1(12.5)	3(37.5)	1(12.5)	8(100)
기타 제조업	26(41.9)	13(21.0)	14(22.6)	18(29.0)	8(12.9)	62(100)
합 계	70(43.2)	33(20.4)	35(21.6)	56(34.6)	21(13.0)	162(100)

제 3 절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 평가

1.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

1) 개괄적 평가

(1) 타시도 대비 전북의 지원제도 및 정책 평가

조사대상 업체들에게 전북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정책들이 타도시에 비해 어떠한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입지유형별로 응답을 분석해보면, 개별입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체들은 열악:우수(비슷)의 비율이 64.2%:35.8%로 전북이 열악한 실태라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농공단지내에 기업들은 47.1%:52.9%로 상대적으로 전북의 지원제도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II -66> 타시도 대비 전북의 지원제도 및 정책 평가

(단위 : 개, %)

구 분	매우열악	열악	비슷	우수	매우우수	전체
개별입지	6(7.4)	46(56.8)	26(32.1)	2(2.5)	1(1.2)	81(100)
농공단지	7(20.6)	9(26.5)	15(44.1)	3(8.8)	0(0)	34(100)
국가산업단지	2(12.5)	9(56.3)	3(18.8)	2(12.5)	0(0)	16(100)
지방산업단지	3(6.5)	21(45.7)	20(43.5)	0(0)	2(4.3)	46(100)
전 체	18(10.2)	85(48.0)	64(36.2)	7(4.0)	3(1.7)	177(100)

(2) 기업지원제도와 정책 활용 미흡 사유

전북 소재 중소기업들이 기업지원제도와 정책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왜 그러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개별입지에 위치한 업체들의 가장 빈번한 사유는 50개 업체(64.9%)가 응답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이였고, 다음으로 46개 업체(59.7%)가 응답한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39개 업체(50.6%)가 응답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었다.

농공단지내에 입지한 업체들의 가장 큰 사유는 22개 업체(66.7%)가 응답한 지원절차

가 복잡하고 까다로움이고, 다음으로 19개 업체(57.6%)가 응답한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세 번째로는 15개 업체(45.5%)가 응답한 지원신청 후 실제 지원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답하였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지한 업체들의 경우는 가장 큰 사유는 10개 업체(62.5%)가 응답한 지원신청 후 실제 지원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9개 업체(56.3%)가 응답한 사유는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이며, 세 번째 사유는 8개 업체(50.0%)가 응답한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산업단지에 입지한 업체들의 가장 큰 사유는 37개 업체(82.2%)가 응답한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27개 업체(60.0%)가 응답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이었으며, 세 번째 사유로는 23개 업체(51.1%)가 응답한 지원금액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지원제도와 정책을 활용함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 -67> 지원제도와 정책 활용 미흡 사유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행 %	응답 업체수	행 %	응답 업체수	행 %	응답 업체수	행 %	응답 업체수	행 %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46	59.7	19	57.6	8	50.0	37	82.2	110	64.3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50	64.9	22	66.7	9	56.3	27	60.0	108	63.2
지원금액 규모가 너무 작음	39	50.6	14	42.4	6	37.5	23	51.1	82	48.0
지원신청후 실제 지원까지 장시간소요	32	41.6	15	45.5	10	62.5	21	46.7	78	45.6
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않됨	17	22.1	6	18.2	4	25.0	9	20.0	36	21.1
기타	9	11.7	1	3.0	0	0	5	11.1	15	8.8
합 계	77	100	33	100	16	100	45	100	171	100

2)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요구 사항

현재 진행중인 12개 분야 117개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들에 관하여 주요한 개선안들에 대한 요구도와 공감대를 조사해보기 위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해 보았다.

(1) 금융 및 보증지원 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

우선 금융 및 보증지원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해야 할지에 대한 조사에서 입지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를 필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 -68> 금융 및 보증지원 시 우대 확대 요구도

구 분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아주 필요함	전체
개별입지	1(1.3)	2(2.6)	40(51.9)	34(44.2)	77(100)
농공단지	0(0.0)	6(18.2)	16(48.5)	11(33.3)	33(100)
국가산업단지	0(0.0)	2(12.5)	7(43.8)	7(43.8)	16(100)
지방산업단지	2(4.4)	0(0.0)	28(62.2)	15(33.3)	45(100)
전 체	3(1.8)	10(5.8)	91(53.2)	67(39.2)	171(100)

(2)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요구도 역시 입지유형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중소기업체들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표 II -69>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요구도

(단위 : 개, %)

구 분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아주 필요함	전체
개별입지	1(1.3)	1(1.3)	9(11.4)	37(46.8)	31(39.2)	79(100)
농공단지	0(0.0)	0(0.0)	4(12.1)	19(57.6)	10(30.3)	33(100)
국가산업단지	0(0.0)	0(0.0)	1(6.7)	9(60.0)	5(33.3)	15(100)
지방산업단지	2(4.9)	0(0.0)	2(4.9)	27(65.9)	10(24.4)	41(100)
전 체	3(1.8)	1(0.6)	16(9.5)	92(54.8)	56(33.3)	168(100)

(3)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산·학·연의 협조체제 지원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북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산·학·연의 협조체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결과 입지유형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중소기업체들이 강하게 필요함을 답하였다.

<표 II -70> 산·학·연의 협조체제 지원 요구도

(단위 : 개, %)

구 분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아주 필요함	전체
개별입지	2(2.7)	5(6.8)	11(15.1)	39(53.4)	16(21.9)	73(100)
농공단지	1(3.0)	1(3.0)	6(18.2)	16(48.5)	9(27.3)	33(100)
국가산업단지	0(0.0)	1(6.7)	3(20.0)	6(40.0)	5(33.3)	15(100)
지방산업단지	1(2.4)	0(0.0)	13(31.7)	24(58.5)	3(7.3)	41(100)
전 체	4(2.5)	7(4.3)	33(20.4)	85(52.5)	33(20.4)	162(100)

(4)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전북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함에 입지유형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

<표 II-71>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요구도

(단위 : 개, %)

구 분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아주 필요함	전체
개별입지	2(2.8)	5(7.0)	14(19.7)	30(42.3)	20(28.2)	7 (100)
농공단지	0(0.0)	1(3.1)	10(31.3)	15(46.9)	6(18.8)	32(100)
국가산업단지	0(0.0)	1(6.3)	4(25.0)	4(25.0)	7(43.8)	16(100)
지방산업단지	1(2.6)	2(5.1)	9(23.1)	24(61.5)	3(7.7)	39(100)
전 체	3(1.9)	9(5.7)	37(23.4)	73(46.2)	36(22.8)	158(100)

(5) 지원내용 강화 활용도 제고

전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그 내용의 강화를 통해 제공되는 제도와 정책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입지유형에 관계없이 대다수 업체들이 역시 공감하며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II-72> 지원내용 강화 활용도 제고 요구도

(단위 : 개, %)

구 분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아주 필요함	전체
개별입지	0(0.0)	4(5.7)	18(25.7)	32(45.7)	16(22.9)	70(100)
농공단지	0(0.0)	1(3.0)	14(42.4)	13(39.4)	5(15.2)	33(100)
국가산업단지	1(6.7)	0(0.0)	3(20.0)	6(40.0)	5(33.3)	15(100)
지방산업단지	1(2.4)	0(0.0)	12(29.3)	25(61.0)	3(7.3)	41(100)
전 체	2(1.3)	5(3.1)	47(29.6)	76(47.8)	29(18.2)	159(100)

(6) 지원대상 범위 확대

전북 중소기업들을 지원함에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입지유형에 관계없이 역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II-73> 지원대상 범위 확대 요구도

(단위 : 개, %)

구분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아주 필요함	전체
개별입지	0(0.0)	3(4.0)	14(18.7)	36(48.0)	22(29.3)	75(100)
농공단지	0(0.0)	0(0.0)	12(36.4)	14(42.4)	7(21.2)	33(100)
국가산업단지	0(0.0)	1(6.7)	2(13.3)	8(53.3)	4(26.7)	15(100)
지방산업단지	1(2.4)	0(0.0)	7(17.1)	26(63.4)	7(17.1)	41(100)
전체	1(0.6)	4(2.4)	35(21.3)	84(51.2)	40(24.4)	164(100)

(7) 지원요건의 완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요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도 입지유형에 관계없이 대다수 업체들이 필요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표 II-74> 지원요건 완화 요구도

(단위 : 개, %)

구분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아주 필요함	전체
개별입지	0(0.0)	3(4.1)	10(13.5)	43(58.1)	18(24.3)	74(100)
농공단지	0(0.0)	1(3.0)	8(24.2)	15(45.5)	9(27.3)	33(100)
국가산업단지	0(0.0)	0(0.0)	2(12.5)	9(56.3)	5(31.3)	16(100)
지방산업단지	2(4.9)	0(0.0)	9(22.0)	21(51.2)	9(22.0)	41(100)
전체	2(1.2)	4(2.4)	29(17.7)	88(53.7)	41(25.0)	164(100)

(8) 지원제도 홍보 및 교육강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와 정책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II-75> 지원제도 홍보 및 교육강화 요구도

(단위 : 개, %)

구분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아주 필요함	전체
개별입지	0(0.0)	5(6.9)	14(19.4)	32(44.4)	21(29.2)	72(100)
농공단지	0(0.0)	0(0.0)	14(42.4)	12(36.4)	7(21.2)	33(100)
국가산업단지	0(0.0)	0(0.0)	2(12.5)	8(50.0)	6(37.5)	16(100)
지방산업단지	2(4.8)	0(0.0)	6(14.3)	24(57.1)	10(23.8)	42(100)
전체	2(1.2)	5(3.1)	36(22.1)	76(46.6)	44(27.0)	163(100)

(9)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대

창업보육센터와 벤처기업들의 집적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지유형에 상관없이 대체로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II-76>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대 요구도

(단위 : 개, %)

구 분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아주 필요함	전체
개별입지	1(1.4)	6(8.5)	20(28.2)	30(42.3)	14(19.7)	71(100)
농공단지	1(3.2)	0(0.0)	14(45.2)	13(41.9)	3(9.7)	31(100)
국가산업단지	0(0.0)	0(0.0)	4(26.7)	6(40.0)	5(33.3)	15(100)
지방산업단지	1(2.6)	1(2.6)	16(41.0)	17(43.6)	4(10.3)	39(100)
전 체	3(1.9)	7(4.5)	54(34.6)	66(42.3)	26(16.7)	156(100)

2. 12개 부문별 지원제도 및 정책 평가

1) 부문별 만족도

다음은 12개 부문별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입지유형별 만족도를 개괄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해 보았다.

(1) 경영안정지원

7개 세부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안정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응답은 불만족:만족(보통)의 비율이 31.1%:68.9%로 대체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대신, 국가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77> 경영안정지원 만족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개별입지	3(4.8)	18(28.6)	34(54.0)	8(12.7)	63(100)
농공단지	1(3.0)	11(33.3)	18(54.5)	3(9.1)	33(100)
국가산업단지	0(0.0)	7(41.2)	8(47.1)	2(11.8)	17(100)
지방산업단지	1(2.6)	6(15.8)	26(68.4)	5(13.2)	38(100)
전 체	5(3.3)	42(27.8)	86(57.0)	18(11.9)	151(100)

(2) 경영·정보화 지원

14개 세부 제도로 구성되어진 경영·정보화 지원에 대한 입지유형별 개괄적 만족도는 불만족:만족(보통)의 비율이 32.4%:67.6%로 응답업체들은 대체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은 농공단지로 조사되었고,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은 국가산업단지로 조사되었다.

<표 II-78> 경영·정보화 지원 만족도

(단위 : 개,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개별입지	2(3.3)	14(23.0)	38(62.3)	7(11.5)	61(100)
농공단지	1(3.3)	10(33.3)	15(50.0)	4(13.3)	30(100)
국가산업단지	0(0.0)	10(58.8)	5(29.4)	2(11.8)	17(100)
지방산업단지	0(0.0)	10(27.0)	25(67.6)	2(5.4)	37(100)
전체	3(2.1)	44(30.3)	83(57.2)	15(10.3)	145(100)

(3)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

9개 세부 제도로 지원되고 있는 공산품시험·분석·연구지원에 대한 입지유형별 개괄적 만족도는 불만족:만족(보통)의 비율이 44.9%:55.1%로 대체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입지유형은 농공단지였고,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입지는 국가산업단지내에 입주한 업체들이었다.

<표 II-79>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 만족도

(단위 : 개,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개별입지	3(5.4)	22(39.3)	29(51.8)	2(3.6)	56(100)
농공단지	0(0.0)	14(50.0)	11(39.3)	3(10.7)	28(100)
국가산업단지	0(0.0)	9(64.3)	4(28.6)	1(7.1)	14(100)
지방산업단지	0(0.0)	10(32.3)	18(58.1)	3(9.7)	31(100)
전체	3(2.3)	55(42.6)	62(48.1)	9(7.0)	129(100)

(4) 기술혁신지원

17개 세부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에 대한 입지유형별 개괄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만족(보통)의 비율은 39.5%:60.5%로 대체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은 지방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업체들이었고,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업체들이었다.

<표 II-80> 기술혁신지원 만족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개별입지	2(3.5)	21(36.8)	28(49.1)	6(10.5)	57(100)
농공단지	1(3.4)	10(34.5)	17(58.6)	1(3.4)	29(100)
국가산업단지	0(0.0)	6(42.9)	8(57.1)	0(0.0)	14(100)
지방산업단지	0(0.0)	13(38.2)	16(47.1)	5(14.7)	34(100)
전 체	3(2.2)	50(37.3)	69(51.5)	12(9.0)	134(100)

(5)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

5개 세부 지원프로그램에 의한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입지유형별 개괄적 만족도는 불만족:만족(보통)의 비율이 44.7%:55.3%로 대체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도 국가산업단지였다.

<표 II-81>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 만족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개별입지	4(7.3)	18(32.7)	30(54.5)	3(5.5)	0(0.0)	55(100)
농공단지	0(0.0)	11(37.9)	16(55.2)	2(6.9)	0(0.0)	29(100)
국가산업단지	0(0.0)	9(64.3)	3(21.4)	1(7.1)	1(7.1)	14(100)
지방산업단지	2(5.9)	15(44.1)	16(47.1)	1(2.9)	0(0.0)	34(100)
전 체	6(4.5)	53(40.2)	65(49.2)	7(5.3)	1(0.8)	134(100)

(6)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

12개 세부지원프로그램에 의한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에 대한 입지유형별 개괄적 만족도를 불만족:만족(보통)의 비율로 보면, 38.6%:61.4%로 대체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은 개별입지

내에 업체들이었고,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업체들이었다.

<표 II-82>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 만족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개별입지	5(9.4)	15(28.3)	28(52.8)	5(9.4)	53(100)
농공단지	2(7.1)	5(17.9)	19(67.9)	2(7.1)	28(100)
국가산업단지	0(0.0)	8(57.1)	5(35.7)	1(7.1)	14(100)
지방산업단지	1(3.1)	13(40.6)	18(56.3)	0(0.0)	32(100)
전 체	8(6.3)	41(32.3)	70(55.1)	8(6.3)	127(100)

(7) 수출지원

16개 세부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수출지원에 대한 입지유형별 개괄적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만족(보통)의 비율은 34.9%:65.1%로 대체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은 국가산업단지내에 입주한 업체들이었고,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었다.

<표 II-83> 수출지원 만족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개별입지	3(7.0)	9(20.9)	25(58.1)	6(14.0)	43(100)
농공단지	0(0.0)	11(40.7)	15(55.6)	1(3.7)	27(100)
국가산업단지	0(0.0)	5(38.5)	5(38.5)	3(23.1)	13(100)
지방산업단지	1(3.4)	10(34.5)	15(51.7)	3(10.3)	29(100)
전 체	4(3.6)	35(31.3)	60(53.6)	13(11.6)	112(100)

(8) 인력지원

5개 세부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인력지원에 대한 입지유형별 개괄적 만족도는 불만족:만족(보통)의 비율이 40.1%:59.9%로 대체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은 지방산업단지였고,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업체들이었다.

<표 II -84> 인력지원 만족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개별입지	6(10.0)	17(28.3)	32(53.3)	5(8.3)	60(100)
농공단지	2(7.1)	8(28.6)	16(57.1)	2(7.1)	28(100)
국가산업단지	0(0.0)	7(53.8)	5(38.5)	1(7.7)	13(100)
지방산업단지	2(5.6)	13(36.1)	17(47.2)	4(11.1)	36(100)
전 체	10(7.3)	45(32.8)	70(51.1)	12(8.8)	137(100)

(9) 전략산업육성

9개 세부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전략산업육성에 대한 입지유형별 개괄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만족(보통)의 비율이 37.2%:62.8%로 대체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은 지방산업단지내의 업체들이었고,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입지유형은 국가산업단지내의 업체들이었다.

<표 II -85> 전략산업육성 만족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개별입지	4(7.7)	14(26.9)	30(57.7)	4(7.7)	0(0.0)	52(100)
농공단지	3(10.3)	9(31.0)	16(55.2)	1(3.4)	0(0.0)	29(100)
국가산업단지	0(0.0)	6(42.9)	7(50.0)	1(7.1)	0(0.0)	14(100)
지방산업단지	0(0.0)	12(35.3)	18(52.9)	3(8.8)	1(2.9)	34(100)
전 체	7(5.4)	41(31.8)	71(55.0)	9(7.0)	1(0.8)	129(100)

(10) 중소기업 사기진작

4개 세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중소기업 사기진작에 대한 입지유형별 개괄적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만족(보통)의 비율이 46.4%:53.6%로 대체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입지유형은 지방산업단지내의 업체들이고, 높은 불만족도를 나타내는 입지유형은 개별입지 업체들이었다.

<표 II -86> 중소기업 사기진작 만족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개별입지	6(10.3)	20(34.5)	28(48.3)	4(6.9)	0(0.0)	58(100)
농공단지	1(3.3)	13(43.3)	14(46.7)	2(6.7)	0(0.0)	30(100)
국가산업단지	1(6.7)	7(46.7)	5(33.3)	1(6.7)	1(6.7)	15(100)
지방산업단지	0(0.0)	16(45.7)	14(40.0)	5(14.3)	0(0.0)	35(100)
전 체	8(5.8)	56(40.6)	61(44.2)	12(8.7)	1(0.7)	138(100)

(11) 중소기업 자금지원

12개 세부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해 입지유형별 개괄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만족(보통)의 비율이 35.3%:64.7%로 대체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표출한 입지유형은 지방산업단지 내의 업체들이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족도를 표출한 입지유형은 국가산업단지 내의 업체들이었다.

<표 II -87> 중소기업 자금지원 만족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개별입지	5(7.4)	21(30.9)	34(50.0)	7(10.3)	1(1.5)	68(100)
농공단지	1(3.2)	10(32.3)	15(48.4)	5(16.1)	0(0.0)	31(100)
국가산업단지	0(0.0)	7(46.7)	6(40.0)	1(6.7)	1(6.7)	15(100)
지방산업단지	2(5.1)	8(20.5)	17(43.6)	12(30.8)	0(0.0)	39(100)
전 체	8(5.2)	46(30.1)	72(47.1)	25(16.3)	2(1.3)	153(100)

(12) 판로지원

7개 세부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판로지원에 대한 입지유형별 개괄적 만족도는 불만족:만족(보통)의 비율이 46.9%:53.1%로 대체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입지유형은 국가산업단지였고,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족도를 나타낸 입지유형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들이었다.

<표 II-88> 중소기업 판로지원 만족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개별입지	7(12.3)	21(36.8)	25(43.9)	4(7.0)	57(100)
농공단지	2(7.4)	11(40.7)	13(48.1)	1(3.7)	27(100)
국가산업단지	0(0.0)	6(46.2)	6(46.2)	1(7.7)	13(100)
지방산업단지	1(3.2)	12(38.7)	17(54.8)	1(3.2)	31(100)
전 체	10(7.8)	50(39.1)	61(47.7)	7(5.5)	128(100)

2) 세부지원제도별 인지도, 활용도와 만족도

(1) 경영·정보화 지원제도

가. 인지도

경영·정보화 지원제도의 14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발」이 71.8%, 「중소기업 DB구축」이 59.1%, 「기업경영 정보제공」이 48.2%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인지도 조사결과 개별입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농공단지는 「중소기업 DB구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89> 경영·정보화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경영도우미 자문단 운영	14	12.7	2	1.8	3	2.7	7	6.4	26	23.6
경영혁신교육	19	17.3	15	13.6	3	2.7	14	12.7	51	46.4
구조개선 고도화 사업	22	20.0	9	8.2	3	2.7	17	15.5	51	46.4
기업경영 정보제공	25	22.7	12	10.9	3	2.7	13	11.8	53	48.2
소자본창업경영개선 설명회	17	15.5	6	5.5	3	2.7	8	7.3	34	30.9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18	16.4	5	4.5	3	2.7	9	8.2	35	31.8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	15	13.6	9	8.2	3	2.7	12	10.9	39	35.5
중소기업 애로사항 정기조사	18	16.4	12	10.9	3	2.7	11	10.0	44	40.0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교육사업	17	15.5	10	9.1	1	0.9	11	10.0	39	35.5
중소기업 정보화 종합 컨설팅 사업	17	15.5	8	7.3	2	1.8	10	9.1	37	33.6
중소기업 정보화 혁신전문기업(TIMPS)사업	14	12.7	5	4.5	1	0.9	5	4.5	25	22.7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발	34	30.9	16	14.5	7	6.4	22	20.0	79	71.8
중소기업 DB구축	25	22.7	18	16.4	3	2.7	19	17.3	65	59.1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15	13.6	10	9.1	1	0.9	11	10.0	37	33.6
합 계	42	38.2	25	22.7	9	8.2	34	30.9	110	100

나. 활용도

경영·정보화 지원제도의 14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발」이 48.0%, 「중소기업 DB구축」이 32.0%, 「기업경영 정보제공」, 「중소기업 애로사항 정기조사」, 「중소기업 정보화 종합 컨설팅 사업」이 각각 28.0%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활용도 조사결과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는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지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정기조사」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90> 경영·정보화지원제도 활용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경영도우미 자문단 운영	3	6.0	0	0	0	0	1	2.0	4	8.0
경영혁신교육	4	8.0	2	4.0	0	0	4	8.0	10	20.0
구조개선 고도화 사업	4	8.0	0	0	1	2.0	4	8.0	9	18.0
기업경영 정보제공	9	18.0	1	2.0	0	0	4	8.0	14	28.0
소자본창업경영개선 설명회	3	6.0	1	2.0	0	0	2	4.0	6	12.0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3	6.0	0	0	0	0	2	4.0	5	10.0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	4	8.0	1	2.0	0	0	3	6.0	8	16.0
중소기업 애로사항 정기조사	6	12.0	3	6.0	0	0	5	10.0	14	28.0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교육사업	6	12.0	3	6.0	0	0	2	4.0	11	22.0
중소기업 정보화 종합 컨설팅 사업	8	16.0	3	6.0	0	0	3	6.0	14	28.0
중소기업 정보화 혁신 전문기업 사업	4	8.0	0	0	0	0	1	2.0	5	10.0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발	13	26.0	6	12.0	1	2.0	4	8.0	24	48.0
중소기업 DB구축	8	16.0	3	6.0	1	2.0	4	8.0	16	32.0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 사업	5	10.0	2	4.0	0	0	1	2.0	8	16.0
합 계	19	38.0	12	24.0	3	6.0	16	32.0	50	100

다. 만족도

경영·정보화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지원분류별 평가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구조개선 고도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1점으로 보통(3.0)의 평가를 받았고, 「경영도우미 자문단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2.7점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91> 경영·정보화지원제도 만족도

(단위 : 개)

구 분	응답업체수	평균	표준편차
경영도우미 자문단 운영	10	2.7	0.5
경영혁신교육	19	3.2	0.9
구조개선 고도화 사업	20	3.1	0.7
기업경영 정보제공	24	2.9	0.8
소자본창업경영개선 설명회	12	2.8	0.6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12	2.8	0.7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	16	2.8	0.4
중소기업 애로사항 정기조사	20	3.0	0.6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교육사업	16	2.8	0.6
중소기업 정보화 종합 컨설팅 사업	22	3.0	0.7
중소기업 정보화 혁신 전문기업(TIMPs)사업	12	3.0	0.7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발	36	3.0	0.8
중소기업 DB구축	29	3.0	0.6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16	2.9	0.5

(2) 경영안정지원제도

가. 인지도

경영안정지원제도의 7개 세부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외국인 산업 연수제도 지원」이 72.4%,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이 62.9%,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이 59.0%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인지도 조사결과 개별입지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국가산업단지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 농공단지과 지방산업단지는 「외국인 산업 연수제도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92> 경영안정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업체수	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지원	7	6.7	9	8.6	2	1.9	6	5.7	24	22.9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23	21.9	14	13.3	4	3.8	19	18.1	60	57.1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	15	14.3	19	18.1	6	5.7	26	24.8	66	62.9
외국인산업 연수제도지원	21	20.0	22	21.0	4	3.8	29	27.6	76	72.4
제조물 책임제도(PL) 대응지원	16	15.2	13	12.4	4	3.8	16	15.2	49	46.7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25	23.8	17	16.2	4	3.8	16	15.2	62	59.0
해외전문인력도입 및 연수지원	15	14.3	10	9.5	2	1.9	6	5.7	33	31.4
합 계	35	33.3	27	25.7	6	5.7	37	35.2	105	100

나. 활용도

경영안정지원제도의 7개 세부제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이 53.1%, 「외국인 산업 연수제도지원」이 51.0%,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이 32.7%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활용도 조사결과 개별입지는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농공단지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 국가산업단지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 지방산업단지는 「외국인 산업 연수제도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93> 경영안정지원제도 활용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지원	1	2.0	1	2.0	0	0.0	1	2.0	3	6.1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9	18.4	1	2.0	1	2.0	5	10.2	16	32.7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	7	14.3	10	20.4	2	4.1	7	14.3	26	53.1
외국인산업 연수제도지원	8	16.3	5	10.2	2	4.1	10	20.4	25	51.0
제조물 책임제도(PL) 대응지원	5	10.2	1	2.0	0	0.0	3	6.1	9	18.4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7	14.3	1	2.0	0	0.0	3	6.1	11	22.4
해외전문인력도입 및 연수지원	3	6.1	2	4.1	0	0.0	0	0.0	5	10.2
합 계	18	36.7	12	24.5	2	4.1	17	34.7	49	100

다. 만족도

경영안정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4점으로 보통(3.0)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2.6점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94> 경영안정지원제도 만족도

(단위 : 개)

구 분	응답업체수	평균	표준편차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지원	8	2.6	0.5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29	3.1	0.9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	37	3.4	0.9
외국인산업 연수제도지원	37	3.2	1.0
제조물 책임제도(P.L) 대응지원	18	2.8	0.4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24	3.0	1.0
해외전문인력도입 및 연수지원	12	2.8	0.7

(3)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제도

가. 인지도

공산품 시험·분석·연구 지원제도의 9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시험검사지원」이 61.3%, 「계량/계측기 교정 검사지원」이 53.2%, 「시험·연구개발지원」이 46.8%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인지도 조사결과 개별입지는 「창업보육센터(BI) 입주지원 제품품질인증」, 농공단지 「시험검사지원」, 지방산업단지는 「계량/계측기 교정 검사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95>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 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시험검사지원	13	21.0	10	16.1	2	3.2	13	21.0	38	61.3
계량/계측기 교정 검사지원	10	16.1	5	8.1	2	3.2	16	25.8	33	53.2
이동순회 교정 및 생산현장 기술자교육지원	4	6.5	4	6.5	1	1.6	5	8.1	14	22.6
설비사용지원	8	12.9	5	8.1	1	1.6	8	12.9	22	35.5
시험·연구개발 지원	8	12.9	7	11.3	2	3.2	12	19.4	29	46.8
효율기자재 소비효율 측정시험	4	6.5	3	4.8	1	1.6	4	6.5	12	19.4
민속공예품 품질인증	6	9.7	2	3.2	1	1.6	4	6.5	13	21.0
창업보육센터(BI) 입주지원 제품품질인증	11	17.7	3	4.8	2	3.2	8	12.9	24	38.7
시험결과와 해석 및 조사지원	6	9.7	5	8.1	1	1.6	8	12.9	20	32.3
합 계	22	35.5	14	22.6	4	6.5	22	35.5	62	100

나. 활용도

공산품 시험·분석·연구 지원제도의 9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시험검사지원」이 60.9%, 「계량/계측 교정 검사지원」이 51.0%,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이 32.7%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활용도 조사결과 개별입지는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농공단지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가산업단지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 지방산업단지는 「외국인 산업 연수제도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96>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제도 활용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시험검사지원	6	26.1	2	8.7	1	4.3	5	21.7	14	60.9
계량/계측기 교정 검사지원	5	21.7	0	0.0	0	0.0	4	17.4	9	39.1
이동순회교정 및 생산현장 기술자교육지원	2	8.7	0	0.0	0	0.0	1	4.3	3	13.0
설비사용지원	1	4.3	1	4.3	0	0.0	2	8.7	4	17.4
시험·연구개발지원	1	4.3	1	4.3	0	0.0	2	8.7	4	17.4
효율기자재 소비효율 측정시험	2	8.7	0	0.0	0	0.0	1	4.3	3	13.0
민속공예품 품질인증	0	0.0	0	0.0	0	0.0	0	0.0	0	0.0
창업보육센터(BI) 입주지원 제품품질인증	0	0.0	0	0.0	0	0.0	1	4.3	1	4.3
시험결과의 해석 및 조사지원	0	0.0	1	4.3	0	0.0	1	4.3	2	8.7
합 계	10	43.5	4	17.4	1	4.3	8	34.8	23	100

다. 만족도

공산품 시험·분석·연구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지원 분류별 평가가 대체 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시험검사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2점으로 보통(3.0)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고, 「이동순회 교정 및 생산현장 기술자 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2.8점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97>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제도 만족도

(단위 : 개)

구 분	응답업체수	평균	표준편차
시험검사지원	19	3.2	0.9
계량/계측기 교정 검사지원	18	2.9	0.8
이동순회 교정 및 생산현장 기술자 교육지원	9	2.8	1.2
설비사용지원	12	3.0	1.0
시험·연구 개발 지원	10	3.2	0.6
효율기자재 소비효율 측정시험	6	3.2	0.4
민속공예품 품질인증	3	3.0	0.0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제품품질인증	7	3.0	0.0
시험결과의 해석 및 조사지원	8	3.4	0.7

(4) 기술혁신지원제도

가. 인지도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17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이 66.3%, 「해외규격 인증획득」이 55.4%, 「기술평가제도」가 54.2%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인지도 조사결과 개별입지는 「기술평가제도」, 농공단지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국가산업단지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과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 지방산업단지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과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98> 기술혁신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업자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	7	8.4	3	3.6	2	2.4	7	8.4	19	22.9
기술우대보증제도	14	16.9	6	7.2	1	1.2	5	6.0	26	31.3
기술평가보증	19	22.9	9	10.8	2	2.4	11	13.3	41	49.4
기술평가제도	20	24.1	10	12.0	2	2.4	13	15.7	45	54.2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사업	6	7.2	1	1.2	1	1.2	4	4.8	12	14.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18	21.7	15	18.1	4	4.8	18	21.7	55	66.3
산업기술 정보제공	13	15.7	7	8.4	1	1.2	9	10.8	30	36.1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11	13.3	8	9.6	3	3.6	9	10.8	31	37.3
생산현장 애로 기술 지도 사업	14	16.9	12	14.5	3	3.6	9	10.8	38	45.8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8	9.6	3	3.6	2	2.4	6	7.2	19	22.9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	8	9.6	11	13.3	4	4.8	15	18.1	38	45.8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4	4.8	7	8.4	1	1.2	8	9.6	20	24.1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지원사업	5	6.0	3	3.6	1	1.2	2	2.4	11	13.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	17	20.5	6	7.2	2	2.4	9	10.8	34	41.0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8	9.6	5	6.0	2	2.4	9	10.8	24	28.9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11	13.3	9	10.8	3	3.6	9	10.8	32	38.6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15	18.1	11	13.3	2	2.4	18	21.7	46	55.4
합 계	32	38.6	21	25.3	4	4.8	26	31.3	83	100

나. 활용도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17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이 44.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이 39.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이 28.9%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활용도 조사결과 개별입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과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농공단지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지방산업단지는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99> 기술혁신지원제도 활용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업자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	0	0.0	0	0.0	0	0.0	0	0.0	0	0.0
기술우대보증제도	1	2.6	0	0.0	0	0.0	0	0.0	1	2.6
기술평가보증	3	7.9	1	2.6	0	0.0	1	2.6	5	13.2
기술평가제도	3	7.9	0	0.0	0	0.0	1	2.6	4	10.5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사업	0	0.0	0	0.0	0	0.0	0	0.0	0	0.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5	13.2	4	10.5	0	0.0	6	15.8	15	39.5
산업기술 정보제공	2	5.3	1	2.6	0	0.0	3	7.9	6	15.8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2	5.3	1	2.6	0	0.0	2	5.3	5	13.2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사업	2	5.3	3	7.9	0	0.0	2	5.3	7	18.4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1	2.6	0	0.0	1	2.6	2	5.3	4	10.5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	0	0.0	0	0.0	0	0.0	2	5.3	2	5.3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1	2.6	1	2.6	0	0.0	1	2.6	3	7.9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지원사업	2	5.3	1	2.6	0	0.0	1	2.6	4	10.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	6	15.8	1	2.6	0	0.0	4	10.5	11	28.9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0	0.0	1	2.6	0	0.0	0	0.0	1	2.6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1	2.6	1	2.6	0	0.0	3	7.9	5	13.2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6	15.8	2	5.3	0	0.0	9	23.7	17	44.7
합 계	15	39.5	8	21.1	1	2.6	14	36.8	38	100

다. 만족도

기술혁신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4.1점으로 만족(4.0)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외 세부지원분류에서 대체적으로 보통(3.0)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고, 「기술우대보증제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2.7점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100> 기술혁신지원제도 만족도

(단위 : 개)

구 분	응답업체수	평균	표준편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 사업	5	2.8	0.4
기술우대보증제도	7	2.7	0.5
기술평가보증	13	3.0	0.6
기술평가제도	13	2.9	0.5
기업 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 사업	6	2.7	0.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27	4.1	5.3
산업기술 정보제공	14	2.9	0.7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14	2.8	1.3
생산현장 애로 기술 지도 사업	16	3.0	1.2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9	3.1	1.1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	11	3.2	0.8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 사업	10	3.1	0.6
중소기업 기술지도 대학(TRITAS)지원 사업	6	3.0	0.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	20	3.5	0.7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8	3.0	0.5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13	3.1	0.6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27	3.5	0.9

(5)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

가. 인지도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의 5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농공단지 분양」이 69.0%, 「국내기업 유치」와 「지방산업단지 분양」이 63.2% 순으로 조사되었다. 입지유형별 인지도 조사결과 개별입지와 국가산업단지는 「국내기업 유치」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분양」,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01>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국내기업 유치	18	20.7	14	16.1	5	5.7	18	20.7	55	63.2
기업유치 보조금지원	17	19.5	14	16.1	2	2.3	17	19.5	50	57.5
농공단지 분양	17	19.5	23	26.4	2	2.3	18	20.7	60	69.0
지방산업단지 분양	16	18.4	14	16.1	3	3.4	22	25.3	55	63.2
창업관련 세제지원	18	20.7	13	14.9	3	3.4	17	19.5	51	58.6
합 계	27	31.0	26	29.9	7	8.0	27	31.0	87	100

나. 활용도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의 5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농공단지 분양」이 48.1%, 「지방산업단지 분양」이 44.4%, 「창업관련 세제지원」이 40.7%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활용도 조사결과 농공단지 「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02>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 활용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국내기업 유치	1	3.7	3	11.1	0	0.0	2	7.4	6	22.2
기업유치 보조금지원	1	3.7	4	14.8	0	0.0	3	11.1	8	29.6
농공단지 분양	0	0.0	11	40.7	0	0.0	2	7.4	13	48.1
지방산업단지 분양	0	0.0	3	11.1	1	3.7	8	29.6	12	44.4
창업관련 세제지원	1	3.7	5	18.5	1	3.7	4	14.8	11	40.7
합 계	3	11.1	12	44.4	2	7.4	10	37.0	27	100

다. 만족도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지원 분류별 평가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지방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3점으로 보통(3.0)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국내기업 유치」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2.9점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103>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 만족도

(단위 : 개)

구 분	응답업체수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국내기업 유치	18	2.9	0.2	0.7
기업유치 보조금지원	18	3.1	0.1	0.6
농공단지 분양	26	3.1	0.2	0.8
지방산업단지 분양	23	3.3	0.2	0.8
창업관련 세제지원	20	3.1	0.2	0.8

(6)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

가. 인지도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의 12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이 81.2%,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우대」가 60.9%, 「벤처기업 세제지원」이 59.4%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인지도 조사결과 입지유형과 관계없이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04>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업체수	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응답업체수	비율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8	11.6	6	8.7	2	2.9	10	14.5	26	37.7
대학생 창업지원	13	18.8	8	11.6	2	2.9	10	14.5	33	47.8
벤처기업 세제지원	16	23.2	10	14.5	2	2.9	13	18.8	41	59.4
벤처기업 확인제도	14	20.3	7	10.1	2	2.9	8	11.6	31	44.9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24	34.8	13	18.8	2	2.9	17	24.6	56	8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10	14.5	6	8.7	1	1.4	8	11.6	25	36.2
신기술지역펀드 운용	5	7.2	2	2.9	1	1.4	2	2.9	10	14.5
실험실 벤처 창업지원	5	7.2	3	4.3	1	1.4	6	8.7	15	21.7
엔젤에 대한 세제감면	6	8.7	2	2.9	1	1.4	2	2.9	11	15.9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우대	17	24.6	10	14.5	2	2.9	13	18.8	42	60.9
창업 강좌	11	15.9	8	11.6	2	2.9	10	14.5	31	44.9
창업보육사업 지원	12	17.4	9	13.0	2	2.9	12	17.4	35	50.7
합 계	28	40.6	14	20.3	4	5.8	23	33.3	69	100

나. 활용도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의 12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이 81.2%,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우대」이 60.9%, 「벤처기업 세제지원」이 59.4%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활용도 조사결과 개별입지, 농공단지, 지방산업단지는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05>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 활용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8	11.6	6	8.7	2	2.9	10	14.5	26	37.7
대학생 창업지원	13	18.8	8	11.6	2	2.9	10	14.5	33	47.8
벤처기업 세제지원	16	23.2	10	14.5	2	2.9	13	18.8	41	59.4
벤처기업 확인제도	14	20.3	7	10.1	2	2.9	8	11.6	31	44.9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24	34.8	13	18.8	2	2.9	17	24.6	56	8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10	14.5	6	8.7	1	1.4	8	11.6	25	36.2
신기술지역펀드 운용	5	7.2	2	2.9	1	1.4	2	2.9	10	14.5
실험실 벤처 창업지원	5	7.2	3	4.3	1	1.4	6	8.7	15	21.7
엔젤에 대한 세제감면	6	8.7	2	2.9	1	1.4	2	2.9	11	15.9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우대	17	24.6	10	14.5	2	2.9	13	18.8	42	60.9
창업 강좌	11	15.9	8	11.6	2	2.9	10	14.5	31	44.9
창업보육사업 지원	12	17.4	9	13.0	2	2.9	12	17.4	35	50.7
합 계	28	40.6	14	20.3	4	5.8	23	33.3	69	100

다. 만족도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신기술지역펀드 운용」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4.3점으로 만족(4.0)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창업강좌」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2.1점으로 불만족(2.0)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106>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 만족도

(단위 : 개)

구 분	응답업체수	평균	표준편차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8	2.9	0.6
대학생 창업지원	8	3.1	0.6
벤처기업 세제지원	10	3.1	0.6
벤처기업 확인제도	15	3.4	0.5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13	3.1	0.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7	3.0	0.0
신기술지역펀드 운용	4	4.3	3.2
실험실 벤처 창업지원	4	3.0	0.0
엔젤에 대한 세제감면	3	3.0	0.0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우대	14	3.1	0.3
창업 강좌	11	2.1	1.7
창업보육사업 지원	13	2.8	1.7

(7) 수출지원제도

가. 인지도

수출지원제도의 16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국제박람회 참가」가 86.2%,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이 67.7%,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56.9%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인지도 조사결과 개별입지, 농공단지, 지방산업단지는 「국제박람회 참가」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가산업단지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07> 수출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국제박람회 참가	19	29.2	12	18.5	6	9.2	19	29.2	56	86.2
무역 전문 인력 양성지원	11	16.9	5	7.7	1	1.5	7	10.8	24	36.9
상해통상사무소 운영 활성화	8	12.3	5	7.7	1	1.5	4	6.2	18	27.7
수출기업화 지원	10	15.4	8	12.3	3	4.6	9	13.8	30	46.2
수출보험 가입	9	13.8	3	4.6	4	6.2	10	15.4	26	40.0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13	20.0	8	12.3	7	10.8	16	24.6	44	67.7
수출 지원 센터 운영	12	18.5	6	9.2	4	6.2	14	21.5	36	55.4
외국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	4	6.2	3	4.6	2	3.1	2	3.1	11	16.9
외국인 투자환경조성	3	4.6	4	6.2	1	1.5	5	7.7	13	20.0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사업	11	16.9	7	10.8	3	4.6	8	12.3	29	44.6
타겟기업 투자설명회	4	6.2	2	3.1	1	1.5	2	3.1	9	13.8
투자유치활동 강화	6	9.2	6	9.2	3	4.6	5	7.7	20	30.8
해외거래 강화사업	4	6.2	4	6.2	1	1.5	3	4.6	12	18.5
해외마케팅 지원	9	13.8	8	12.3	4	6.2	5	7.7	26	40.0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1	16.9	10	15.4	6	9.2	10	15.4	37	56.9
해외유통시장 진출 지원 사업	10	15.4	9	13.8	2	3.1	3	4.6	24	36.9
합 계	21	32.3	13	20.0	7	10.8	24	36.9	65	100

나. 활용도

수출지원제도의 16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국제박람회 참가」가 60.9%,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이 47.8%,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43.5%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활용도 조사결과 개별입지, 농공단지, 지방산업단지는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08> 수출지원제도 활용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국제박람회 참가	7	30.4	3	13.0	1	4.3	3	13.0	14	60.9
무역 전문 인력 양성지원	2	8.7	1	4.3	0	0.0	1	4.3	4	17.4
상해통상사무소 운영 활성화	4	17.4	2	8.7	0	0.0	1	4.3	7	30.4
수출기업화 지원	6	26.1	1	4.3	0	0.0	2	8.7	9	39.1
수출보험 가입	2	8.7	1	4.3	0	0.0	1	4.3	4	17.4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7	30.4	2	8.7	0	0.0	2	8.7	11	47.8
수출지원센터 운영	5	21.7	0	0.0	0	0.0	1	4.3	6	26.1
외국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	0	0.0	0	0.0	0	0.0	1	4.3	1	4.3
외국인 투자환경조성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사업	0	0.0	1	4.3	0	0.0	1	4.3	2	8.7
타겟기업 투자설명회	0	0.0	0	0.0	0	0.0	0	0.0	0	0.0
투자유치활동 강화	0	0.0	1	4.3	0	0.0	1	4.3	2	8.7
해외거래 강화사업	0	0.0	1	4.3	0	0.0	0	0.0	1	4.3
해외마케팅 지원	1	4.3	2	8.7	0	0.0	1	4.3	4	17.4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4	17.4	2	8.7	0	0.0	4	17.4	10	43.5
해외유통시장 진출 지원사업	0	0.0	2	8.7	0	0.0	0	0.0	2	8.7
합 계	11	47.8	4	17.4	1	4.3	7	30.4	23	100

다. 만족도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지원분류별 평가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환경조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9점, 「상해통상사무소 운영 활성화」와 「수출기업화 지원」의 각각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7점으로 만족(4.0)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고, 「타겟기업 투자설명회」와 「해외거래 강화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5점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109> 수출지원제도 만족도

(단위 : 개)

구 분	응답업체 수	평균	표준편차
국제박람회 참가	26	3.2	0.6
무역 전문 인력 양성지원	11	2.9	0.7
상해통상사무소 운영 활성화	9	3.7	1.0
수출기업화 지원	13	3.7	0.9
수출보험 가입	12	3.2	0.8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20	3.5	0.8
수출 지원 센터 운영	15	3.3	0.9
외국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	5	3.0	0.7
외국인 투자환경조성	7	3.9	2.3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 사업	8	3.0	0.8
타겟 기업 투자설명회	2	2.5	0.7
투자유치활동 강화	8	3.1	0.8
해외거래 강화사업	4	2.5	0.6
해외마케팅 지원	10	2.9	0.6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7	3.5	0.8
해외유통시장 진출 지원 사업	9	3.0	0.5

(8) 인력지원제도

가. 인지도

인력지원제도의 5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가 82.9%, 「취업사이트 운영」이 69.2%, 「고용촉진훈련사업」이 65.8%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인지도 조사결과 개별입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는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공단지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10> 인력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고용촉진훈련사업	28	23.9	21	17.9	4	3.4	24	20.5	77	65.8
공공근로사업	20	17.1	20	17.1	4	3.4	29	24.8	73	62.4
일자리창출사업	25	21.4	17	14.5	6	5.1	21	17.9	69	59.0
취업사이트 운영	33	28.2	16	13.7	5	4.3	27	23.1	81	69.2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	37	31.6	20	17.1	8	6.8	32	27.4	97	82.9
합계	47	40.2	24	20.5	9	7.7	37	31.6	117	100

나. 활용도

인력지원제도의 5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취업사이트 운영」과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가 각각 44.4%, 「고용촉진훈련사업」이 38.9% 순으로 조사되었다. 입지유형별 활용도 조사결과 개별입지, 농공단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산업단지는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11> 인력지원제도 활용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고용촉진훈련사업	13	24.1	5	9.3	0	0.0	3	5.6	21	38.9
공공근로사업	3	5.6	4	7.4	1	1.9	5	9.3	13	24.1
일자리창출사업	9	16.7	3	5.6	1	1.9	7	13.0	20	37.0
취업사이트 운영	11	20.4	4	7.4	2	3.7	7	13.0	24	44.4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	10	18.5	3	5.6	2	3.7	9	16.7	24	44.4
합 계	23	42.6	12	22.2	5	9.3	14	25.9	54	100

다. 만족도

인력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지원 분류별 평가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4점으로 보통(3.0)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대체적으로 보통(3.0)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112> 인력지원제도 만족도

(단위 : 개)

구 분	응답업체수	평균	표준편차
고용촉진훈련사업	34	3.2	0.9
공공근로사업	24	3.0	0.9
일자리창출사업	31	3.4	0.9
취업사이트 운영	38	3.3	0.7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	40	3.3	0.7

(9) 전략산업육성제도

가. 인지도

전략산업육성제도의 9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지원」이 70.3%,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과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이 각각 51.6%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인지도 조사결과 개별입지는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13> 전략산업육성제도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지원	6	9.4	4	6.3	3	4.7	9	14.1	22	34.4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10	15.6	7	10.9	2	3.1	14	21.9	33	51.6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	15	23.4	8	12.5	2	3.1	8	12.5	33	51.6
두뇌한국 특화분야 육성	2	3.1	3	4.7	1	1.6	3	4.7	9	14.1
반도체연구기반 혁신산업	8	12.5	3	4.7	2	3.1	4	6.3	17	26.6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정	9	14.1	9	14.1	3	4.7	8	12.5	29	45.3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지원	13	20.3	11	17.2	5	7.8	16	25.0	45	70.3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9	14.1	6	9.4	1	1.6	8	12.5	24	37.5
차세대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4	6.3	3	4.7	1	1.6	2	3.1	10	15.6
합 계	19	29.7	15	23.4	5	7.8	25	39.1	64	100

나. 활용도

전략산업육성제도의 9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지원」이 61.5%,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이 23.1%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활용도 조사결과 지방산업단지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14> 전략산업육성제도 활용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지원	0	0.0	0	0.0	0	0.0	2	15.4	2	15.4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0	0.0	1	7.7	0	0.0	1	7.7	2	15.4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	1	7.7	1	7.7	0	0.0	1	7.7	3	23.1
두뇌한국 특화분야 육성	0	0.0	0	0.0	0	0.0	0	0.0	0	0.0
반도체연구기반 혁신산업	0	0.0	0	0.0	0	0.0	0	0.0	0	0.0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정	0	0.0	0	0.0	1	7.7	1	7.7	2	15.4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지원	1	7.7	0	0.0	2	15.4	5	38.5	8	61.5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1	7.7	0	0.0	0	0.0	1	7.7	2	15.4
차세대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0	0.0	0	0.0	0	0.0	0	0.0	0	0.0
합 계	2	15.4	1	7.7	3	23.1	7	53.8	13	100

다. 만족도

전략산업육성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지원분류별 평가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4점으로 보통(3.0)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3점으로 불만족(2.0)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115> 전략산업육성제도 만족도

(단위 : 개)

구 분	응답업체 수	평균	표준편차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지원	14	2.3	1.6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11	3.0	0.6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	11	3.1	0.9
두뇌한국 특화분야 육성	3	3.0	0.0
반도체연구기반 혁신산업	7	3.0	0.0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정	8	3.4	0.7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지원	18	3.3	0.8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7	3.3	0.5
차세대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3	2.7	0.6

(10)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

가. 인지도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의 4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이 89.6%, 「유망 중소기업 발굴」이 86.5%, 「수출의 날 행사」가 57.3%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인지도 조사결과 개별입지, 지방산업단지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공단지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과 「유망 중소기업 발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가산업단지는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 -116>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수출의 날 행사	20	20.8	13	13.5	4	4.2	18	18.8	55	57.3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	30	31.3	22	22.9	6	6.3	28	29.2	86	89.6
유망 중소기업 발굴	25	26.0	22	22.9	5	5.2	31	32.3	83	86.5
전통공예산업 육성	18	18.8	6	6.3	1	1.0	10	10.4	35	36.5
합 계	33	34.4	24	25.0	7	7.3	32	33.3	96	100

나. 활용도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의 4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유망 중소기업 발굴」이 77.8%,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이 66.7%, 「수출의 날 행사」가 25.9%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활용도 조사결과 개별입지와 농공단지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산업단지는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과 「유망 중소기업 발굴」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17>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 활용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수출의 날 행사	3	11.1	3	11.1	0	0.0	1	3.7	7	25.9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	7	25.9	4	14.8	0	0.0	7	25.9	18	66.7
유망 중소기업 발굴	8	29.6	6	22.2	0	0.0	7	25.9	21	77.8
전통공예산업 육성	3	11.1	2	7.4	0	0.0	1	3.7	6	22.2
합 계	11	40.7	6	22.2	0	0.0	10	37.0	27	100

다. 만족도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지원분류별 평가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전통공예산업 육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8점으로 만족(4.0)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고, 대체적으로 보통(3.0)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118>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 만족도

(단위 : 개)

구 분	응답업체 수	평균	표준편차
수출의 날 행사	18	3.3	0.7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	32	3.5	0.7
유망 중소기업 발굴	37	3.6	0.8
전통공예산업 육성	10	3.8	0.8

(11)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

가. 인지도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의 12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77.6%,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70.1%,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이 61.2%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인지도 조사결과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119> 자금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경영안정자금 지원	51	34.7	24	16.3	10	6.8	29	19.7	114	77.6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33	22.4	10	6.8	6	4.1	9	6.1	58	39.5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지원제도	24	16.3	8	5.4	5	3.4	10	6.8	47	32.0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2	15.0	10	6.8	5	3.4	10	6.8	47	32.0
중소·벤처 창업자금	33	22.4	20	13.6	8	5.4	23	15.6	84	57.1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26	17.7	14	9.5	6	4.1	15	10.2	61	41.5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1	27.9	23	15.6	9	6.1	30	20.4	103	70.1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32	21.8	14	9.5	8	5.4	24	16.3	78	53.1
중소기업 수출 금융지원 자금	22	15.0	11	7.5	6	4.1	15	10.2	54	36.7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41	27.9	18	12.2	8	5.4	23	15.6	90	61.2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20	13.6	10	6.8	5	3.4	17	11.6	52	35.4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2	15.0	10	6.8	5	3.4	16	10.9	53	36.1
합 계	67	45.6	32	21.8	11	7.5	37	25.2	147	100

나. 활용도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의 12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56.3%,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47.9%,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이 36.5%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활용도 조사결과 개별입지, 농공단지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공단지, 국가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20> 자금지원제도 활용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경영안정자금 지원	31	32.3	9	9.4	3	3.1	11	11.5	54	56.3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11	11.5	2	2.1	0	0	2	2.1	15	15.6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지원제도	7	7.3	1	1.0	0	0	2	2.1	10	10.4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7	7.3	2	2.1	0	0	1	1.0	10	10.4
중소·벤처 창업자금	12	12.5	4	4.2	1	1.0	11	11.5	28	29.2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10	10.4	2	2.1	0	0	2	2.1	14	14.6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7	17.7	10	10.4	4	4.2	15	15.6	46	47.9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16	16.7	6	6.3	3	3.1	9	9.4	34	35.4
중소기업 수출 금융지원 자금	8	8.3	3	3.1	1	1.0	3	3.1	15	15.6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20	20.8	6	6.3	0	0	9	9.4	35	36.5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5	5.2	2	2.1	1	1.0	4	4.2	12	12.5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	7.3	3	3.1	1	1.0	5	5.2	16	16.7
합 계	48	50.0	16	16.7	7	7.3	25	26.0	96	100

다. 만족도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지원분류별 평가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4점으로 보통(3.0)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과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각각 2.8점과 2.9점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121> 자금지원제도 만족도

(단위 : 개)

구 분	응답업체 수	평균	표준편차
경영안정자금 지원	70	3.3	0.8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24	2.8	0.8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지원제도	17	3.0	0.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7	3.4	1.5
중소·벤처 창업자금	43	3.2	0.9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25	2.9	0.6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60	3.3	0.7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43	3.3	0.8
중소기업 수출 금융 지원 자금	24	3.0	0.6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50	3.2	0.8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22	3.0	0.7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3	3.2	0.8

(12) 판로지원제도

가. 인지도

판로지원제도의 7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건립」이 57.3%, 「재래시장 환경개선」이 51.2%,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이 50.0%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인지도 조사결과 개별입지는 「단체 수의계약제도」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공단지 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국가산업단지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방산업단지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122> 판로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입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단체 수의계약제도	19	23.2	12	14.6	2	2.4	6	7.3	39	47.6
도내중소기업제품 선물큰잔치	14	17.1	5	6.1	2	2.4	10	12.2	31	37.8
재래시장 환경개선	17	20.7	12	14.6	4	4.9	9	11.0	42	51.2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건립	19	23.2	12	14.6	1	1.2	15	18.3	47	57.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14	17.1	11	13.4	1	1.2	6	7.3	32	39.0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15	18.3	13	15.9	1	1.2	12	14.6	41	50.0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	9	11.0	6	7.3	2	2.4	3	3.7	20	24.4
합 계	36	43.9	20	24.4	4	4.9	22	26.8	82	100

나. 활용도

판로지원제도의 7개 세부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단체 수의계약제도」가 83.3%, 「도내중소기업제품 선물큰잔치」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건립」이 각각 20.0% 순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유형별 활용도 조사결과 개별입지, 농공단지, 지방산업단지 모두 「단체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23> 판로지원제도 활용도

(단위 : 개, %)

구 분	개별업자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합계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응답 업체수	비율
단체 수의계약제도	12	40.0	9	30.0	0	0.0	4	13.3	25	83.3
도내중소기업제품 선물큰잔치	5	16.7	1	3.3	0	0.0	0	0.0	6	20.0
재래시장 환경개선	2	6.7	2	6.7	0	0.0	1	3.3	5	16.7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건립	3	10.0	2	6.7	0	0.0	1	3.3	6	20.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2	6.7	2	6.7	0	0.0	0	0.0	4	13.3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1	3.3	2	6.7	0	0.0	2	6.7	5	16.7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	1	3.3	2	6.7	0	0.0	0	0.0	3	10.0
합 계	15	50.0	10	33.3	0	0.0	5	16.7	30	100

다. 만족도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지원분류별 평가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0점으로 보통(3.0)의 평가를 받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7점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124> 판로지원제도 만족도

(단위 : 개)

구 분	응답업체 수	평균	표준편차
단체 수의계약제도	31	2.9	0.9
도내중소기업제품 선물큰잔치	14	2.9	0.8
재래시장 환경개선	15	2.7	1.0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건립	19	2.8	0.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13	3.0	0.8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16	2.9	1.0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	9	3.0	1.1

3. 지원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향과 지원전략

본 보고서에서는 지원제도 및 정책들의 인지도와 활용도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

해 정리한 결과에 근거하여 12개 분야의 지원제도 및 정책들을 지원 및 제도확대에 대한 개선방향과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원확대지수(Supporting Expansion Index; 이하 SEI)”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원제도의 확대 여부를 제시한다.

1) 지원확대지수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향과 지원전략은 우선적으로 각 제도들의 인지도와 활용도, 그리고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에 상응하여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거나, 제도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또는 제도의 시스템이나 질적인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각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향과 지원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인지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제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인지도는 높으나 활용도가 낮은 제도들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이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므로 지원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인지도는 낮으나 활용도가 높은 제도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에게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했거나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어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인지도와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반하여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 제도의 유용성은 높으나 제도의 시스템이나 질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각각의 진단에 상응한 지원제도의 개편방향과 지원전략을 체계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지원확대지수(SEI)를 다음과 같이 산정 하였다.

12개 분야(i)별 117개 세부제도(j)의 지원확대지수(SEI)

= 세부제도 활용도 ÷ 세부제도 인지도

= (세부제도 j 의 활용업체 수/ i 분야제도 활용업체 총수)

÷ (세부제도 j 의 인지업체 수/ i 분야제도 인지업체 총수)

이 SEI의 계산되어진 값을 활용하여 지원제도들의 개편방향과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만약 지원확대지수가 1보다 크다면 동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체들의 인지비율보다 활용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이 제도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지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3점(보통)이하로 평가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질적 개선과 지원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만약 지원확대지수가 1보다 작더라도 1에 가까운 값으로 산출될수록 동 제도에 대한 지원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동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3점 이하라면, 제도의 질적 개선과 지원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만약 지원확대지수가 0.5보다 작으나 만족도가 3.0점(보통)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낮다고 진단되는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홍보나 교육에 보다 역점을 두어 중소기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만약 지원확대지수가 0.5보다 작고 만족도가 2.0점(불만족)이하인 경우에는 그 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 만족도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본질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 12개 지원 부문별 SEI분석

(1) 경영·정보화 지원제도

우선 경영·정보화 지원제도에 대한 지원확대지수(SEI)를 산출한 결과 지수값이 1보다 큰 세부제도를 찾을 수 없었고, 경영·정보화 지원제도 중 가장 높은 지수값을 갖는 세부제도는 '중소기업 정보화 종합컨설팅 사업'(0.83)이었다. 동제도의 만족도는 3.0점(보통)으로 제도의 질적 개선이나 제도의 지원내역에 보강이 요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SEI 2위는 '중소기업애로사항 정기조사' 0.70에 만족도는 3.0점이었으며, SEI 3위는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발' 0.67에 만족도 3.0점이었다. SEI가 0.5보다 작고 만족도가 3점보다 낮은 세부제도들로는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2.9점),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2.8점), '소자본창업경영개선 설명회'(2.8점), '경남도우미 자문단 운영'(2.7점),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2.8점)으로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는 그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에 대해 보다 냉정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 만족도가 3.0점 이상이지만 SEI가 0.5보다 낮은 ‘경영혁신교육’(3.2점)과 ‘구조개선 고도화 사업’(3.1점)에 대해서는 지원제도의 확대보다는 홍보활동과 교육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표 II-125> 경영·정보화 지원제도의 SEI

세부제도별 만족도	SEI	개편방향과 전략			
		지원확대	제도개선	교육·홍보	지원방법개선
중소기업 정보화 종합 컨설팅 사업(3.0점)	0.83	○	○		
중소기업 애로사항 정기조사(3.0점)	0.70	○	○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발(3.0점)	0.67		○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교육사업(2.8점)	0.62		○		
기업경영 정보제공(2.9점)	0.58		○		
중소기업 DB구축(3.0점)	0.54		○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2.9점)	0.48				○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2.8점)	0.45				○
중소기업 정보화 혁신 전문기업(TIMPS)사업(3.0점)	0.44				○
경영혁신교육(3.2점)	0.43			○	
소자본창업경영개선 설명회(2.8점)	0.39				○
구조개선 고도화 사업(3.1점)	0.39			○	
경영도우미 자문단 운영(2.7점)	0.34				○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2.8점)	0.31				○

(2) 경영안정지원제도

다음으로 경영안정지원제도에 대한 SEI분석을 해 보면,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3.4점)이 0.84로 가장 높은 SEI가 산출되었고, ‘외국인산업 연수제도지원’(3.2점)이 0.70으로 2위,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3.1점)이 0.57로 3위로 나타나 이들의 제도에 대한 지원확대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도의 홍보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할 세부제도로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3.0점)이 선별되었고, 여타 제도들은 그 존재여부를 냉정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표 II-126> 경영안정지원제도의 SEI

세부제도별 만족도	SEI	개편방향과 전략			
		지원확대	제도개선	교육·홍보	지원방법개선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3.4점)	0.84	○			
외국인산업 연수제도지원(3.2점)	0.70	○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3.1점)	0.57	○		○	
제조물 책임제도(PL) 대응지원(2.8점)	0.39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3.0점)	0.38		○		
해외전문인력도입 및 연수지원(2.8점)	0.32				○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지원(2.6점)	0.27				○

(3)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제도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제도 분야에서는 ‘시험검사지원’(3.2점)이 SEI 0.99으로 1위를 차지했고, ‘계량/계측기 교정 검사지원’(2.9점)이 0.73로 2위를 차지했으나 그 만족도가 3점보다 낮아 제도의 질적 제고와 지원내용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위인 ‘효율기자재 소비효율 측정시험’(3.2점)은 0.67이었고, 4위인 ‘이동순회 교정 및 생산 현장 기술자 교육지원’(2.8점)은 0.58로 만족도가 3보다 작아 지원의 질적제고와 지원내용의 보강이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시험·연구개발지원’(3.2점), ‘시험결과의 해석 및 조사지원’(3.4점) 등은 인지도와 활용도는 떨어지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표 II-127> 공산품 시험·분석·연구지원제도의 SEI

세부제도별 만족도	SEI	개편방향과 전략			
		지원확대	제도개선	교육·홍보	지원방법개선
시험검사지원(3.2점)	0.99	○			
계량/계측기 교정 검사지원(2.9점)	0.73		○		
효율기자재 소비효율 측정시험(3.2점)	0.67	○			
이동순회 교정 및 생산현장 기술자 교육지원(2.8점)	0.58		○		
설비사용지원(3.0점)	0.49		○	○	
시험·연구개발지원(3.2점)	0.37			○	
민속공예품 품질인증(3.0점)	0.00		○	○	
시험결과의 해석 및 조사지원(3.4점)	0.00			○	
창업보육센터(B) 입주지원 제품품질인증(3.0점)	0.00		○	○	

(4) 기술혁신지원제도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세부부문들을 살펴보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3.5점)이 0.81로 1위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지원사업’(3.0점)이 0.79로 2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3.5점)이 0.70으로 3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4.1점)이 0.60으로 4위를 차지하여 이상의 4개 세부부문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SEI가 0.5보다는 작지만 만족도가 3.0을 초과하는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3.1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3.1점),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3.1점),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3.2점)제도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에 대해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표 II-128> 기술혁신지원제도의 SEI

세부제도별 만족도	SEI	개편방향과 전략			
		지원확대	제도개선	교육·홍보	지원방법개선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3.5점)	0.81	○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지원사업(3.0점)	0.79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3.5점)	0.70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4.1점)	0.60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3.1점)	0.46			○	
산업기술 정보제공(2.9점)	0.44				○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사업(3.0점)	0.40		○	○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2.8점)	0.35				○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3.1점)	0.34			○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3.1점)	0.33			○	
기술평가보증(3.0점)	0.27		○	○	
기술평가제도(2.9점)	0.19				○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3.2점)	0.12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3.0점)	0.09		○	○	
기술우대보증제도(2.7점)	0.08				○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사업(2.7점)	0.00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2.8점)	0.00				○

(5)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산업단지 분양’(3.3점)이 0.70으로 1위,를 차지했고, ‘농공단지 분양’(3.1점)이 0.70으로 2위, ‘창업관련 세제지원’(3.1점)이 0.69으로 3위, 기업유치 보조금지원(3.1점)이 0.51으로 4위를 차지 이들 제도들은 SEI가 0.5보다 높고, 만족도도 3.0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기업유치에 대한 만족도와 SEI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지원 방법 개선의 고려가 필요하다.

<표 II-129>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제도의 SEI

세부제도별 만족도	SEI	개편방향과 전략			
		지원확대	제도개선	교육·홍보	지원방법개선
농공단지 분양(3.1점)	0.70	○			
지방산업단지 분양(3.3점)	0.70	○			
창업관련 세제지원(3.1점)	0.69			○	
기업유치 보조금지원(3.1점)	0.51			○	
국내기업유치(2.9점)	0.35			○	

(6)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

<표 II-130> 벤처·여성기업 육성 창업지원제도의 SEI

세부제도별 만족도	SEI	개편방향과 전략			
		지원확대	제도개선	교육·홍보	지원방법개선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2.9점)	1.00	○	○		
대학생 창업지원(3.1점)	1.00	○			
벤처기업 세제지원(3.1점)	1.00	○			
벤처기업 확인제도(3.4점)	1.00	○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3.1점)	1.00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3.0점)	1.00	○	○		
신기술지역펀드 운용(4.3점)	1.00	○			
실험실 벤처 창업지원(3.0점)	1.00	○	○		
엔젤에 대한 세제감면(3.0점)	1.00	○	○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우대(3.1점)	1.00	○			
창업 강좌(2.1점)	1.00	○	○		
창업보육사업 지원(2.8점)	1.00	○	○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제도는 그 지원확대지수가 모두 1의 값으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신기술지역펀드 운용’은 그 만족도가 4.3점으로써 이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확대 지원해야 할 부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만족도가 3.0미만인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2.9점), ‘창업보육사업 지원’(2.8점), ‘창업 강좌’(2.1점)등은 제도의 질적 개선 및 지원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7) 수출지원제도

수출지원제도들에 대한 SEI분석결과는 ‘상해통상사무소 운영 활성화’(3.7점)가 1.10으로 1보다 높은 지수가 산출되어 1위를 차지하였고, ‘수출기업화 지원’(3.7점)이 0.85로 2위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3.5점)이 0.76로 3위를,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3.5점)이 0.71로 4위를, ‘국제박람회 참가’(3.2점)가 0.71로 5위를 차지하여 이들 제도들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SEI가 0.5보다는 작지만 만족도가 3.0점을 초과하는 ‘수출지원센터 운영’(3.3점), ‘수출보험 가입’(3.2점), ‘투자유치활동 강화’(3.1점), ‘외국인 투자환경조성’(3.9점) 등의 제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표 II-131> 수출지원제도의 SEI

세부제도별 만족도	SEI	개편방향과 전략			
		지원확대	제도개선	교육·홍보	지원방법개선
상해통상사무소 운영 활성화(3.7점)	1.10	○			
수출기업화 지원(3.7점)	0.85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3.5점)	0.76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3.5점)	0.71	○			
국제박람회 참가(3.2점)	0.71	○			
무역전문인력 양성지원(2.9점)	0.47				○
수출지원센터 운영(3.3점)	0.47			○	
수출보험 가입(3.2점)	0.44			○	
해외마케팅 지원(2.9점)	0.44				○
투자유치활동 강화(3.1점)	0.28			○	
외국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3.0점)	0.25		○	○	
해외유통시장 진출 지원사업(3.0점)	0.24		○	○	
해외거래 강화사업(2.5점)	0.23				○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사업(3.0점)	0.20		○	○	
타겟기업 투자설명회(2.5점)	0.00				○
외국인 투자환경조성(3.9점)	0.00	○		○	

(8) 인력지원제도

5개 세부 인력지원제도들에 취업사이트 운영이 가장 높은 SEI 0.64가 산출되어 우선적으로 지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부문으로 선별되었고,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SEI가 0.5보다 낮게 산출되어 대외적인 홍보와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표 II-132> 인력지원제도의 SEI

세부제도별 만족도	SEI	개편방향과 전략			
		지원확대	제도개선	교육·홍보	지원방법개선
취업사이트 운영(3.3점)	0.64			○	
일자리창출사업(3.4점)	0.63			○	
고용촉진훈련사업(3.2점)	0.59			○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 (3.3점)	0.54			○	
공공근로사업(3.0점)	0.39		○	○	

(9) 전략산업육성제도

전략산업 육성제도 중 우선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할 세부제도로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지원’(3.3점)으로 SEI는 0.87이었다. 다음으로 만족도는 높은데에 반하여 SEI가 0.5보다 낮은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3.1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3.3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정’(3.4점) 등의 제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표 II-133> 전략산업육성제도의 SEI

세부제도별 만족도	SEI	개편방향과 전략			
		지원확대	제도개선	교육·홍보	지원방법개선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지원(3.3점)	0.87	○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지원(2.3점)	0.45				○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3.1점)	0.45			○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3.3점)	0.41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정(3.4점)	0.34			○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3.0점)	0.30		○		
두뇌한국 특화분야 육성(3.0점)	0.00		○		
반도체연구기반 혁신산업(3.0점)	0.00		○		
차세대반도체 설계인력 양성(2.7점)	0.00				○

(10)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

중소기업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수출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대외적 홍보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 이다.

<표 II-134> 중소기업 사기진작제도의 SEI

세부제도별 만족도	SEI	개편방향과 전략			
		지원확대	제도개선	교육·홍보	지원방법개선
유망 중소기업 발굴(3.6점)	0.90	○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3.5점)	0.74	○			
전통공예산업 육성(3.8점)	0.61			○	
수출의 날 행사(3.3점)	0.45			○	

(11)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들에 대한 SEI분석결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3.3점)이 0.73로 1위를 차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부문으로 선별되었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3.3점)이 0.67로 2위를,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3.2점)이 0.60으로 3위를, ‘중소·벤처 창업자금’(3.2점)이 0.51로 4위를 차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비록 SEI는 0.5보다 낮지만 만족도가 3.0을 초과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3.2점)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3.4점) 등의 제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교육이 필요하다.

<표 II-135>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의 SEI

세부제도별 만족도	SEI	개편방향과 전략			
		지원확대	제도개선	교육·홍보	지원방법개선
경영안정자금 지원(3.3점)	0.73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3.3점)	0.68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3.3점)	0.67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3.2점)	0.60			○	
중소·벤처 창업자금(3.2점)	0.51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3.2점)	0.46			○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3.0점)	0.43		○	○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2.8점)	0.39				○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2.9점)	0.35				○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3.0점)	0.35		○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3.4점)	0.33			○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지원제도(3.0점)	0.33		○	○	

(12) 판로지원제도

판로지원제도 들에 대한 SEI분석결과는 ‘단체 수의계약제도’가 1을 초과하는 1.75로 우선적으로 지원확대를 해야 할 부문으로 선별되었고, ‘도내중소기업제품 선물큰잔치’(2.9점)의 경우에는 0.53으로 0.5보다 높은 SEI가 산출된 반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제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외 제도들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 II-136> 판로지원제도의 SEI

세부제도별 만족도	SEI	개편방향과 전략			
		지원확대	제도개선	교육·홍보	지원방법개선
단체 수의계약제도(2.9점)	1.75		○		
도내중소기업제품 선물큰잔치(2.9점)	0.53		○		
채래시장 환경개선(2.7점)	0.33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건립(2.8점)	0.35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3.0점)	0.34		○	○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2.9점)	0.33				○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3.0점)	0.41		○	○	

제 3 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 제 1 절 국내·외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례
- 제 2 절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스템 개선

제 3 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제 1 절 국내·외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례

1. 국내사례

1)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절차를 원스톱(One-Stop)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 III-1>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절차 단계별 개선내용

구 분	개 선 내 용
1단계(~2003. 4. 1)	융자추천과 신용보증신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일원화
2단계(~2003. 9. 1)	3개 시중은행 융자추천, 신용보증신청, 대출신청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 개선
3단계(2004년 중)	서울시 소재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

자료 : 박중권,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절차 효율화방안,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이러한 원스톱체제의 구축으로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월 평균 대출건수가 4.1배 증가(월 148건→611건)하였고, 총지원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기업체의 기관방문회수가 최고 9회에서 2회 방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연간 약 16억원의 간접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신청서류가 최고 45%~최저 25%까지 감축되었다. 경영자금 대출 신청의 경우 최소 16종~최대 26종에서 최소 10종~최대 19종으로 감소하였고,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최소 22종~최대 32종에서 최소 12종~최대 21종으로 감소하였다. 넷째, 대출기간의 경우 최고 15일~최소 4일까지 단축되었다. 신용대출은 최소 21일~최대 50일 소요되던 것이 최소 14일~최대 25일로 단축되었다.

다섯째, 대출 실행율이 대폭 상향 조정(4개월 동안 67%→95%)되어 서울시의 행정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여섯째, 신청장소가 1개소(2003.3.31 이전)→7개소(2003.4.1)→760개소(2003.9.1)→1,300개소(2004년)로 대폭 확대되어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일곱 번째,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인력 감축(8명→5명)이 가능하였고, 두 기관에서 실시하던 현장실사가 한번만 하게 되어 위탁수수료의 대폭 인하(1/2)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428억원의 서울시 예산절감을 가져 올 수 있었다.

2) 충청남도

충남도는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충청남도, 2003).

(1) 중소기업 지원체계구축

-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 : 신속하게 기업경영정보를 제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
- 기업인대회 개최 : 우수기업인을 선발·표창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업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
- 유망 중소기업 육성 : 유망 중소기업의 자공심 고취와 일반 기업에 기술개발 및 지역사회 기여 동기 유발
- 여성기업 육성시책 추진 :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의 활력소가 되는 경제주체로 육성
-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 기업의 애로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제 구축
- 기업전용 충남 넷망 설치 : 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e-mail 등록 구축 활용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자금지원 : 시설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
- 신용보증재단 역할 제고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
- 유통산업 활성화 추진 :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에 대처하기 위해 재래시장 환경의 개선 및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3) 첨단기술 개발지원

-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 아이디어와 기술을 소지한 예비창업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함
- 산학연 컨소시엄 : 대학 및 연구소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당면하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역협력 연구 센터(RRC) 지원 : 지방대학의 기초 및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결과를 지역기업에 제공
-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설치지원 : 산·학·연·관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특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및 창업촉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 충남 테크노파크 운영 : 우수 특정화된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천안밸리 구축
- 기술개발협력 사업 : 대덕연구단지 국책연구기관의 인력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함

(4) 판로지원 및 통상지원

- 판로확대 지원 : 판로망과 홍보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도가 공공 및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구매확대 추진
- 전자상거래 지원 :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
- 무역역량 제고로 수출 활성화 : 내수 위주 기업을 발굴해 수출역량 제고, 무역마인드 확산
-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중심에서 유럽, 중남미로 수출선 다변화하기 위한 지원
-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 서울·해외사무소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외 마케팅 지원
- 해외사무소 활용 수출촉진 : 뉴욕, 구마모토, 상해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활동을 지원해 수출활동 촉진

(5) 산업인력난 해소 및 노사화합

- 효율적인 산업인력 지원체계구축 : 자체 고용안정 정보망을 구축해 산업인력의 원활한 공급추진

- 노사화합행사 개최 : 근로자의 사기를 높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노사 관계정립을 통해 노사안정 유도

(6) 산업의 전문화 지원

- 민속공예산업 육성 : 전통공예산업의 계승 발전 및 다양화 추진
- 중소기업디자인 개발 육성 :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상품경쟁력 강화
- 공예업체 「체험 학습관」 설치 :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학습장화 및 도예산업 전 통의 계승 및 발전
- 품질경영활동 활성화 촉진 지원 : 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이익 및 안전 도모
- 해외유명 규격인증 획득 지원 :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 강화, 인증 비용지원(ISO, QS 취득비용의 일부지원)

(7) 특화산업 육성

- 세계인삼엑스포 개최 : 인삼의 세계화 및 인삼산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한국인삼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인삼에 대한 효능 연구 및 기술개발 : 인삼의 효능 연구·기술개발을 통해 객관적 홍보자료를 확보하여 인삼산업의 세계화 촉진

(8)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계획

- 지역의 잠재력과 산업특성을 바탕으로 산업발전전략 수립, 지역 잠재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산업구조 조정, 벤처 및 중소기업의 종합적 지원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
- 전자/정보기기 집적화단지 조성사업(2003~2005) : 전자부품장비업체, 창업보육연구기관 유치에 위한 기반 조성(민자사업)
- 디스 플레이션 산업지원 센터 건립(2002~2006) : 전자부품연구원 분원 유치, 국제교류지원센터 등 기업협력·교육센터 설치

- 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센터 설립(2002~2006) : 영상미디어벤처센터, pilot plant 설립 등
-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건립(2003~2006) : 축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으로 확대·조성 검토
- 충남 산업기술진흥 센터 : 기술·정보교류 및 R&D 동향 수요조사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충청남도가 매우 다양한 산업시책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집적화시설 개발, 테크노파크 개발, 산업연구센터 설립 등에 사업비를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육성자금은 지원 규모로는 가장 크지만 그 대부분이 은행의 대부로 잡혀있어 자치단체의 실제적인 지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 더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은행대출이 용이해지면서 자치단체의 금융지원에 대한 기업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2. 외국사례

1) 독일

(1) 금융지원

특별기금, 정부 예산 등을 통해 창업 지원, 자기자본 지원, 기술혁신자금 지원,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유럽내에서 가장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춘 국가 중의 하나이다. 정부 차원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지원은 ERP 특별기금에 의한 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 ERP 특별기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47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마샬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유럽경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원조금으로 조성되었으나, 1966년부터 독일 연방정부의 특별자산으로 전환되었고, 1949년에 60억 마르크였던 자본금이 1997년 1,630억 마르크에 달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채원은 아니지만, 1997년 전체 지원금액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79.5%에 달했다.

동 기금의 지원조건은 1998년 기준으로 연리 4.0~5.5%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8~9%)에 비해 매우 유리하며, 지원기간도 10~20년의 장기이다.

(2) 창업지원

ERP 특별기금의 가장 대표적인 지원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장기저리융자이다. 외국기업도 동독에서 합작투자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독일조정은행(DTA)이 취급하며 1999년에 동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16,562개사가 있다.

(3) 자기자본지원

기업가 개인에 대한 대출이며 융자금은 기업가의 자산으로 기업 회계상 자기자본이 되고, 동 원은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외부자본의 차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연방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지원받기 위해 별도의 보증이 필요 없으며, 1999년에 동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10,982개사가 있다.

(4) 소규모 기술집약 기업을 위한 자본참여

기술지향적인 창업기업과 신생기업의 초기 5개년간의 소요자금을 벤처캐피탈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특별지원프로그램으로,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원재원은 ERP 특별기금이다. 각 주에 존재하는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 형태의 자본투자금융회사가 중소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동 회사들의 재 금융을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이며, 독일재건은행과 독일조정은행이 함께 취급한다.

재건은행에 융자금형태로 준비금을 예치하여 소규모 기술 집약형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인 반면, 조정은행은 자회사인 기술자본 투자금융을 통해 직접 투자한다.

재건은행을 통한 대출한도는 100만 마르크(구동독지역은 200만 마르크) 이내에서 자본투자금융회사 자본 참여액의 75%(구동독지역은 85%)이며, 1999년에 동 방식의 벤처캐피탈 지원액은 150억 마르크에 도달했다.

(5) 초기자금지원

소액자금을 필요로 하는 창업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199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대상은 서비스업, 창업기업이다. 이밖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벤처캐피탈)를 위한 기업혁신지원프로그램, 엔젤네트워크 구축, 또한 금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One-Stop-Network를 구축 중이다.

<표 III-2> ERP 특별기금에 의한 주요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지원용도	지원 기구	융자금모 (천 DM)	지원 금리(%)	대출기간	거치 기간
지역경제구조개선 프로그램(구서독)	GA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GA지역 중소기업	KFW	1,000	5.00	10/15년	2년
자기자본지원 프로그램	제조업 또는 자유업 창업자	KFW	1,000(서독)	7.25	20년	10년
			2,000/5,000(동독)	6.75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 기업인수 등	DTA	1,000(서독)	5.00	10/15년 (15/20년)	3년 (5년)
			2,000(동독)	4.50		
자본참여지원 프로그램	민간 자본참여회사에 대한 채용자	KFW	1,000(서독)	사안별	10년 (15년)	-
			2,000(동독)			
신용보증금융기관에 대한 용자	신용보증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KFW	사안별(서독)	3.00	10년 (15년)	5년
			사안별(동독)	1.00		

2) 영국

(1)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원칙과 방향

영국은 소외계층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낙후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지방중소기업의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측면을 중시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영국 등 선진국의 지방중소기업 및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영국정부는 중소기업이 정보와 지원제도를 쉽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정책기관이나 정책방향 등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종래부터 잘 알려져 온 영국의 대표적 One-Stop 기업지원기관인 Business Link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와 함께 조직의 변화를 위해 SBS를 새롭게 설치하고 있다.

(3)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 증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자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나, 우리나라와 달리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존의 기술 및 혁신 기반을 고려하면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스템 개선

1. 지원체계와 주요 조직별 지원 실태

1) 지원체계

(1) 지원정책의 유형과 주요내용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관련 정책은 정책 유형과 정책내용에 따라서 그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책유형은 정책 목표에 따른 구분으로 입지지원과 혁신지원이 있다. 정책 유형으로 구분한 두 정책 모두 관련 기능의 집적과 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정책의 목표 및 초점이 입지지원에 있는지 기술혁신 활성화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음 네 가지 정책 유형 중 첫째와 둘째는 입지 지원 정책의 성격을 가지며, 마지막의 두 가지는 혁신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 벤처 및 신규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입지지원 제도가 있다. 동 유형의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와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ASIC 지원센터 등이 해당된다.

둘째, 최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부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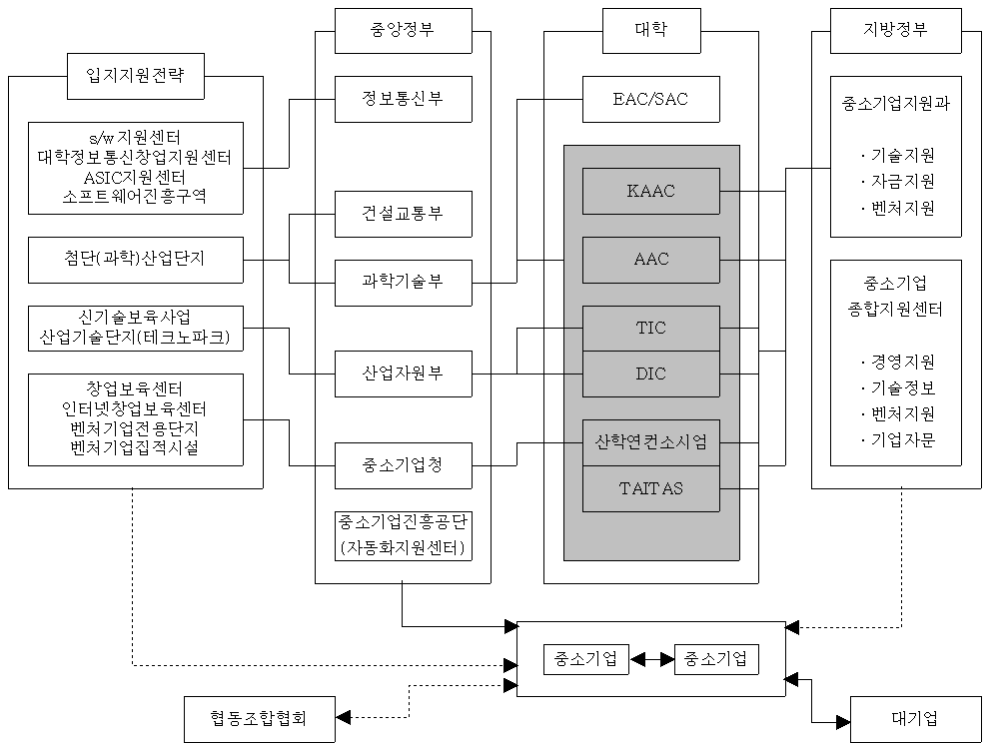
로 다양한 입지시책이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첨단과학 산업단지,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단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 과학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계 정책이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주로 대학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거나, 입지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부처가 시행하는 중요 사업으로 과기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산자부의 기술혁신센터(TIC), 중소기업청의 산학연컨소시엄 사업 등이 있다.

넷째,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학·연계를 통한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KRRC) 사업을 시작했으며, 또한 독자적으로 과학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내용에 따라서 기업지원 관련 정책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술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공공연구소(기계연구원등), 테크노파크(전북 등 6개소), TIC, SRC, ERC, RRC 등이 기술개발지원기관에 해당된다. 기술지원의 경우에는 대학, 공공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기술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고 기술지원기관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원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의 중복성이 우려되고,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못되는 경우도 많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무역협회 지부(시장개척기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지회(공제사업기금), 산업은행 지점, 은행, 신용금고 등이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다양한 자원기관을 통해 여러 종류의 자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인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해당 기업에 적합한 자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개별 자금지원 기관을 일일이 접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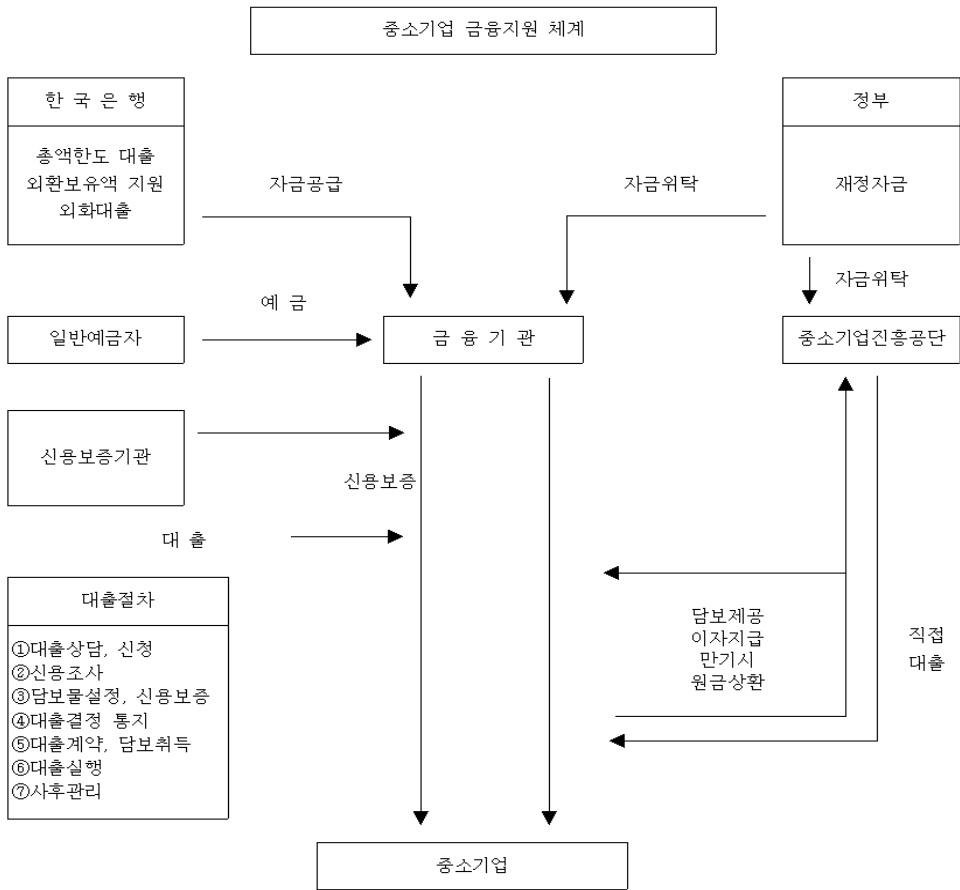


자료 : 국토연구원, 2003.

<그림 III -1> 중소기업 관련 지원 구조

셋째, 인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공고, 직업전문학교, 공공연구소(분원)등이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재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의 취업알선센터, 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사무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인력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능률협회 지부, 표준협회 지부, 상공회의소 등이 일정부분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지원의 경우에는 대학, 연구소 등의 인력훈련기능이 부족하고, 대학과 연구소 등을 망라한 통합형 교육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다. 공공연구소는 기술교육 및 지도기능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특히 이업종 기술인력 간의 교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인력알선의 경우는 구직, 구인대장만을 비치하고, 구직, 구인자가 알선기관을 일일이 접촉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림 III -2>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넷째, 수출 및 판매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중소기업청(무역금융, 수출 전문인력 지원), 무역협회 지부(해외시장개척 기금 지원), KOTRA 지역무역관(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구매상담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수출자문단 운영, 중소기업제품 해외홍보)등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수출 및 판매지원의 경우에는 수요자인 기업의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일일이 개별지원기관을 접촉해야 하므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다섯째, 정보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이노 넷 등이 거의 유일한 종합정보시스템이며, 각 기업지원기관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중앙중심의 정보제공 및 유통체계이며, 지역의 산업자원에 대한 포털 사이트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어서 지역기업이 지역의 각종 산업자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개별 산업지원기관은 다른 산업지원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유할 유인책이 없어 분야별 지원기관에 의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 인력, 판로, 기술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다.

2) 부처별·분야별·지원대상별 정책자금 지원 실태¹⁾

정부부처가 중소기업지원에 나서는 범부처적인 지원체제구축은 200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등 14개 중앙부처에 의해 241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의한 중소기업지원규모는 6조 4,817억원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도 중소기업의 지원규모는 2002년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2001년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도 중소기업지원규모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이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 과학기술부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분야별 중소기업지원 규모를 보면, 구조고도화에 대한 지원이 30.7%인 1조 9,9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술혁신, 지방·균형발전, 경영지원, 창업·벤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1~2003년 기간에 분야별 지원규모는 급격히 변화하였으나, 중소기업 지원의 기본방향이 불분명하였다.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2004) 참조. 최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그 문제점과 향후 개편방안을 평가한 바 있음

<표 III-3>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중소기업청	31,289	53.7	31,786	53.8	37,145	57.3
국방부	106	0.2	101	0.2	160	0.2
과학기술부	2,310	4.0	2,063	3.5	2,226	3.4
문화관광부	1,633	2.8	2,029	3.4	1,637	2.5
농림부	397	0.7	852	1.5	1,157	1.8
산업자원부	11,380	19.5	11,913	20.2	11,974	18.5
정보통신부	5,505	9.5	3,960	6.7	3,553	5.5
보건복지부	45	0.1	85	0.1	163	0.2
환경부	1,407	2.4	1,344	2.3	1,203	1.9
노동부	3,465	5.9	3,394	5.8	3,537	5.5
여성부	0	0.0	0	0.0	100	0.2
건설교통부	309	0.5	1,083	1.8	1,427	2.2
해양수산부	405	0.7	407	0.7	476	0.7
특허청	21	0.0	26	0.0	59	0.1
합계	58,272	100	59,043	100	64,817	100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산업연구원, 2004.

특히 기술혁신, 창업·벤처기업지원은 대폭 감소, 구조고도화, 수출·판로, 정보화 지원은 증가가 특징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이나 창업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기존기업의 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 등 기업경영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것인지 등 중소기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식·정보화 산업으로의 진전에 따라 기술개발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한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설자금의 성격이 강한 구조고도화 자금의 경우 비중이 가장 크고 또한 그 비중이 증하고 있으나, 향후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는 직접지원보다 세제지원을 통한 유인체계 활용이 바람직하다.

<표 III-4>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구조고도화	14,981	25.7	16,512	28.0	19,900	30.7
정보화	427	0.7	1,181	2.0	1,370	2.1
기술혁신	13,204	22.7	12,081	20.5	12,144	18.7
창업·벤처	7,192	12.3	6,508	11.0	6,231	9.6
수출·판로	1,506	2.6	2,458	4.2	3,423	5.3
경영지원	6,932	11.9	5,979	10.1	7,385	11.4
인력	2,922	5.0	3,137	5.3	3,506	5.4
지방·균형	11,108	19.1	11,187	18.9	10,858	16.8
합계	58,272	100	59,043	100	64,817	100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산업연구원, 2004.

2003년도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를 보면, 기업지원이 5조 7541억원으로 88.8%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인프라구축, 기관보조,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88~89% 정도
- 인프라 등 기업경영환경 지원은 10%내외에 불과

<표 III-5> 지원대상별 중소기업 지원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기업지원	52,029	89.3	51,942	88.0	57,541	88.8
인프라구축	5,641	9.7	6,097	10.3	6,097	9.4
기관보조	392	0.7	779	1.3	931	1.4
기타	210	0.3	225	0.4	248	0.4
합계	58,272	100	59,043	100	64,817	100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산업연구원, 2004.

3) 전라북도의 주요 조직별 지원 실태

(1)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중소기업 육성의 기본방향은 21세기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의 선별·집중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증대, 지역기업의 해외마케팅 향상으로 수출전북 기반확충, 지역특화산업육성 통한 핵심역량 극대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자생적 경제발전 기반 조성, 선진 산업기술

인프라 지원체제 확립을 주요 정책의 기초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인 사기진작, 벤처육성 및 창업 지원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 기술혁신 지원, 인력 지원, 중소기업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재래시장 환경개선, 판로 지원, 구조개선 고도화사업, 경영·정보화 지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6> 2005년 중소기업 육성계획

사업명	내 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조업 전업을 30%이상인 중소 제조업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제조업 전업을 30%이상인 창업대상 중소 제조업체
소상공인 신용보증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혁신 교육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전문교육 실시로 기업경쟁력 강화 도모
구조개선 고도화 사업	구조개선 컨설팅 지원하여 기업혁신 체계 구축
경영도우미 자문단 운영	예비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해결방안 경영지도 실시
중소기업 애로사항 정기조사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지원정책 수립
중소기업 홈페이지개발	쇼핑몰 및 홈페이지 개발지원으로 온라인 마케팅 강화 도모
중소기업 DB구축	제품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통한 판로확보 및 매출 증대
기업경영 정보제공	경영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통한 중소기업 정보 불균형 해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건립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구현
재래시장 환경개선	침체된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을 통하여 활성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중간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도내 우수제품 직판행사	대형유통점 판매를 통한 제품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포장, 카탈로그 등 디자인지원을 통한 제품의 상품 부가가치 증대
산업박람회 참가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동기부여 및 업계간 정보교류 확장
전북제품 선물 큰잔치	명절 직거래행사를 통한 생산자·소비자의 상호이익 도모
도매제품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독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기업으로 육성
국제박람회 참가	국내외 국제박람회에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
수출보험 가입	수출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해외지사화 사업	중소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수행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외국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	자동차, 기계부품 등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강화
투자유치활동 강화	해외의 유망기업 D/B를 구축, 홍보자료를 제작 지원
타겟기업 투자설명회	투자환경 설명과 상담 통한 투자정보제공으로 투자유치 도모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거환경 조성과 자녀교육 여건 등 개선
상해통상사무소 운영 활성화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통상활동을 지원
해외거래 강화사업	해외시장 진출여건이 취약한 기업의해외 판로 개척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중소업체 인력지원,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허브분화육묘장 인력
공공근로사업	정보화, 생산성, 서비스지원, 환경정화사업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	일자리 해소를 위한 취업 박람회
고용촉진훈련 사업	자동차 정비 등 40개 직종 취업사이트 운영
취업사이트 운영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실업자 구직난 해소 도모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	산·학·연 기술자원의 집적화로 지역 전략산업 연계체제강화와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대학의 연구자원(인력·기술·장비)을 활용하여 신기술 지원
지역기술혁신센터(TIC)	기술혁신 인프라를 조성하여 기술지원 체제 구축

산업기술 정보제공	기술환경 변화에 적응할 대응능력 배양 및 대외경쟁력 확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산업집적지의 혁신클러스터로 전환과 협력
해외규격인증 획득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국내기업 유치	우수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방산업단지 분양	창업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유도로 미분양 해소 및 난개발 방지
농공단지 분양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와 공장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수도권 등 타 시·도 소재 기업의 도내 이전 촉진
창업관련 세제지원	국내기업 입지별 지원내용, 지방이전기업의 지원내용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저리의 시설·운전자금 지원을 통한 자금난 해소 및 창업 도모
신기술 지역 펀드 운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출자자금 증식으로 세외수입 증대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대학 재학 중 창업에 관한 연구·조사활동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벤처기업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도내 벤처기업의 우수제품 전시 및 기술혁신의 중요성 홍보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	고용창출, 매출신장, 도매생산 원자재 활용, 지역발전공헌
전통 공예산업 육서	전라북도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및 전국공예대전 출품
수출의 날 행사	무역의 날에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에 대한 시상
유망 중소기업 발굴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 인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발굴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건립	센터건립, 장비도입, 창업지원, 기술개발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건립	센터건립, 장비도입, 창업지원, 기술개발
나노기술 집적센터 구축	나노기술 공정·장비 구축 지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정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생산기반 산업체 집적화, 핵
지역협력연구센터(RIRC) 운영	연구센터를 공동지원 중점기술을 연구 개발
두뇌한국(BK 21) 특화분야 육성	신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반도체연구기반 혁신사업	대학내의 화합물 반도체 연구시설 보완 및 실험공장 장비구축,
차세대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반도체 설계 분야 산업의 창업 및 유치에 유리한 기반 조성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	IT발전을 주도할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

자료: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내부자료, 2005.

(2) 중소기업청 전북지부

중소기업청 전북지부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생물(발효)산업 중점 육성, 향토산업 발굴 지원, 전북지역 R&D관련 지역협의체 구축,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 창업보육사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지원,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및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내수기반 확충 및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인력난 해소지원, 판로 및 수출경쟁력 지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지원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하고 있고, 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 및 현장애로 지원은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은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활성화, 중소기업지원 실무위원회 운영, 중소기업 정책 홍보강화를 하고 있다.

<표Ⅲ-7> 중소 기업청 전북지부 중소기업 지원 실태

사 업 명	내 용
발효식품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벤처촉진지구 내 전북생물벤처센터의 산업기반 조성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지원	매월 30업체 이상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 발굴
향토 산업 지정 지원	지역별 향토 산업 선정 지원
향토 산업 지원	향토 산업 지원협의회 운영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지역네트워킹 구성·운영
연구시설 부족 등 열악한 기업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연구시설 지원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 창업보육기능 강화	경쟁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창업보육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입주기업 판로 및 기술개발 지원 강화
창업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창업 실무지식 제공을 위한 창업 강좌 개최
벤처기업 확대 및 벤처투자 여건 조성	벤처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홍보
벤처촉진지구 활성화 추진	첨단벤처단지 확장 및 생산시설 확충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지역특화업종 중심으로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발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적극 발굴 및 육성	신용대출, 기술개발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의 참여시 우대
다양한 형태의 기술개발지원	최적의 생산 공정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지원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의 집중지원 및 특성화 유도
중소기업 현장기술지도 강화	기술지도 사업의 내실화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제고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연구지원	품질확인용 시험·분석 및 검 교정 의뢰시 서비스 강화
시험분석·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운영	지역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등을 지원
지역혁신 포럼 운영	학회 중심의 포럼을 개편하여 활성화 도모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기관,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등 협조체제 구축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 내 산학협력 위원회 참여지원
정책자금 효율적 지원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자금선정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독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
생산현장 인력난 해소 지원	인력지원시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홍보 강화
중소기업 우수인력 지원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 해소를 위한 장비개발 및 보급지원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내수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 참여 확대
해외신규·틈새시장 개척 지원	신규시장 개척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중소기업 수출의욕 제고 지원	중소제조업체의 CEO및 직원 대상의 수출전문교육 실시
현장 중심의 수출지원	원거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동 수출 지원 센터 운영
해외 마케팅 정보제공	Wal-Mart 등 미국 유통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매 홍보 지원	국내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
소상공인 자금 및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책자금 지원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외 판로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지원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사항 파악
“고객 만족의 날”지정 운영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인과의 상시 상담 가능 채널 유지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전화를 휴대폰으로 연결
지원 사업 탈락업체 사후관리	지원 사업 탈락업체를 대상으로 대처방안 마련
개방 회의실 운영	회의실을 중소기업 또는 유관기관이 무료로 활용토록 개방

자료: 중소기업청 전북지부 내부자료, 2005.

(3)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 센터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지속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혁신 교육지원, 홈페이지개발(웹호스팅)지원사업, 중소기업 지원시책 조사연구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우수제품 판매지원사업, 중소기업 DB 구축사업, 경영정보 제공사업, 취업사이트(JB-work) 운영사업, 도우미자문단 운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사업으로는 해외거래지원사업, 외국어 통·번역 및 무역지원, 중국진출 시장조사단 운영, 산업박람회개최 및 참관지원, 우리제품 선물큰잔치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위탁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전라북도공예품경진대회, 상해통상사무소 위탁운영, 전주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I-8>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 센터 지원 실태

사 업 명	내 용
중소기업 경영혁신 교육지원	중소기업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전문교육 과정 개발운영
홈페이지 개발(웹호스팅)지원사업	온라인 시장개척을 위한 쇼핑몰 및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조사연구사업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분석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제품 부가가치증대를 위한 포장, CI, 카탈로그 디자인 개발지원
우수제품 판매 지원사업	도내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 대도시 특판 행사개최
중소기업 DB 구축 사업	도내 기업의 생산제품, 보유시설을 망라하는 종합 DB구축
경영정보 제공 사업	지원센터 사업과 유관기관 지원시책의 종합적 안내
취업사이트 (JB-work)운영사업	전북지역 특화 인터넷 구인/ 구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도우미자문단 운영사업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애로사항을 상담/지도/해결
해외 거래 지원 사업	통·번역 업무와 무역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산업박람회개최 및 참관지원	국내외 신기술·신제품동향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
우리제품 선물큰잔치	홍보 및 판매 촉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전라북도 공예품 경진대회	지역특성과 창조적 기술이 잘 표현된 전북 대표공예품 발굴
상해통상사무소 위탁운영	사무소 설립·변경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

자료: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 센터 내부자료, 2005.

2.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스템 개선

최근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사업평가가 이

루어지는 환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성과분석 결과, 좋은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가용성 등 차별화된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기관 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정책은 통합·폐지 등 정책일몰제의 적시 적용이 필요하다.

1) 주요 중소기업 육성 과제

(1) '보호'위주의 중소기업정책 탈피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이념은 보호와 육성이다. 글로벌화 된 시대에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보호속에 생존하기는 불가능 하다. 시장경쟁의 결과로 중소기업이 퇴출되는 경우에 그것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면, 중소기업이 경쟁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경쟁의 속성상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우산 아래 취해온 보호정책은 최소화하는 대신에 중소기업이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주요기업정책의 기본목표를 대기업과의 격차시정에서 다양하고 활력 넘치며 독립적인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으로 수정하고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한다기 보다는 중소기업간 원활한 경쟁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중소기업 관련법의 정비

중소기업 관련법의 단순·간소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관련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중소기업 청 소관 11개 법률 등 복잡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관련법은 분류기준을 합리화하고 특례법을 정비하는 등 법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관련법을 소수의 단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편이 필요하다. 대만의 중소기업 관련법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나 직접적인 보호·육성보다는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간접적인 지원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련법을 조항 및 내용면에서 단순화 시켜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단순화 시켜야 한다.

(3) 지원제도의 정비와 차별화된 지원

최근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기술혁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의 비중은 높은 반면 인프라구축의 비중은 낮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기술혁신이나 창업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기존기업의 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인지 등 중소기업 지원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사중복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일몰제' 적용 등 지원제도의 운용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책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들은 적시에 전환되지 못하여 정책 환경 변화와 지원정책 불변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나 정책은 새로운 제도에 통합 하든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정책일몰제의 적시 적용이 필요하다.

(4) 진입·퇴출을 억제하는 제도개선

경제 내에 존재하는 진입장애요인과 퇴출장벽을 조기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고유 업종 제도 및 지정계열화제도를 폐지하고, 향후 중소기업부문에서 정책규제의 완화, 경쟁영역의 확대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전조정제도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경쟁제한적인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공공구매의 원칙인 일반경쟁구매의 예외로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가 공존한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이 선정되고 그 선정된 계약상대방이 그대로 납품업체가 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의 진입 및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경쟁 입찰제도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인 구조 재설계

정부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과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을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기하려고 하였으나,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녀 왔다.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질적 협력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데에는 협력을 유도하는 유인제도가 존재
- 일본자동차 산업은 부품업체의 등급제 등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간리제도 시행
- 비용인하와 기술개발성과를 공정하게 배분, 부품생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체제로 협력을 강화

2) 행정지원체제 개선방안

(1) 리얼 서비스 체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개별 지원기관에 의한 일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지원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시급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으나, 개별지원기관은 지원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체제가 결국 공공기관 및 각종 지원기관 주도의 추진체제로 되어 중소기업 등 실수요자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추진체제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종래의 공급자 주도형 지원체제에서 수요자인 지역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행하는 지원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리얼 서비스’ 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지원정책과 지원기관이 존재하지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지원기관이 중소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을 즉각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즉 각종 리얼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지원체제의 정비를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리얼 서비스 체제의 조직

각 산업지역에 집적된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에 기초한 유연적이고 전문화된 생산 체제를 추구하면서 국지적인 사회적 분업체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의 유연한 생산력과 수요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력을 바탕으로 경제현상의 변화과정에 성공적인 적응력을 보였다. 이것이 지역의 경쟁우위요소로 작용하면서 지역경제 성장이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각 산업지역별 특성에 맞는 리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특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리얼 서비스’들이 추진되어 한다.

<표 III-9> 리얼 서비스 지원 구조

구 분	리얼서비스 지원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	산업별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술이전센터 · 품질연구·인증센터 · 산업자동화 서비스센터 · 공공사업 수·발주 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전략산업 정보센터 · 지역전략산업 기술센터 · 지역전략산업 지원센터 · 지역전략산업 연구·시험센터

리얼 서비스 시스템은 크게 산업별 서비스센터와 범 산업적 서비스센터로 구분된다. 전자는 산업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자는 혁신, 기술이전, 그리고 생산 자동화 등과 같은 전 산업을 포괄하는 관심분야를 다루고, 이와 관련된 각종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전 산업분야에 제공한다.

따라서 정책 수립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이 구상되고 실행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서 지역의 산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중소기업지원 센터 및 협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전라북도 산업이

나아갈 비전을 명확히 설정한 다음 구체적인 정책을 기획·시행해야 한다.

(3) 리얼 서비스센터의 역할

‘리얼 서비스센터’의 주요 활동영역은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기술 이전, 제품 테스트 및 시연, 제품 및 생산 공정에 대한 품질 인증, 기술 및 시장 동향 등 각종 사업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야 한다. 각 리얼 서비스센터들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범 산업적 서비스센터인 ‘지역기술이전서비스센터’와 산업별 서비스센터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는 ‘산업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이전센터는 기술이전과 혁신프로젝트 추진, 기술혁신과 경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 기술이전 파트너 탐색, 기술정보 제공, 자금 조달, 그리고 타 기관들과의 대외 협력관계 증개 등의 측면에서 매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이전센터는 기술이전 프로젝트의 결과를 지역 중소기업들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워크샵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뉴얼, 가이드, 신문 및 기타 출판물 등과 같은 명시적 형태의 지식화 작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다양한 학습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흐름과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기술이전센터는 중소기업들과 지역 대학 및 연구소를 포괄하는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산·학·연 네트워크의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지역기술이전센터를 비롯해 지역의 주요 대학과 지원기관, 그리고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학·관 협력체계 강화

중소기업은 다양한 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술력의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 독자적인 발전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각종 체제 및 기구를 활용하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에 있는 산업계, 학계, 관계가 서로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산·학·관 협력 체계 구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산·학·관 협력체계가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

간이 흐를수록 산·학·관 협력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산·학·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산·학·관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는 실제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하며, 지역대학의 인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제품과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보다는 산·학·관 협력체계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다.

첫째, 중소기업·지역대학의 공동연구·협동연구 활동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대학의 기초연구를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연구, 지역대학의 발의로 복수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 중소기업 발의로 행하는 공동연구 등을 적극 실시한다.

둘째, 지역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지도와 컨설팅 활동을 강화한다.

셋째, 대학 연구성과에 의한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넷째, 대학의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기술을 토대로 마케팅 기능을 결부시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벤처창업 활동을 강화한다.

3)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원센터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지사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①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 등의 제공
- ②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 ③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 ④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 ⑤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 ⑥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둘째,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역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역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운영 및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및 기능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여타 지원센터의 제반 활동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중소기업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센터의 기능 강화 및 추진과제를 정립한다.

4)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1) 지원센터의 중점 방향

첫째,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자금조달, 판로개척, 기술지원, 법률 및 세무지원 등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위해 전문가 파견, 보조금지원, 금융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보다 가까이 보다 충분히 듣고, 애로점 및 해결과제를 분명히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종 지원기관으로 안내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각종 경영자원의 지원을 추진한다. 국제화, IT혁명, 환경제약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경영력

신을 위한 전략수립과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보조금, 융자 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인력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많이 알고 있는 공공 인력(예로 자치단체 공무원, 상공회의소 직원 등)과 경영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민간 인력(고객 지향적인 발상을 가지며, 전문분야의 지식과 넓은 인맥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지원인력과 민간 지원인력이 가진 강점을 모두 결합하여 광범위한 부문의 지원을 행하는 것이 지원센터 목적의 하나이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센터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2) 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

첫째, 전라북도 중소기업에 적합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지원센터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즉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동시에 추진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원센터 목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에 적합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한다. 코디네이터는 중소기업의 지원요구사항과 지원센터 목표와 관련하여 적합한 인력이 필요하다. 경영지원 요구가 많은 경우 금융기관 출신의 금융전문가가 필요하며, 경영지원이나 업무협력 요구가 강한 경우에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필요하다. 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전문가로서의 열의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강한 통솔력을 가지고 새로운 중소기업지원 시책을 실천하는 변화의 리더로써 활약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관련 지원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에 있는 각종 중소기업지원기관, 즉 상공회의소, 각종 중소기업 관련 조합, 행정기관, 대학 등과 협력해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금융기관,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넷째, 중소기업과 상담할 때 하향식의 지도가 아닌,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대접하면서 상담의 능력을 발휘하는 지원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적이 아닌 상대 중소기업의 입장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신설 중소기업에게는 향후 기업운영에 많은 애로점이 기다리고 있다.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인력모집,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상품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궤도에 올랐다 해도 경영환경변화, 신규 진입기업의 위협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원센터는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실제로 지원하는 조직으로써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코디네이터와의 연결 역할을 수행한다. 시간적인 요소는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되었으며, 새로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경영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창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인맥에는 한계가 있고, 신용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쉽게 추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경험과 인맥을 가진 코디네이터와 연결시켜 주는 매칭 코디네이터로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곱째,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세미나와 교류·연구회를 활성화시킨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세미나와 연구회 등을 개최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식개혁이나 자극을 주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지원센터의 활동을 확장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활동이다.

여덟째, 광고활동을 강화한다. 지원센터를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광고활동은 중요하다. 보다 친밀감 있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많은 광고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사정에 적합한 지원센터 광고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상담의 축적(DB화)과 활용이 필요하다. 지원센터에 상담하러 오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또한 지원의 질적인 향상과 효율화를 위해 정보화(IT)를 활용한 상담기록의 축적이 필요하다.

열번째, 지원서비스의 평가와 평가기술의 향상이 도모되어야 한다. 지원센터의 업무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조사하는 평가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상담건수나 창업건수 등 양적인 평가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등 질적인 평가 측면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중소기업 금융활동 지원체제 구축

(1)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의 지원확대

전라북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의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확충이 필요한데, 현재의 일반회계 중심의 재원확보에서 벗어나 자금지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채인 「(가칭)지방중소기업 발전채권」의 발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채 발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미국 주요 州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이 지방채를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를 면제 해주는 등 지방세와 관련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재원확충방안으로 지역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기금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2)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지원체제 개선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의 지원체계를 기업 편의 차원에서 현재 추천기관, 보증기관, 대출실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체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단계에서는 추천기관과 보증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추천기능을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 및 보증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능력을 넘어서는 자금규모에 대한 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연계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는 추천, 보증, 대출실행을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지역에 소재하는 은행과 연계하여 기업이 거래은행지점에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을 신청하면, 당해 은행이 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추천, 보증,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은행간의 전자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연쇄도산방지체계 구축

거래기업의 도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산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거래기업의 도산은 당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연쇄도산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도산방지(경영안정) 특별상담실 설치, 경영안정대책 대출제도, 도산관련 특례보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연쇄도산을 막고, 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산방지(경영안정) 특별 상담실은 중소기업이 경영악화, 부도어음 등에 의해 도산 직전에 직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산방지 특별 상담실에는 경제 및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률가, 세무사, 회계사 등이 도산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 및 도산방지 노력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표 III-10> 도산방지 특별 상담실의 주요기능

구 분	내 용
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파악 · 당해 기업 결제어음의 처리방법 · 회생가능성 검토 및 회생방안의 검토 · 채권은행 등과의 협력 의뢰 · 도산방지용 용자관계 추천 · 도산관계법령(회사처리, 회사변경 등)에 관한 상담·지도
지역기업 도산방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 가능성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도산방지회의 개최 · 대형도산 발생에 따른 연쇄도산 가능 중소기업 대책회의 개최 · 도산정보(월별 도산건수, 기업명, 관련기업, 요인 등)의 입수·분석

경영안정대책 대출제도는 도산방지 특별 상담실에 상담한 중소기업 중에서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산관련 특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도산이나 재해 등 경영상의 심각한 변화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도산방지를 위해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복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본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6) 중소기업 신용보완기능 강화

(1) 전북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확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라북도 및 금융기관, 정부 등의 출연금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되고 있는 금융기관 출연금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도 분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적정 보증운용배수에 미달하여 운용되고 있는 보증실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증신상품 개발,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DB 구축, 전라북도 전략산업과 관련된 창업기업 보증 확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 및 비 재무정보의 효과적인 수집·축적·공유, 평가, 신용보완 등을 위하여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전라북도, 중앙정부, 금융기관, 지역기업 등이 공동 출자(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이 설립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로 지역 자금 흐름의 투명화와 건전화로 유도할 수 있고,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의 심사평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제 4 장

중소기업 육성 방안

- 제 1 절 중소기업육성의 기본 방향
- 제 2 절 중소기업의 분야별 육성방안

제 4 장 중소기업 육성 방안

제 1 절 중소기업육성의 기본 방향

1. 혁신적인 지원체계 운용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정책은 유치산업 보호론적 관점의 지원이 주류를 형성했으며, 정책기조에서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조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 할 지라도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의 자생적 혁신 노력과 결합되지 못한 정책은 그 실효성에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정책적 노력과 성과의 괴리를 낳은 주된 요인일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전 방위 체계라 할 정도로 지원이 가능한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제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의 자생적 노력과 혁신 동기를 자극하여 기업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중요한 전제 내지 고려 요인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이 경제적 합리성에만 기초할 수는 없지만, 지원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점차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지원의 일관된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되고, 경제적 약자로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기업의 혁신적·능동적 측면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 단위로서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분명한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부문도 더 이상 노동, 자본 등 외향적 요소 투입에 의존한 성장방식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원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을 자극하고 유도하는 시책을 최우선 순위로 운용하도록 해야 하며, 여타 시책도 혁신과의 연계 속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지원체계의 시장원리 적용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경쟁 촉진자로서의 기능이며, 이는 중소기업정책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촉진 기능은 독점에 대한 반독점 기능이라는 측면과 함께 중소기업 간 경쟁 촉진도 포괄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오랜 기간 동안 향유해온 현실에서 공정 경쟁 환경의 조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중소기업정책이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독과점 부문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해 초래되는 중소기업 부문의 시장 불리를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경쟁의 틀을 제대로 만들고 시장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중소기업정책의 기본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보호적 제도가 정책 의도와 달리 경쟁력 상호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초래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되고, 이는 정책적 지원의 주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의 목표와 영역도 이에 상응하여 확장될 수 있다.

과거 대기업 부문의 보완적 부문으로 간주되었던 중소기업 부문은 대기업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함에 따라 이제 성장 중추로 새로이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고 복잡한 의제를 대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기능별·분야별로 여러 부처가 고유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 부터 부처 간 역할분담, 조정 및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지역 차원의 정책이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보다는 정책을 모방, 흡수하는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급자와 수요자 양자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체제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 지원 인프라와 연계 시스템 구축

산업 경쟁력이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그 산업을 둘러싼 지원 산업의 경쟁력에 의

해 크게 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경쟁력도 정책의 개발, 집행을 뒷받침하는 지원 인프라의 역할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최근 중소기업 지원수요가 자금지원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술 개발, 판로, 거래 위험 등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사회적·공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정책에 있어 주요 지원 인프라는 전문가 풀, 기능별 지원기관, 관련 시장 등을 들 수 있는데, 지원 인프라의 정책 기여도 및 서비스 역량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원 인프라의 확충은 개입방식 변화와 정책 환경과도 밀접히 관련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크게 확충하고 관련 분야의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정책 서비스 공급과 집행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원기관과 시장의 상호보완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수단 구성과 지원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4. 시책 간 연계 및 성과 위주의 지원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지원시책의 목적이나 유용성에 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시책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나 활용이 부족하다.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보다 나은 지원효과를 실현하는 것이 정책적 고민으로 작용하게 되고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게 되는데, 각각의 시책이 별개 차원에서 운용된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시책 간 연계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함께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한된 지원재원으로 소기의 지원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들의 지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원성과를 희생한 측면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했으나 지원의 성과가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수요는 줄지 않고 지원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현실적 상황에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 할 것이다.

최근 정책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 정책도 예외가 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의 개발 집행에서 지원수요 자체 보다는 지원의 구체적 성과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수요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 정교한 성과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예산 편성 시 상당한 수준의 지원 수요조사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전체 사업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업기간이 종료된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시책이 소멸되도록 하는 시책 일몰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지원주체 간 역할 분담 체계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이 증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의 목표와 영역도 이에 상응하여 확장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차원의 정책이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보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모방·흡수하는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자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체계가 미흡한 것에서도 기인한다. 과거 대기업 부분의 보완적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던 중소기업 부분은 대기업 부분의 성장기여도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고 복잡한 의제를 대상으로 전개 될 수 밖에 없으며, 기능별·분야별 여러 지원기관이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원기관간의 역할 분담, 조정 및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 2 절 중소기업의 분야별 육성 방안

1. 경영혁신 및 정보화 촉진

1) 기본 목표

지식정보시대의 도래, 글로벌 경쟁의 글로벌화, 첨단기술 등의 빠른 진보 등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과거 경영방식에서 벗어

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체제로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배양을 지원하는 민간공급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업경영에 정보기술의 효율적인 접목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영혁신 모델 및 기법의 개발과 이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과 비교할 때는 아직 정보화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내정보화 수준을 뛰어 넘어 기업 간 혹은 지식정보화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업무정보화 수준에 기업 내 정보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정보화 시스템 도입 현황에서 중소기업은 전사적 자원관리 전자입찰시스템의 도입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대기업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 정책 방향

중소기업의 경영자 및 종업원들에게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경영혁신 필요성을 인식을 제고시키고 경영혁신 마인드를 확산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경영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기법, 지식, 경험을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미흡한 경영능력 개발여건을 보완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정보화 발전단계상 업무효율화 단계인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보다 심화하여 대기업 수준에 근접하도록 지원하고 정보화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경영혁신과 정보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추진하도록 한다.

3) 세부추진 과제

(1) 사업명: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사업 운영

○ 필요성

-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대한 경영교육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인의 업무활용도 증가를 통한 기업이윤의 극대화 추구의 필요
- 추진방법
 - 대학, 학원 등 일반교육과 차별화하고 지역산업을 감안한 특화분야 개발
 - 산업별 기업의 요청에 의한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 및 업무 활용도가 높은 교육 실시로 경영혁신

(2) 사업명: 전라북도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 클럽 운영

- 필요성
 - 이업종 교류 및 동종업종간의 교류증진을 통한 매출액 향상 및 시장경제 활성화 필요
 - 중소기업과 지원기관 간의 이행증진 및 현장애로 요인 파악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구축
- 추진방법
 - 매월 기업소식지의 발행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동향 및 상호교류 정보제공
 - 이 메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보 수시 제공
- 기대효과
 - 중소기업 소식지 발행을 통한 Off-Line활동 무대 마련을 통해 업체 홍보 대행과 유동시장 활성화

(3) 사업명: 경영진단·컨설팅 사업

- 필요성
 - 중소기업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자가 진단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책 지원 시 경영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우대 지원하여 경영컨설팅과 자금지원의 연계성 고려
- 추진방법
 -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과 재무·회계·생산·인사 등 분야별 컨설팅으로 세분화 하여 운영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4) 사업명: 중소기업 IT 센터 운영

- 필요성
 - 중소기업 간 온라인 네트워크 확대 추진
 - IT 인프라 구축으로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추진방법
 - 중소기업 IT 지원 센터 운영
 - 중소기업 정보 전략 및 컨설팅 교육 지원
 - e-Biz 운영을 위한 공동 마케팅 운영지원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5) 사업명: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 필요성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보급 및 확산,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기술정보 제공
 -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기업의 e-business 기반 구축
- 추진방법
 -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 양성
 - 정보 공유를 통한 산, 학, 연 협력체계 및 기업, 업종별 협력 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전자 상거래 활성화

(6) 사업명: 전라북도 중소기업 산업 정보망 DB구축

- 필요성

- 도내 제조업체의 정보 및 통계 제공 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업인지도 향상과 경쟁력 제고
- 실시간 자료체제 유지로 각종 기업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기회 제공
- 추진방법
 - 산업 정보망 데이터 정비 및 업데이트
 - 중소기업 관련 정보 사이트 운영
 - DB의 최신 정보화 유지를 위한 산업 조사의 지속 실시 및 정보망 운영
- 기대효과
 - 정보검색을 통한 원자재 및 생산품목 수요처 파악, 신제품 개발, 시험분석 및기자재 파악

(7) 사업명: 전라북도 산업단지 온라인 네트워크 사업추진

- 필요성
 - 도내 산업단지 간 정보교류 및 관련 정보의 직접화 추진
 - 산업단지 또는 기업 간 생산 제품에 관한 교류
 -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단지의 수요조사 필요
- 추진방법
 -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에 관한 수요조사 및 DB 구축
 - 산업단지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 기대효과
 - 산업단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

2. 인력지원 지원 정책

1) 기본목표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저숙련 균형의 악순환 상태이며, 이러한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가 인력구조 정책의 목표이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정책은 단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분단화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과감한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2) 정책방향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객관적인 근로여건 열악 요인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기피심리에 기인한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근로여건의 열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현존하는 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질 뿐이다.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사양·한계 중소기업의 단순·기능인력 부족을 완화시켜 경영난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만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 이들 중소기업 간에 원활한 수급,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안정된 자기개발이라는 중소기업의 인력양성, 배분 등 활용의 전 과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보다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의 인력에 관한 지원은 당장의 인력애로 지원, 특히 기능 단순 인력의 배분에만 치중하였다.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경우, 초·중·등 및 대학교육에서의 올바른 진로지도, 교육내용의 산업현장성 등이 제고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 활용측면에서는 재직자 교육훈련의 심각한 부진, 중소기업 재직자의 낮은 복지 혜택, 낮은 직장의 정착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구조고도화와 전략을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 검토 및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3) 세부추진 과제

(1) 사업명: 중소기업 청년 채용 패키지 사업

○ 필요성

-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인력 구인난과 전북소재 대학생들의 실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 연계 필요
-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채용과 연계시키는 청년채

용 채용 패키지 사업을 추진

○ 추진방법

- 인터넷 원격교육 등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기술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 기능 인력의 기술 인력화 추진

○ 기대효과

- 지역의 대학을 통한 대학생의 중소기업 연계 취업 유도

(2) 사업명: 중소기업 산업평화 유공자 발굴

○ 필요성

- 중소기업에서 노사협력 증진 및 산업평화에 정착을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협력적 중소기업 분위기 조성

○ 추진방법

-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 노동관련 기관, 노동단체 및 경제관련 단체의 추천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노사안정 및 노사관계에 기여 통한 생산성 도모

(3) 사업명: 중소기업 인력 Academy 사업

○ 필요성

- 해외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무역실무 및 국제 비즈니스 전문교육 기회 제공

○ 추진방법

- 중소 무역업체 임직원 및 무역 분야 창업 희망자
- 수출, 통상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기대효과

- 유망 중소기업 무역업체 전문 인력 양성으로 수출증대 기여
-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수집, 분석 등 실무능력 배양

3. 자금지원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1) 기본 목표

(1) 자금지원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수요자가 지원받을 자금의 성격을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하고 전라북도가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결정하는 수요자 편의 중심 방식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어떤 용도의 자금이나 지원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항만 제시하여 지원을 신청하고, 전라북도가 신청기업의 수요에 부합되는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축적된 고객 DB 및 상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 결정 및 지원 여부 판단에 활용해야 한다.

(2) 상시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을 수요자의 주문이나 요구에 따라 신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시 기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자기자본 충실화를 위한 자기자본 참여형태의 지원 및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투자 회임기간, 유동성 상황 등을 반영하여 수혜기업이 원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채감효과와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도모하고, 사업계획 이행조건부 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진단 및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자금지원을 통해 지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3) 양방향 지원방식

지원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의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행 지원체계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자가 지원사업과 분야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이 과정에서 진단·컨설팅 지원을 병행하여 이를 토대로 기업에 적합한 지원수단과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문제 파악 및 계획적 추진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원수단 투입을 통한 지원 실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원요소의 연계 투입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간단하고 단일한 경우보다는 복합적 수요인 경우가 많은 반면, 통상적 지원은 기업이 신청한 부분에 지원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 역량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한다면, 복합수요에 대해 단편적 지원으로 대응함으로써 기대만큼의 지원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최선의 연계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고객 만족도를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요소의 연계 투입이 가능하도록 업무 수행체제를 보완하고 부분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최근 글로벌 경쟁이 급진전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속성장 다양한 형태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므로 환경 변화에 스스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지식·정보화, 기술 및 제품 주기의 급격한 단축, 글로벌 소싱의 확대에 따른 판로의 불안정성 증대, 환경 친화적 경영의 중요성 부각 등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신규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신규 수요를 순발력 있게 반영함으로써 여타 중소기업 지원 부문을 선도할 필요하다.

2) 정책방향

첫째, 정책금융 전담시스템 구축은 정책자금을 은행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군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운용하고 자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은행 접근도를 제고하고 신용대출 확대를 도모한다.

둘째, 시장금융과의 차별화 및 보완관계 형성이다. 운전성 자금은 시장금융의 공급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긴급 유동성 제약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상당 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은행권의 자금 공급이 점차 확대되겠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절감형 시설투자 수요와 차

세대 성장 동력 부분 등 신산업 투자 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4~5 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3) 세부추진 과제

(1) 사업명: 유사·중복성 지원 해소 및 연계성 프로그램

- 필요성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고 고정적 코드를 부여하여 그 변동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
- 추진방법
 -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예심시스템 운영
 - 유사·중복성에 대한 통제·조정 기능 활성화
- 기대효과
 - 유사자금의 지원대상이나 지원 단계를 구분함으로써 지원기능의 분담이나 지원의 연계성을 확보

(2) 사업명: 자금지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필요성
 - 정책자금 중복 및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자금 통합 DB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해 지원기관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
- 추진방법
 - 정책자금 통합 및 DB 구축
- 기대효과
 - 사업예산을 통합 관리하여 사업의 객관성과 시의성 확보

(3) 사업명: 보증기관의 역할 분담 및 신용보증기관 기능의 확충

- 필요성
 -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영세 소기업 및 자영업자 중심의 업무영역으로 특화
- 추진방법

-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신용보증 기관의 확대로 영세중소기업 지원 확대

4. 판로 및 유통 기반 확충

1) 기본 목표

중소기업 판로지원시책은 중소기업의 OEM 방식 수출시장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반면 자기 브랜드에 의한 내수시장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시장에 관한 정보 및 분석 능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마케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애로점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여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는 향후에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프라인 상의 새로운 유통채널의 성장변화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2) 정책방향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기존의 판매 공간 확대, 홍보 지원, 브랜드 지원 등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계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계지원 시책을 운용한다. 또한 성과 연계형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계획안에는 경영목표를 수치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지원받는 중에도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판매 공간 확대를 위한 시책은 향후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리적인 공간을 확대하는 시책 방향을 지양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장을 제공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전라북도는 전시판매장 등의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판로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요를 매칭 시키는 기획 관리 기

능을 강화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판로 강화를 위해 지원해야 할 기능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운영이 4.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중소기업중앙회, 2003) 이는 물리적인 공간 확대를 위한 시책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전용 전시판매 공간보다는 오히려 우수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여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로 나누어서 박람회에 대한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홍보기회 확대 사업은 기존의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제품은 대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보다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유효한 것을 고려할 때,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세분화된 시장 개척에 유효한 홍보매체의 개발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셋째, 브랜드 개발사업은 기존의 인증제도나 공동브랜드 사업이 형식화되고 성과가 저조한 것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의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인증제도의 검사내용과 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여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불화는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제조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상품에 적용하는 전북 디바이스(National Device)사업이 필요하다.

3) 세부추진 과제

(1) 사업명: 우수 중소기업의 홍보 및 판로확대

- 필요성
 -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판촉 이벤트 필요
- 추진방법
 - 전라북도의 특산품, 관광기념품, 생활용품 등을 전시
 - 기관적극 구매 유도, 홍보책자 발간 및 유통계획
- 기대효과
 - 다각적인 판로지원을 통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경기부양

(2) 사업명: 국내·외 마케팅 포털사이트 네트워크 구축

○ 필요성

- 현지 지원 위주의 마케팅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지원이 가능한 모든 전라북도 전문기관이나 업체, 그리고 개인(전문가)으로 구성된 마케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 한상 네트워크, 전라북도 출신 기업(무역인), 해외 마케팅 지원이 가능한 현지 기관이나 인사, 전라북도내의 해외시장개척요원, 최근 해외에서 복귀한 수출관련 인사, 수출 자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특정지역이나 업종의 수출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업체, 개인 등의 Pool 구성하여 업체들이 활용

○ 추진방법

- 마케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라북도 전문기관이나 업체 또는 개인의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 수요자 접근이 용이 하도록 수출 관련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등재하거나 중소기업관련 웹사이트에 등재
- 포털사이트를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포털사이트에 가입하도록 권유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수출지원

(3) 사업명: 해외 마케팅 지원 인력 집중 육성

○ 필요성

- 전라북도 중소기업들이 해외 마케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마케팅 인력 육성

○ 추진방법

- 해외현지 지원인력: 현지사정에 밝고, 전라북도 도내 중소기업과 의사소통이 원활 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마케팅 인력을 집중 육성
-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력 해외 마케팅 개척요원으로 육성

- 청년무역인력: 전라북도 내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 경험 및 해외 시장 현장 경험을 통하여 청년 무역 인력을 양성
- 기대효과
 -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인력 양성과 청년 실업 해소

5. 생산 기술혁신역량 강화

1) 기본 목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구조 고도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중소기업의 국가 간 이동 원활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식 기반경제가 도래하면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원천이 노동, 자본 등에서 기술, 지식, 정보, 브랜드 등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기술개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해외로부터 생산설비와 핵심 원부자재, 원천기술 등을 도입하여 가공, 조립 생산, 판매하는 기본구조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여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과거와 같은 성장전략, 즉 노동·자본의 단순 투입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이 곤란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생산성 향상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기동성, 창의성, 유연성, 전문성 등의 강점을 지닌 중소기업은 지식기반 시대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기술혁신 역량의 강화는 선택문제가 아니라 달성해야할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의 또 다른 현안과제인 실업문제와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수단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장기비전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2) 정책방향

(1) 중소기업 기술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형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장 선점형 기술개발 보다 추격형 기술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및 신흥공업국에 보편화된 성숙·쇠퇴기 단계의 기술개발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형 기술개발 보다는 생존형 기술개발 위주인 것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고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산업·기업·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전략 또한 해당기업이 처한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또한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는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은 물론 전통산업 분야에 새로이 진입하는 신규참여 기업도 많은 경우 기존 기업과 달리 기술·경영혁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재 지역에 따라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혁신자원의 부존조건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기술정책수요가 해당기업의 기술적 특성과 입지조건에 따라 각기 상이함에 따라 기술 지원 정책도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 동력으로서 전라북도 전략산업의 선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중소기업과는 다른 전략이 요구된다.

(2) 지원 산업 간 연계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와 함께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을 제고 시키고,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상업화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계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라북도 중소기업도 수요 견인형 기술개발사업의 발굴·확대와 함께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확대, 단계별 지원체제 구축 등을 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3)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제 구축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정책 수요에 부응하여 그 동안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 접근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등 수요자 편의 중심으로 꾸준히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나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인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지원기간, 지원규모 등의 현행 지원조건이 신설 당시와 동일하여 개발여건과 과제성격이 크게 달라진 현재의 정책수요와는 괴리감이 있다. 제도접근·신청절차 측면에서도 현재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관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내용이 간략하여 정보해독력과 제출서류 작성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신생 기업들에게는 접근 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부의 기술혁신 주체·원천이면서 중소기업의 공동개발 협력자이자 기술서비스 제공자인 대학, 공공 연구기관 등에 대해 활용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제공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실태조사, 기술수요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술지원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와 애로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감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세부추진 과제

(1) 사업명: 기술혁신 선도 중소기업 선정 및 집중 육성

○ 필요성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내용 또한 기술을 모방·개량하는 캐치업 또는 생존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데는 한계

○ 추진방법

- 발굴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기관에서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보증 및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질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
- 과거의 중소기업 확인 정책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평가체계(OECD 오슬로 매뉴얼)를 적용하여 전문기술금융기관 등 민간주도로 시행함으로써 실제 금융지원과 연계

○ 기대효과

- 기술 주도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2) 사업명: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

○ 필요성

-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산·학·연·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에 의한 기술지원으로 애로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

○ 추진방법

- 경영관리, 공정개선, 제품개발 등의 현장애로기술 종합지도
- 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경영 등에 관련된 기술개발 분야

○ 기대효과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분야 지원으로 우수한 품질 생산
- 산·학·연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네트워크화

(3) 사업명: 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

○ 필요성

- 전라북도 내 산업재산권에 대한 마인드 확산
- 특허관련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한 지식재산창출기반 조성

○ 추진방법

- 특허청에 지식재산 센터 설치요청
- 특허정보 검색 및 상담 센터 운영
-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정기 개최
- 출원에서 특허까지 산업재산권 무료 종합서비스 실시

○ 기대효과

- 지식 재산 창출 역량을 통한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 확보

6.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역량 확충

1) 기본 목표

벤처기업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및 창업에 유연성과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

기업 중심 성장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벤처기업은 전라북도 성장의 주요 동력이며 고용의 주된 창출원이 될 것이다. 벤처기업의 발전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전라북도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구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벤처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영환경을 보정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벤처기업 창업·성장 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2) 정책방향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기업에 편향된 사회적 인식과 자원배분을 바꾸기 위한 일종의 쇼크 요법으로서 직접적 지원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해도 현 단계에서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도 ‘다다익선’ 일수는 없으며,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율성이 고려된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의 기업 선별 기능의 중심이 되는 시장 친화적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민간 벤처캐피탈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장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펀드에 출자할 때에 벤처캐피탈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정하고 일관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업명: 벤처기업 토착화 강화

○ 필요성

- 벤처기업의 축진지구는 산·학·연 연계가 이루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만큼, 벤처기업육성축진지구를 벤처기업 활성화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

○ 추진방법

- 산·학·연 연계 추진 활성화
- 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 벤처기업 토착화를 위한 특례지원
- 기대효과
 -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토착화 달성

(2) 사업명: 벤처기업 마케팅 강화

- 필요성
 - 벤처기업은 신기술을 가진 제품 및 서비스 공공부분에는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 및 유통망 확보에는 우위가 부족
 - 벤처기업의 R&D 능력을 대기업의 마케팅 능력과 결합시킴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 활성화
- 추진방법
 - 벤처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
 - 벤처기업들이 마케팅 기능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전략으로 판매, 유통, 마케팅, 유통망 확보에 비교우위를 가진 대기업과 협력 지원
- 기대효과
 - 벤처기업의 취약한 마케팅 기능의 보강으로 경쟁력 강화 및 벤처기업 활성화

7. 기술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1) 기본 목표

최근 중소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요소투입 의존형 성장의 탈피 및 구조고도화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금, 판로, 기술개발 등에서 구조적 애로요인을 갖고 있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은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은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측면과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측면을 조화롭게 추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단계: 미래 지향적 핵심 성장산업과 쇠퇴산업의 판단 및 분류: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및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성장산업과 쇠퇴산업 분류가 필요하다.

2단계: 성장업종, 비교우위업종의 전략적 선택 및 육성: 성장산업이면서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 및 업종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군이 중소기업의 혁신 및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단계: 쇠퇴산업의 해외 이전 및 퇴출을 위한 지원 : 국내의 경쟁력 상실 산업의 원활한 해외이전 및 퇴출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중소기업간 유효경쟁을 도모할 수 있다.

2) 정책방향

(1) 구조조정 대상 및 목표의 명확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실천적인 정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대상과 목표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조정의 시급성,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중요한 업종들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통해 지원수단의 제약하에서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책의 성격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 차원이 아닌 중소기업의 집단적 대응과 노력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 운용할 필요가 있다.

(2) 기술 주도형 창업 강화

성장산업으로의 전환 지체, 쇠퇴산업으로부터의 퇴출 지연 등과 같은 중소기업 고유의 구조조정 후행성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첨단업종 및 기술주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신 분야 진출, 제품 차별화 등과 같은 산업 내 사업조정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3) 중소기업 구조조정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조조정을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 컨설팅, 구체적 방식 및 수단 등에 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관련 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과 의사가 미흡한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3) 세부추진 과제

(1) 사업명: 생산구조 사업과 연계한 구조개선 사업

○ 필요성

- 중소기업의 성장구조가 여전히 요소투입 의존형에 머물러 있고 이로 인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순한 시설개체보다는 혁신 유발형 시설투자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

○ 추진방법

- 구조개선 사업 지원 시 지원 희망업체로 하여금 생산구조 혁신계획을 제출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 진단 및 컨설팅 기능을 결합하여 생산 공장 혁신 및 고부가치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사업의 집행체계 개선
- 생산구조 혁신에는 인력구조 고도화, 정보화 활용 등과 연계한 생산구조 개선으로 단순한 설비투자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생산 구조 혁신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 체계 혁신 도모

8. 지식기반 중소기업 육성

1) 기본 목표

향후 지식산업의 중소기업은 지식네트워크의 핵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시장에 의해 지식의 창출, 활용, 축적, 학습이 확산되고 가속화될 것이다. 지식서비스 중 중소기업, 대기업, 여타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기존의 거래 흐름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중소기업 부문의 지식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영혁신 역량의 제고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이 보다 합리화, 효율화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기반으로 기업 활동 서비스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어 양질의 지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 시책의 최종목표는 중소기업의 지식 기반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2) 정책방향

(1) 중소기업의 지식기반 수요창출 및 보급 확대

중소기업 기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컨설팅, 디자인, R&D, 마케팅, 스펙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지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식기반 서비스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보급한다.

(2) 전문지식기반 기업의 기초적 지원 강화

전라북도는 지식에 대한 시장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 관련 지식을 공급하는 지식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해당 지식에 대한 자금, 기술, 인프라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지식 기업을 육성한다. 지식에 대한 제도는 여러 부문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전라북도가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3) 세부추진 과제

(1) 사업명: 디자인 및 브랜드 사업

○ 필요성

- 디자인과 브랜드가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소기업의 디자인 및 브랜드의 개발에 대한 지도, 지원의 강화 필요

○ 추진방법

-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확충하되 기술개발과 동일한 차원에서 접근, 지원

-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간의 연계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고유디자인 및 브랜드 확보

9. 창업 활성화

1) 기본 목표

전라북도의 창업지원시책에 요구되는 역할은 단지 미시적 차원의 창업을 제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체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거시 경제적 목표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규정될 것이다. 따라서 창업지원시책의 비전은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래의 창업지원시책에 부과되었던 신생기업의 창출이라는 목표에 덧붙여 기업지원 정책적 요소와 혁신지원 정책적 요소가 창업지원시책이라는 틀속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고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방향

(1) 창업 정책의 질적 내실화

창업 활기의 지속과 질적 내실화 및 고도화가 크게 요구됨에 따라 창업지원시책도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형태로 시책 내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 방향도 단순히 창업율의 제고가 아니라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 실현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업의 질적 저변 확충과 함께 예비창업자 내지는 창업자들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돕는 양질의 제도적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더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정책의 무게 중심도 지금까지의 자금지원, 창업편의성 제고, 하드웨어적 보육사업 중심에서 기업가 양성 및 교육, 정보·상담·자문 서비스의 확충, 소프트웨어적 보육사업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자금지원, 창업 편의성 제고 등 여타 시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프라 지원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선별적 지원시책은 의지와 노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신규 지원수요 발굴

창업지원시책이 과거와는 또 다른 여건 속에서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신규 지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신규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실험과정을 거친 선제적 정책재화의 시의 적절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체계의 틀 속에서 지원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규 지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기획 및 선제적 발굴기능의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창업자 중심의 지원체계

지원체계의 공급자 편의적 측면은 크게 2가지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하나는 집행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수요자측이 부담케 하는 집행 편의성이며, 다른 하나는 지원기준이나 결과의 위험을 수요자가 부담케 하는 것이다. 공급자 편의적 요소는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소화 필요성은 크게 강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여력의 정도가 정책의 신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상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세부추진 과제

(1) 사업명: POST-BI 업체의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 필요성

- 창업보육센터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보육기능 수행 필요
- 신산업 창출 및 신규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추진방법
 - Post-BI 업체 중 기술력, 경쟁력을 갖춘 업체 위주 지원
 - Post-BI 업체의 선도 기업 육성지원
- 기대효과
 - 보육기능 수행은 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성공률을 제고

(2)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구축

- 필요성
 - 전라북도 내 창업보육센터들이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연합체 결성)을 통해 공동으로 지원기능 수행하여 애로사항 해소
 - 시설, 기자재 및 인력의 공동 활용 추진 필요
- 추진방법
 - 대학, TIC, TP, RRC 등과 네트워킹 구축과 시설, 기자재 및 인력의 공동 활용
- 기대효과
 - 중복투자 방지 및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제 1 절 결론
- 제 2 절 정책적 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 론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의 활동영역 확대를 도모하고, 보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기술개발·판매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및 산업여건과의 관련성, 그리고 다양한 지원시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개선 및 보완되어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다. 또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중소기업 내부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기업지원 공급을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외부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산업발전 전략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의 확충은 지역산업의 발전방향과 전략산업의 혁신특성에 적합하도록 기업지원을 지역별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차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킹 확립을 통해 통합형, 수요자 지향형 중소기업 지원 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은 금융이나 세제지원을 통하여 혜택을 주는 직접 지원방식 위주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유리하나,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기적인 처방만 계속된다면 중소기업은 계속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 남는다. 따라서 입지의 우월성을 확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교육시설을 확충하며,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지원은 점차 축소하여 애로사항을 중소기업이 헤쳐 나가도록 하고, 정보제공 등 생산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 경쟁력이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업은 성장하고, 신규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혁신체제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집단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력이 약해 퇴출되는 기업에게는 업종전환, 전직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력을 갖춘 기존 기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전라북도 선도 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 기업을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경영능력 및 기반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성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 중소기업의 육성은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나약한 기반을 갖춘 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지역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업종 보다는 영세한 규모의 단순조립 및 가공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자체 상품개발에 투여하는 연구개발 수준도 미약한 수준이어서 향후 생산성 경쟁시대에서 그 존립이 위협받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구조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지역경제의 낙후성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나약한 경제력과 낙후된 산업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식기반업종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 산업구조 변화의 부응,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신규고용의 창출, 소비구조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기존 중소기업이 지식기반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비교우위성 자원과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하는 토양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후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및 신규 사업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식경영체계 도입,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지식근로자의 양성 및 훈련체계의 구축, 중소기업 관련 각종 행정·재정·금융·입지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기업지원 서비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의 분산형 공급자 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지원서비스를 통합형 수요자 지향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및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업지원서비스의 다양화, 전문화, 차별화로 설정하였다. 다양화는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 즉 마케팅 경영자문 협력중개 및 네트워킹 등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서비스 공급은 이러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전문화는 기업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간 서비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차별화는 산업별·기업단계별·지역별로 차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지원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지역산업의 발전방향과 전략산업의 혁신특성에 부합하도록 기업지원의 지역 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기업지원의 다양화 전문화 및 차별화를 위해 다음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보호육성이 아닌, 철저히 시장원리에 의해 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신용보증 중심의 금융지원 시스템,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선행 되어야 하고, 직접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신용보증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②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각종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금융지원, 직능단체의 지원 시스템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밀착형의 지원이 필요하다.

③ 중소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별 접근 방식에서 클러스터별 접근방식’으로 지원정책을 전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는 단순 하청관계가 아니라 자본, 자금, 기술·정보 등을 최대한 공유하도록 상생관계 지원이 필요하다. 내수중심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 지역별 클러스터를 이루고 이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위한 구축의 지원도 필요하다.

④ ‘정부주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부터의 변신 추구해야 한다.

중소기업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시의 적절한 지원정책 수립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금융지원에서 각종 행정·정보제공 및 인프라 보완 위주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

⑤ 창업 지원을 중소기업 정책 핵심 축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창업지원을 특성화 하고, 창업지원센터를 분야별로 전문화하고, 보호육성 차원의 의무적 지원이 아닌 지원기관의 수익 창출과 직결 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해야 한다.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원지원 서류 대폭 간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⑥ 혁신적 중소기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시행이 되어야 한다.

개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를 유도하는 형태로 지원정책 수립을 수립하고, 시행주체인 정부와 수혜자인 기업 상호간에 호 순환적 자극을 주는 ‘인센티브형’ 기술혁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⑦ 중소기업 관련 민간 전문가 경영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역 경영자와 현역경영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와 연수를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는 자금조달, 정부조달 참가, 세무신고 등 신청서·계약서 작성, 관계 기관 소개 등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한다.

⑧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 기업환경의 글로벌화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최적 조달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 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강화와 ‘중소기업 수출저변의 확충,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강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⑨ 중개기능과 단일 상담 창구역할을 담당할 기업지원 플랫폼을 설립하여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지원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⑩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나 응용보다는 기존의 기술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업지원 서비스는 특정기술의 연구개발 자금지원 혹은 연구개발 장비 구축과 같은 지원방식 보다는 기업의 수요에 맞도록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강동수,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신용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2.
- 김대식, “중소기업 금융 지원제도 ·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0.
- 김진수 · 김재전,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 김번욱, “IMF 관리체제하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3.
- 김상환,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4.
- 김현기, “중소기업지원 산 · 학 · 연 협동 연구 개발사업의 애로요인 조사 분석 연구”, 과학기술연구원, 2002.
- 기획예산처, “기금운용 평가보고서”, 각 년도
- 박중권,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절차 효율화방안”,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 이갑수,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이종욱 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국회산업자원위원회, 2003.
- 인천광역시,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길라잡이”, 2004.
- 양현봉, “중소기업 구조전환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2.
- , “지역혁신 활성화 위한 지방중소기업 육성방안”, 산업연구원, 2004.
-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CEO Information, 2004.
- , “전통기업의 디지털 전환 교훈”, CEO Information, 2003.
- , “제조기술 기반의 원가 경쟁력 강화방안”, CEO Information, 2003.
- 서건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중소기업 발전전략”, CEO Information, 2003.
- 조영삼 외,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산업연구원, 2003.
- ,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 2003.
-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 현황”, 2003.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백서 2000”, 산업연구원, 2003.
- , “중소기업발전 10개년 비전”, 2003.
- 중소기업청, “2003년도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 자료”, 2003.
- , “2004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 2004.

- , “각 부처 지원 사업 안내”, 2004.
- ,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 드립니다”, 2004.
- ,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년도.
-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보고서”, 각 년도.
-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육성전략”, 2003.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 진영환 외, “산업단지개발의 파급효과 분석”, 국토개발연구원, 1989.
-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4.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각 년도.
-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부 록

- 전라북도 중소기업 실태 조사표

ID			-			
----	--	--	---	--	--	--

전라북도 중소기업 실태 조사표

조사 취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인 “전북지역 중소기업육성 중장기 계획”을 위해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향후 전라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협력하여 전라북도를 중소기업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들을 개선 또는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시군별로 수집된 다른 설문응답과 함께 통계적으로만 이용될 뿐이며, 통계법 13조 및 14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차후 도의 중소기업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빠짐없이 모든 문항의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본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희망하시는 업체에게는 현재 시행 중인 12분야 117개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설명이 수록된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신청 희망여부	
--------------	--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화: 063-286-9213/9217, FAX: 063-286-9206
 주소: (560-011) 전주시 중앙동 1번지
 홈페이지 : <http://www.jd.re.kr>
 이메일 : nsg@jd.re.kr, rohsy@jd.re.kr

2005. 9.



기업의 일반현황

업종(KSIC) 코드번호			
------------------	--	--	--

업체명 (홈페이지 주소)	(http://)			업종분류 ¹⁾ (분류표참조)	<input type="text"/>	상장 여부	()0)상장 ()1)비상장
기업형태	()1) 법인기업	()2) 개인기업	입지 유형	()1) 개별입지	()2) 농공단지		
설립연도	년 월			()3) 국가산업단지	()4) 지방산업단지		
재무현황	자본금 ²⁾	총매출액	수출액	연구개발비 지출	부채 ³⁾	당기순이익 ³⁾	
	2004년 6월 말	원	원	원	원	증가/불변/감소	증가/불변/감소
	2005년 6월 말	원	원	원	원	증가/불변/감소	증가/불변/감소
주소 (주사업장)	시/군			번지			
대표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1) 업종분류표: 01 농림어업, 02 광업, 31 음식료품, 32 섬유·의복·모피, 33 목재·종이·가구, 34 인쇄·출판, 35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36 비금속광물제품, 37 제1차금속, 38 조립금속·기계수송용장비, 39 전기·전자, 40 기타 제조업, 04 전기·가스·수도업, 05 건설업, 06 도소매업, 07 음식·숙박업, 08 운수 및 보관업, 09 통신 및 방송업, 10 금융 및 보험업, 1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2 교육 및 보건, 13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4 기타 서비스업
- 2) 자본금은 납입자본과 잉여금(자본이익)의 합임.
- 3) 전년 동기 대비로 증가한 경우는 '증가'에 ○표를 감소한 경우는 '감소'에 ○표.

설문지 작성자 연락처	성명		부서 및 직위	
	이메일	@	전화번호	() -

I. 경영실태조사

문1. 귀사의 직종별 인력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 1인이 다수의 직무를 맡고 있는 경우, 가장 핵심적인 기능 한 분야로 분류

구분		고용인원(명)(2005년 6월말 기준)
1	생산직	
2	사무직	
3	연구개발직	
4	외국인	
5	합계	

뒷장에 계속=>

※ 다음 질문내용에 적절한 답을 골라 괄호()안에 ○ 또는 V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2. 귀사의 부족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2) 국내에 해당 인력이 없어서
 ()3)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 ()4) 임금조건이 맞지 않아서
 ()5) 작업환경 요구의 차이 ()6) 전북지역에 해당 인력이 없어서
 ()7) 기타()

- 문3. 귀사의 경우 ‘여성인력 활용’에 따른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 잔업기피 등에 따른 조업에 한계
 ()2) 낮은 노동생산성
 ()3) 근로환경(여성 및 육아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추가 요구
 ()4) 어려움 없음

문4. 귀사가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애로사항들의 강도를 답해주시시오.

애로사항		강도				
		아주 힘들(1)	힘들(2)	보통임(3)	좋음(4)	아주 좋음(5)
1	기술개발 및 획득					
2	노사문제					
3	자금조달					
4	판로개척(마케팅)					
5	현지 생산 인력 확보					

- 문5. 귀사가 전라북도에 창업 또는 이전해 온 동기는 무엇입니까?
 ()1)전북이 연고지역이기 때문에 ()2)관련 기업들이 다수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3)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4)기업의 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5)안정적인 노사관계 때문에 ()6)수도권 규제 때문에
 ()7)공단의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6. 귀사가 위치한 전북지역은 아래와 같은 입지적 이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항 목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아주 적합
		(1)	(2)	(3)	(4)	(5)
1	주요 고객업체 및 판매시장과의 접근성					
2	원자재 및 부품공급업체와의 근접성					
3	연구기관, 대학 등과 원활한 협조체제 (사외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교류)					
4	창업 또는 기술이전 지원기관					
5	경영, 금융, 마케팅 등의 지원서비스					
6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지역문화					

뒷장에 계속=>

문7.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의 기술협력이 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선택가능)

- ()1) 협력체들과의 상호신뢰구축 미흡 ()2) 협력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 ()3) 협력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장치 취약 ()4) 협력 파트너(기관)의 역량 부족
- ()5) 기타()

문8. 귀사가 자금조달에 있어 이용하는 재원들은 무엇입니까?(복수 선택가능)

- ()1) 금융기관 이용 ()2) 사채시장 이용
- ()3) 적립금주식발행 등 자기자본 ()4) 회사채 발행
- ()5) 임직원 차입

문9.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는데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복수 선택가능)

- ()1) 재무구조취약 ()2) 높은 대출 심사기준
- ()3)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관행 ()4) 복잡한 대출 절차
- ()5) 대출금 만기연장 회피 ()6) 기타()

문10.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 가능)

- ()1) 정부출연의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2) 전라북도출연의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 ()3) 정책자금 이용절차의 간소화 ()4) 정책자금 추천기관의 심사기준 완화
- ()5) 담보 및 보증요구 축소 ()6) 기타()

문11. 귀사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분야의 규제 강도를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항 목		매우 약함 (1)	약함 (2)	보통 (3)	강함 (4)	아주 강함 (5)
1	공장(기업체)이전					
2	공장건축부분					
3	공장입지부분					
4	노동부분					
5	창업부분					
6	환경부분					

문12.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귀사가 얻게 된 주된 이익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기술고도화·전문화 ()2) 수주안정
- ()3) 기술정보 및 해외정보 획득용이 ()4) 원·부자재 확보의 용이
- ()5) 자금난 완화 ()6) 인재파견을 통한 기술이전 효과
- ()7) 판로확보 및 개척 ()8) 경영개선
- ()9) 기타(구체적으로 :)

뒷장에 계속=>

문13. 현재 대기업과 어떠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해당 분야에 ○표 해 주시고 선택항목에 대한 관계의 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대기업과의 협력분야	관계유무	아주 약함(1)	약함(2)	보통(3)	강함(4)	아주 강함(5)
1	경영참여						
2	기술개발협력						
3	기술이전						
4	사업이양						
5	설비대여						
6	원자재 수급						
7	인력 파견 및 교류						
8	자본참여						
9	제품설계 제공 또는 공동개발						
10	판매(수출)마케팅협력						
11	기타()						

II.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수요도와 만족도

문14. 다음과 같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제 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경영안정지원					
2	경영정보화지원					
3	공산품시험·분석·연구지원					
4	기술혁신지원					
5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					
6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					
7	수출지원					
8	인력지원					
9	전략산업육성					
10	중소기업 사기전작					
11	중소기업 자금지원					
12	판로지원					

뒷장에 계속=>

※ 다음은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각 기관들을 통해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제공되고 있는 총 117가지 지원제도와 정책들을 12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조사문항은 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귀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활용되고 있으며,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증장기적으로 전북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기관들을 제도나 정책과 함께 명시하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은 지원기관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제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제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는 인지도에 ○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를 하여주시고,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제도를 활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 한해서만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문15.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인지도와 활용경험, 그리고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지도 란에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 ○, 모를 경우 ×를 표시하고, 반드시 인지도 또는 활용경험에 ○라고 답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인지도	활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3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지원제도								
4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5 중소·벤처 창업자금								
6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8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9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10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11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12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문16. 현재 추진 중인 『경영·정보화 지원』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지도 란에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 ○, 모를 경우 ×를 표시하고, 반드시 인지도 또는 활용경험에 ○라고 답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보화 지원	인지도	활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경영도우미 지원단 운영								
2 경영혁신교육								
3 구조개선 고도화 사업								
4 기업경영 정보제공								
5 소자본창업경영개선 설명회								
6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7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								
8 중소기업 애로사항 정기조사								
9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교육사업								
10 중소기업 정보화 종합 컨설팅 사업								
11 중소기업 정보화 혁신 전문기업(TIMPS)사업								
12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발								
13 중소기업 DB구축								
14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뒷장에 계속=>

문17. 현재 추진 중인 『경영안정지원』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지도 란에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 ○, 모를 경우 × 를 표시하고, 반드시 인지도 또는 활용경험에 ○라고 답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정지원 제도	인지도	활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지원							
2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3	산업기능요원 제도지원							
4	외국인산업 연수제도지원							
5	제조물 책임제도(PL) 대응지원							
6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7	해외전문인력도입 및 연수지원							

문18. 현재 추진 중인 『판로 지원』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지도 란에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 ○, 모를 경우 × 를 표시하고, 반드시 인지도 또는 활용경험에 ○라고 답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로 지원	인지도	활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단체 수의계약제도							
2	도내중소기업제품 선물큰잔치							
3	재래시장 환경개선							
4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건립							
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6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7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							

문19. 현재 추진 중인 『인력지원』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지도 란에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 ○, 모를 경우 × 를 표시하고, 반드시 인지도 또는 활용경험에 ○라고 답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	인지도	활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고용촉진훈련사업							
2	공공근로사업							
3	일자리창출사업							
4	취업사이트 운영							
5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							

뒷장에 계속=>

문20. 현재 추진 중인 『수출지원』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지도 란에는 제도(사업)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 ○, 모를 경우 × 를 표하시고, 반드시 인지도 또는 활용경험에 ○라고 답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지원	인지도	활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국제박람회 참가							
2	무역전문인력 양성지원							
3	상해통상사무소 운영 활성화							
4	수출기업화 지원							
5	수출보험 가입							
6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7	수출지원센터 운영							
8	외국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							
9	외국인 투자환경조성							
10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사업							
11	타겟기업 투자설명회							
12	투자유치활동 강화							
13	해외거래 강화사업							
14	해외마케팅 지원							
15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6	해외유통시장 진출 지원사업							

문21. 현재 추진 중인 『기술혁신지원』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지도 란에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 ○, 모를 경우 × 를 표하시고, 반드시 인지도 또는 활용경험에 ○라고 답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혁신지원	인지도	활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							
2	기술우대보증제도							
3	기술평가보증							
4	기술평가제도							
5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사업							
6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7	산업기술 정보제공							
8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9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사업							
10	생산현장 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11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							
12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13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행(TRITAS)지원사업							
1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							
15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16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17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뒷장에 계속=>

문22. 현재 추진 중인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지도 란에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 ○, 모를 경우 × 를 표하시고, 반드시 인지도 또는 활용경험에 ○라고 답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	인지도	활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국내기업 유치							
2	기업유치 보조금지원							
3	농공단지 분양							
4	지방산업단지 분양							
5	창업관련 세제지원							

문23. 현재 추진 중인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지도 란에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 ○, 모를 경우 × 를 표하시고, 반드시 인지도 또는 활용경험에 ○라고 답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여성기업 육성창업지원	인지도	활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2	대학생 창업지원							
3	벤처기업 세제지원							
4	벤처기업 확인제도							
5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7	신기술지역펀드 운용							
8	실험실 벤처 창업지원							
9	엔젤에 대한 세제감면							
10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우대							
11	창업 강좌							
12	창업보육사업 지원							

문24. 현재 추진 중인 『전략산업육성』에 대한 지원 제도들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지도 란에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 ○, 모를 경우 × 를 표하시고, 반드시 인지도 또는 활용경험에 ○라고 답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	인지도	활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지원							
2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3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							
4	두뇌한국 특화분야 육성							
5	반도체연구기반 혁신산업							
6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정							
7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지원							
8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9	차세대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뒷장에 계속=>

문25.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사기진작』에 대한 지원 제도들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지도 란에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 ○, 모를 경우 ×를 표시하고, 반드시 인지도 또는 활용경험에 ○라고 답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기진작	인지도	활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수출의 날 행사							
2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							
3	유망 중소기업 발굴							
4	전통공예산업 육성							

문26. 현재 추진 중인 『공산품시험분석·연구지원』에 대해 귀사에서 느끼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지도 란에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 ○, 모를 경우 ×를 표시하고, 반드시 인지도 또는 활용경험에 ○라고 답한 경우에만 해당 제도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품시험·분석·연구지원	인지도	활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1	시험검사지원							
2	계량/계측기 교정 검사지원							
3	이동순회 교정 및 생산현장 기술자 교육지원							
4	설비사용지원							
5	시험·연구개발지원							
6	효율기자재 소비효율 측정시험							
7	민속공예품 품질인증							
8	창업보육센터(☞) 업주지원 제품품질인증							
9	시험결과의 해석 및 조사지원							

Ⅲ.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필요성

문27. 현행 지원제도 및 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 제도 및 정책	필요 없음(1)	별로 필요 없음(2)	보통(3)	필요함(4)	아주 필요함(5)
1	금융 및 보증지원 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확대					
2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3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산·학·연의 협조 체계 지원					
4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5	지원내용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					
6	지원대상 범위 확대					
7	지원요건의 완화					
8	지원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9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대					

뒷장에 계속=>

문28.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여타 시도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열악 ()2) 열악 ()3) 비슷 ()4) 우수 ()5) 매우 우수

문29. 귀사가 기업지원제도와 정책들의 활용이 미흡하다면, 그 주요 사유를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 ()2)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3) 지원 금액 규모가 너무 작음 ()4) 지원신청 후 실제 지원까지 장시간 소요
()5) 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안 됨 ()6) 기타()

성실하게 끝까지 응답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빠뜨리고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전발연 2005-R-06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 방안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화: (063)286-9201 팩스: (063)286-9206

<http://www.jd.re.kr>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